한국전력공사 공인협약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조택,식당,병원,목욕탕,숙박업소,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화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5월 2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24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부실한 신도관리

봄법을 수지독송하고 육바라밀을 행하여 사회와 인류를 위해 이바지하고 지혜를 체득, 성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이 불교의 신도관리다. 즉 신도관리에는 입문에서부터 교육, 수계, 신행생활과 포교, 사회활동 등이 포함된다. 승가는 수행 공동체로서 엄격한 규칙과 질서를 바탕으로 생활하는데 비해 재가자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 없다. 부실한 신도관리에서 발생한 결과다.

교계의 신도관리는 축원카드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원카드는 세대주 중심으로 주소와 전화번호, 가족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들만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작 신도관리의 본질적인 부분인 불교 교육과 수계상황, 신행활동 및 포교활동에 관한 기록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신도관리에 소극적인 사찰은 수십년 전에 작성한 신도카드가 그대로 누적되어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심지어는 신도관리 없이 찾아오는 신도들에 의존하는 사찰들도 많다. 결국 이같은 신도관리는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신도관리가 아니다. 말그대로 기도 또는 축원카드인 셈이다.

대부분 축원카드 의존
교육 · 수계등 점검해야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단차원의 체계적인 신도관리 표준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불교는 그동안 여러 종교의 경쟁속에서 수적으로 우세를 보여왔다. 그렇지만 이러한 우위현상이 언제까지 유지되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종교인구 변화 추이를 통하여 추론할 수 있다. 이제는 불교적 정서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불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적극적으로 신행활동에 참여하는 불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신도관리 방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교계는 지금까지의 신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도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도달했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만해학' 국제학술대회

8월14~16일 백담사서 '만해축전'

탄신 120년 맞아…문학심포지엄 등

우리 민족사와 불교사에 불멸의 등불로 빛나고 있는 만해 한용운스님(1879-1944). 스님의 탄신 120주년을 맞는 올해 8월 만해스님의 출가지이자 만해문학의 요람 백담사에서 범국민적 규모의 만해 축전이 열린다. 8.15 광복 54주년 기념 축하도 겸해 열리는 이번 만해축전에는 특히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체코 등 만해에 관심있는 외국의 저명한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만해학의 세계화에 대한 시금석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회장 명호근)가 주최하고 강원도(도지사 김진선)가 후원해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3일 동안 설악산 백담사(회주 오현)에서 열리는 만해축전은 △개막식 △국제학술대회 △문학심포지엄 △문학의 밤 △승두공연 △시인학교 등 다양한 행사로 펼쳐진다.

14일 개막식에는 원로 조병화 시인의 축시낭송,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환영사, 대회장인 고은시인이 '다시 만해를 생각한다' 제목의 대회사를 한다. 이어 '20세기 한국현대시의 반성과 전망' 주제의 문학심포지엄이 열린다. 심포지엄에서는 김용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한국현대시와 시연구'로 기조강연을 하고 오세영(서울대) 최동호(고려대) 홍기삼(동국대) 이승훈(한양대) 임헌영(중앙대) 교수 등이 현대시의 정신사적 고찰, 사회사적 접근, 논쟁사와 비평적 성찰 등 20세기 한국현대시를 종합정리하고 21세기 문학을 전망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15일에는 만해학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조동일교수(서울대)의 '만해문학의 사상사적 의미'라는 주제의 발제강연에 이어 인권환(고려대) 백간(미국 하버드대) 오탕쥬(프랑스대) 사이구사(일본 동경외국어대) 테레사 현(캐나다 요크대) 교수, 이바나(체코, 만해학 박사)씨가 각각 만해시의 미국문학적, 프랑스문학적, 일본문학적, 비교문학적, 동구적 인식을 발표, 만해시를 각 나라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밖에도 이 기간동안 시인 소설가 등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4회 만해시인학교가 개설되며, 축하 승무공연도 펼쳐진다.

만해축전 외에도 탄신 120주년을 맞는 올해 만해스님을 기리는 문화작업이 활발하다. 한국조폐공사가 근세 100년을 빛낸 위대한 스님 가운데 한분으로 선정해 '근세100년 고승 기념 만해메달'을 제작 보급하고 있다. 서정주 고은 김호운 정찬주 씨 등 문학가들이 만해스님의 시집, 스님의 생애를 다룬 소설을 펴내는 등 만해스님의 삶과 문학적 성과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관련 기사 7면>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모범수 1천240명 초파일 가석방

법무부는 20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범수형자 1,240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부처님오신날을 경축하는 의미에서 일례 가석방 때에는 포함하지 않는 무기수 1명과 형기 10년 이상 장기수 98명을 대상에 포함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조직폭력 가정파괴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 고질적 민생침해사범에 대해서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가석방에서 제외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도심 종교시설내 납골당 설치 허용

서울시, 7월부터

7월부터 서울시내 종교시설내에 납골당 설치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20일 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납골당의 도심 건축을 금지해 왔으나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사찰, 교회, 성당 등이 주거 · 상업지역에 위치하더라도 납골당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이번주 28면 특집발행
다음주 신문 쉽니다

현대불교 2기 명예기자 위촉

강원호(서울) 권경오(경산) 김난인(대구) 김미진(서산) 김춘환(인천) 박순배(강진) 백정기(서울) 안정수(인천) 유인자(서울) 이성모(춘천) 이희경(수원) 임경빈(대전) 최경수(서울) 최우진(서울) 이상 14명. *교육일정 추후 통보.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22일 전국의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는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다.

"대비원력으로 화합시대 열자"

22일 조계사등 전국사암서 초파일 봉축법요식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태고종과 천태종 진각종 등 각 종단도 이날 봉원사, 관문사, 탑주심인당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알리는 28번의 타종과 관불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조계사 법요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과 총무원장 고산스님 등 3원장, 중앙종회의장 법등스님 등 종단 지도자와 서석재 국회정각회장, 박철언 자민련 불자회장, 함종한 한나라당 불자회장 등 정계 인사, 송석구 동국대총장 등 1만여명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다.

고산스님은 봉축사에서 "지금까지의 물신숭배와 전도된 가치관으로는 새시대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오직 진리만이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정 혜암스님의 법어 대독에 이어 법등스님은 남북공동발원문을 통해 공생과 화합, 남북통일을 발원했다.

특히 김동완 기독교교회협의회장, 이재정신부(성공회대 총장)가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기독교계 인사로는 처음 참석해 불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남북공동발원문 발표

이날 법요식에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고산)와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화)이 함께 마련한 '남과 북, 해외 불교도 공동발원문'이 전국의 사암과 미국 LA 관음사, 일본 고려사, 호주 관음사 등 해외 한국사찰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발원문 2면>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만공스님 ◇한암스님 ◇용성스님 ◇만해스님 ◇경봉스님 ◇청담스님 ◇고암스님 ◇성철스님

20세기 빛낸 고승 기념메달

조폐공사 -현대불교 제작 보급

근세 100년 우리 민족과 불교계를 이끌어온 위대한 큰스님들이 기념메달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한국조폐공사와 각 분도회의 후원으로 1900년대를 마감하는 올해 1999년, 근세 100년을 정리하고 기념하는 뜻깊은 문화포교사업으로 '근세100년 고승 기념메달'을 제작 보급합니다.

◇제작: 한국조폐공사가 직접 디자인 조각하며, 조폐공사가 보증하고 영구히 보존하는 메달입니다.

◇출시 일정: △5월-17일 용성·청담스님, 24일 만공스님, 31일 성철스님 △6월-7일 고암스님, 14일 한암스님, 21일 만해스님, 28일 경봉스님 △7월-5일 효봉스님

◇가격: 메달 1개당 5만원이며 수익금은 큰스님을 기리는 기념사업기금으로 활용됩니다.

◇구입 문의: 현대불교신문 전화 (02)737-8881, 722-4162

◇은행계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006-01-0783-279
농 협 053-01-236053

gva (주)건화종합건축사무소
GUN WHA ARCHITECT & GROUP CO., LTD
종합 건축설계 · 종합 감리전문 · 마스터플랜 · 엔지니어링 · 시뮬레이션 및 에니메이션 · 구조물 안전진단
대표 TEL(02)555-1567~8 · 02)555-7181~4

주식회사 아라종합건축 · 건설
건축 시공 · 견적 · 유지 관리 · 강구조(P.E.B)
대표 TEL(02)555-5775 · 02)555-2434~6

ARI 아리건영(주)
주택 건설사업 / 사업성 검토 / 부동산 컨설팅 / 인테리어 / 건축자재 무역업
대표 TEL(02)555-1567~8 · 02)555-718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2-24(아리빌딩2.3층) 대표이사 김 기 상



사 설

한일불교대회의 과제

한일 불교 지도자들이 양국을 상호 방문하며 문화교류대회를 개최해온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마침 올해는 한국이 주최가 되어 대회를 여는 관계로 양국의 불교지도자들은 5월말 서울에서 성대한 기념행사를 가질 것이란 소식이다. 양국불교의 지도자들은 이 모임에서 그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적인 미래를 전망할 것으로 전해졌다.

돌이켜 보면 한일불교교류대회는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만큼 이에 걸맞는 많은 성과를 거두어왔다. 지난 79년 일본대회 이래 해마다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오가며 계속돼온 한일교류대회의 최대 성과는 무어니 해도 '상호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점일 것이다. 양국의 불교지도자들은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상대방 국가의 불교문화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몸으로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실상을 바로 알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서로의 장 단점을 파악하고 자국불교 발전의 거울로 삼은 점은 이 대회가 거둔 보이지 않는 성과중의 하나다. 이밖에도 대승불교를 신봉한다는 공통점을 매개로 동북아 지역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과 오늘날 불교가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 점도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한일불교교류대회가 거둔 또 하나의 성과는 95년부터 중국을 참여시켜 동북아 대승불교 3개국이 황금의 삼각벨트를 형성한 것이다. 94년에 제안돼 95년 중국대회를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잇따라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이제 한중일 3국불교는 다시 한번 과거와 같은 황금연대를 재현할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그 동안 한일양국 불교계가 교류증진을 통한 우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구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그 중 하나가 20년간의 교류내용이 '공식적인 관광방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문화교류라는 명목으로 대회를 개최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문화교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대회 때마다 종교행사에 어울리지 않는 성대한 만찬이나 허례에 불과한 '말씀의 잔치'만 계속된 점도 이 대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교류대회의 성과를 높이려면 이제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교류방안이 연구되고 추진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상호방문을 할 때 전통적 불교의식이나 예술을 상대방 불교계에 소개한다든가, 유학생 파견이나 수행승들의 현지체험수행, 불교문화재의 교류전시 같은 구체적 사업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문화교류의 혜택이 양국의 불교도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관광교류'라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95년부터 시작된 비슷한 성격의 한중일 3국불교대회와 어떻게 성격을 차별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교류대회는 성격이 겹칠뿐더러 낭비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일불교대회를 3국불교대회에 흡수하든지 아니면 성격을 달리하는 별도의 대회가 되도록 하든지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서도 이제는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20주년 기념 법회에서는 이런 저런 문제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이 대회가 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것이 이 대회를 지원해온 양국 불교도들의 한결같은 기대다.

제주불교사회문화원 시민포럼-문화특강 개설

제주 비전찾기 나섰다

29일 미래사회硏 개소

제주불교계가 21세기 지역사회 미래에 대한 사회문화 비전을 제시하고 활로를 모색하는 시민포럼과 특강 등 열린강좌를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제 교육 문화 예술등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활동, 종합적인 문화의식 향상, 건강한 인재양성, 지역발전을 위해 창립된 제주불교사회문화원(회장 중원·원장 시몽)은 14일 제주일보 4층 대강당에서 지역 주요인사와 시민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뉴밀레니엄과 제주'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새로운 제주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았다.

원장 시몽스님(법화사 주지)은 "불타의 자비정신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뜻으로 제주도의 경제 교육 문화 예술등에 대한 학술연구 발간 시민토론 및 교양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책을 수립한 뒤 사회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두함께 열어가는 제주문화선언을 위한 제주불교사회문화원 부설 미래사회연구소(소장 김승석변호사) 개소식 및 기념 시민포럼이 29일 오후3시 삼성화재 11층 대강당에서 '시장경제와 미래문명의 전망'을 주제로 정운영씨(서울대 강사)를 초청하여 열릴 예정이다.

미래사회연구소는 19명의 지역석학들이 연구진으로 포진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 연구 △국제자유도시 경제특구자료 및 정보은행설치 △사회병리현상과 치유책 실천 △신문명 창조 △학술세미나 및 연구총서 발간등의 연구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25일에는 '관광개발과 환경문제', 7월30일은 '21세기 지역발전과 지역전략', 8월 27일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한 종교의 역할' 9월 10일 '제주사회의 새로운발전 패러다임' 등 9월까지 매월 1회 시민포럼을 개최한다.

또 인간의 생로병사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등 가족중심의 사회적인 제관계를 조명하는 '가족-생로병사' 주제의 문화특강이 6월 4일부터 7월 9일까지 7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제주불교사회문화원에서 열린다. (064)758-2118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문화특강 일정

주제	일시	장소	강사
가족의 기원과 변천	6월4일 오후7시	불교문화원 강당	유인철(제주대교수)
결혼과 이혼의 사회학	6월11일	〃	김찬호(연세대강사)
시집은 늙지 않는다	6월18일	〃	박재용(내과전문의)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죽음	7월2일	〃	일장스님(목우원)
현대인과 스트레스	7월9일	〃	박태수(제주대교수)
병든사회 병들어가는 자녀	7월16일	〃	정민(한라대교수)
관혼상제와 장묘제도	7월23일	〃	시몽스님(법화사주지)

초파일 남-북-해외불교도 공동발원문

"화합과 공생으로 민족통일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삼계의 스승이자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모니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봉축하며 삼가 부처님 전에 발원하옵니다.

지금 남에서는 국가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에서는 지난 몇년간 큰 재해로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우리 민족은 분단체제를 해소하는 것만이 민족의 중흥과 번영을 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생과 화합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 내외가 따로 없이 서로 찾고, 부르며, 한마음으로 함께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혜의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통일이 분단의 무명을 걷고 광명을 찾아가는 길임을 분명히 깨달아 일심으로 통일의 그 날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반만년의 역사 속에 한 핏줄을 이어오며 하나의 강토에서 살아온 우리 겨레가 지난 50여 년의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로 화합하여 통일을 이룩한다면, 그것은 무명의 역사를 깨고 광명의 역사가 이 땅을 비추는 화합과 공생의 첫 새벽이 될 것입니다.

만중생과 함께 하시는 자비하신 부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부처님께서 하나된 마음으로 통일을 바라는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하루빨리 이룰 수 있도록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주시고 원만구족의 가피력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이희호여사와 삼소회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는 18일 청와대로 불교와 원불교, 천주교 등 여성 성직자들로 구성된 삼소회 대표 15명을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여사는 "삼소회가 종교간 교리나 신념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오신날 봉축 합창제와 북한어린이돕기 합창제 그리고 연등축제 참가 등 종교간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종교화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제공=청와대 사진기자단

"두달안에 정상화 방안 찾겠다"

허문도 불교TV 사장 20일 기자회견

퇴임설 파문이 일었던 허문도 불교TV사장이 20일 마포 '예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했다.

이날 허사장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물러날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이사회에서 사장으로 뽑아준 만큼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경영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허사장은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라 현재로선 구체적인 경영 대안을 밝힐 수 없다"며 "2개월 정도면 경영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답변했다.

허사장은 또 불교 및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사장 선임 반발 성명서에 대해서도 "과거의 잘못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심판과 참회가 다 끝난 옛날 얘기"라며 "지금은 과거에 연연하기 보다는 불교TV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신도증 즉석발급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10일부터 16일까지 대구 관음사 법왕사 용천사와 두류야구장(사진) 등에서 '신도증 즉석발급 행사'를 실시해 성인 3,155명, 어린이 38명, 면제 1명 등 모두 3,193명에게 신도증을 발급했다. 포교원은 이와함께 전국 1,700여 사찰에 신도등록 홍보용 포스터와 리플렛을 발송했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종회의원 보선 20명 후보 27일 선거

공석중인 7개 교구 및 직능 2개 분야 종회의원 보궐선거에 20명이 입후보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명단을 발표했다. 보궐선거는 27일 실시된다.

정성운 기자

금란가사 착용금지 조계종 계단위 결의

조계종 계단위원회(위원장 청하)는 6일 회의를 열어 율장에 근거한 전통적인 색깔의 가사를 착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스님들의 금란가사 착용이 금지된다. 계단위원회는 또 행자교육원(17기)과 구족계 계단(20회)은 현행의 기수를 유지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국회 종교의원모임 결성

33명 참여…공동대표의장에 김영진 의원

'평화를 위한 국회 종교의원모임'이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창립총회에는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 등 종교계 지도자와 박준규 국회의장이 참석한다.

현재 33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종교의원 모임은 15일 발기인대회를 열어 공동의장에 서석재(국민회의, 국회정각회장) 김영진(국민회의, 국가조찬기도회장) 김정수(한나라, 원불교) 김현욱(자민련, 천주교) 의원을, 공동대표의장에는 김영진의원을 선임했다. 감사는 황우려, 사무총장은 김성곤의원이 맡는다. 발기인대회에서는 또 △민족화해와 일치를 위한 행사 △문화 및 자선사업 △기도모임 개최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다는 내용의 회칙(안)을 마련했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젊은포교 나섰다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마음처럼 …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 주 사
주 지 김 정 락
총무국장 양 심 경
교무국장 윤 성 무
재무국장 김 성 직
교육국장 김 성 호
▶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188번지
전 화 : 0331)234-0040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
회 주 무산 오현
주 지 도 후
대 중 일 동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전 화 : 0392)636-7393
FAX : 0392)636-7556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
조 실 비 룡
회 주 인 허
주 지 현 해
대 중 일 동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전 화 : 0374)332-6661~5
FAX : 0374)332-6915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
주 지 혜 광
기 획 종 진
재 무 현 장
교 무 현 우
포 교 황 원
호 법 각 밀
외 대중일동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전 화 : 0433)543-3615
FAX : 0433)543-3620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산 동화사
조 실 진 제
주 지 성 덕
선 원 장 지 해
총무국장 유 광
기획국장 법 현
교무국장 각 정
재무국장 혜 성
사회국장 지 우
호법국장 일 우
포교국장 지 도
외 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전 화 : 053)985-4404
053)982-0101~2

밀레니엄과 불교의 시간관

요즈음 천년을 뜻하는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하다못해 패션쇼를 하여도 '밀레니엄 콜렉션'이라고 하며, 신혼부부 사이에는 '밀레니엄 베이비'가 관심이다.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은 '밀레니엄 학번'을 갖게 되며, 무슨 행사를 하여도 '밀레니엄 행사'로 불러야 직성이 풀린다. 정보통신부도 '밀레니엄 우표'를 발행한다고 하며, 컴퓨터도 '밀레니엄 버그'(천년충) 때문에 난리다. 인터넷에서 밀레니엄을 검색해 보니 밀레니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웹서버도 3,812건이나 된다. 가히 밀레니엄 폭포라고 하겠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뉴 밀레니엄 리더쉽'이라는 신조어를 상표로 내세우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확실히 요즈음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업주의이다. 소위 정보화 사회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지식을 상품화하여 널리 유통시키는 것이며, 이른바 생명공학도 생명을 물질로 환원시키고 이를 상품화하는 데에 근본취지가 있다. 상업주의는 이제 우리의 삶에 깊이 침투하여 우리의 정신마저 지배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천년의 세월을 상품화하고 있는 정치와 자본의 모습이, 그리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치열한 인간의 삶의 과정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미래를 낙관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이제 우리는 밀레니엄의 현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엄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밀레니엄이라는 개념의 바탕에 놓인 사고방법을 꿰뚫어 보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소박하게는 저녁에 그날의 일을 되돌아보고 아침에 하루의 일을 계획한다. 이러한 점은 해가 바뀔 때에 더욱 명료하게 나타난다. 신년을 맞을 때에는 우리의 반성과 결의가 그만큼 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예측한다 할지라도 두려운 생각을 갖지는 않는다. 예측된 고난이 클수록 우리는 이를 감내하도록 마음을 더욱 다잡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은 하루 또는 일년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또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의 단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그래서 그 과정 또는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을 앞두고 있을 때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미지에 대한 공포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근거 없는 예언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등 이른바 세기말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밀레니엄이 항상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미 빛 세계가 그려지기도 한다. 인간의 허황한 욕망이 무지를 바탕으로 마음대로 나래를 펴는 것이다. 그래서 희망이 사실로 간주되고, 새 천년은 지복(至福)의 천년으로 제시된다. 특정한 종교가 성행하는 것은 바로 이 때이다. 그들은 메시아의 도래를 노래하고 천년왕국을 꿈꾼다. 상업주의가 근거 없는 낙관론을 유포시키며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밀레니엄의 이러한 측면을 반영한다.

한편으로 우리가 건강한 지성을 갖고 있을 때 밀레니엄의 인식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가 인생의 단계 단계에서 지나온 과정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듯이, 인류의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코자 하는 결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밀레니엄의 개념은 천년왕국의 이념에 드러나 있는 것 같이 전통적으로는 미래의 견지에서 현재의 의미를 무화(無化)시키는 것으로 기능하여 왔다. 이상세계를 검증될 수 없는 미래에 설정함으로써 현재를 하찮은 것, 의미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종말론적 사고, 목적론적 사고 또한 현재를 소외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는 밀레니엄의 사유 속에 우리의 현재의 삶이 자리잡을 곳이 없다. 그러나 미래는 현재의 결과가 아닌가. 과거가 현재 속에 응축되어 있듯이, 미래는 현재 속에 그 싹을 갖고 있는 것이다. 과거·현재·미래는 공존하지 않는 직선의 세 계열 또는 세 개의 분리된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 안에서 불가분리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과거·현재·미래는 현재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주체적 인간의 삶의 과정이다. 그것은 더 이상 셋이 아니다. 하나의 주체속에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불교는 지금 이곳(here and now)을 중시한다. 그렇다고 하여 과거·미래 또는 다른 곳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과 공간이 주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교는 내 안에 모든 시간과 공간이 응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부처님은 태어나신 직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여기에서 '나'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부처님 자신을 배타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장구한 역사와 무한한 공간 속의 한 존재이면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절대주체로서의 자기인식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환적 구조를 갖는 불교의 시간관은 단순한 순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불교의 시간관은 영원의 시간이 현재의 나의 실천 속에서 집약되어 있음을 가르친다. 윤회와 업의 이론 또한 우리가 역사의 창조자임을 역설하며,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역사에 책임 있는 자가 되기를 요구한다. 〈구사론〉은 우주의 창조도 중생의 활동(sattva-karman)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제 밀레니엄에 관한 논의는 불교인으로서 역사의 주체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말로 바뀌어야 한다.

봉축시론



정호영

〈충북대 철학과 교수〉

> 불교는 '지금 이곳' 중시
> 과거-현재-미래
> 불가분 관계로 연결

상호이해 기여…공동선언 실천부족

한-일 불교교류 20년 성과와 과제

한중일 불교벨트 형성… '관광성' 비판도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이하 한일불교협, 이사장 홍파스님)는 77년 일본의 제안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한국측 회장은 남채스님(당시 태고종 총무원장), 총재는 서옹스님이었다. 79년 일본 증상사에서 한일불교협 첫 대회가 열렸다. 이 때 한국에서는 11개 종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후 한-일 두 나라의 불교대표들은 3회 대회 이후 2년 동안 대회를 열지 못했으나, 두 나라를 번갈아 오가며 매년 대회를 치러왔다.

한일불교협의 가장 큰 성과는 94년 대회에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를 개최키로 의견을 모으고, 사회주의권에 있던 중국불교를 국제무대로 끌어내 동북아시아에서의 3국 불교벨트를 형성한 것이 꼽힌다. 한-중-일 대회는 95년 북경 첫 대회에 이어 96년 서울, 97년 교토대회로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20여년 동안 대회를 개최해오며 양국 불교인의 우호증진,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매년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를 열지만 '관광성 교류'에 머물렀다는 비판도 팽배해 있다. 참가자들의 친선도모 이상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매년 공동선언문이 나오지만 '선언적' 의미에 그칠 뿐 실천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평가는 귀담아 들어야 할 지적이다.

97년 대회의 경우 '고대 한일불교의 교류'라는 주제로 대회를 개최하고 일본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재 실태파악을 협의했으나, 후속 조치는 여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회 이후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공동선언 실천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일불교협에는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의 대표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만큼 종단의 종책에도 반영돼야 한다.

한일과거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도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한-일 과거사 가운데 일본불교의 한국침략 교두보 역할에 대한 평가가 없는 한일 불교문화교류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위안부문제는 현재도 마무리되지 않은 '진행형 과거사'이다.

25~27일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주년 기념대회를 계기로 한일불교협은 새롭게 전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이제는 새로운 주제의 채택보다 과거 두 나라 불교계가 의견을 같이 했던 주제에 대해 실천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남북 종교교류 지원 종교화합등 역할 다해야

종무실 축소 됐지만

1 종무관, 1 과가 폐지되는 선에서 문화관광부 종무실 축소가 마무리됐다. 종무실은 이에 따라 불교와 민족종교, 기독교와 외래종교로 나눠맡던 종무관 업무를 1명이 담당한다. 종교연합단체 지원 등의 업무를 맡았던 종무총괄과 폐지가 확실시된다. 종무총괄과의 업무는 종무 1, 2과로 분산된다. 종무실 인원은 28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든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무실 축소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없는 개편"이라며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종교인구는 인구의 절반을 넘는다. 그만큼 종교단체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국가목표의 구현과 종교계는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정부와 종교계와의 불편한 관계는 곧 국민과의 불편한 관계"라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정부와 종교계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한 종무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종교간 화합, 반사회적 종교 발흥의 억제도 정부기관중에서는 종무실의 몫이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간의 심각한 갈등표출은 아직 없었으나, 앞으로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어느 때보다 빈번한 남북 종교교류의 지원도 당면과제다. 기구가 축소됐다고 해서 종무행정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성운 기자

목어

임진왜란의 피해는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 일본이 침략해 온다는 정보를 왜곡한 김성일에 의해 가중되었고, IMF 관리체제는 당시 여당의 인기와 선거 전략을 위해 원화의 가치를 방어한다는 무모한 전략으로 귀한 외화를 낭비하여 위기를 가중시켰다. 이순신장군을 괴롭힌 것은 왜군보다는 오히려 장군의 공을 시샘한 고관들이었고, 이때 왜군과 싸워 공을 세운 의병장들은 시기의 대상이 되어 숙청되거나 추방되었다. 또 이순신 장군에게 힘을 주기는커녕 그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 하여 오히려 역적으로 몰아 하옥시키고 왜군이 재차 침입하자 별 수 없이 백의종군하여 싸우게 했다.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은 물론 여야가 합심해서 대응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사태에 마땅히 책임져야 할 전직 대통령이나 현 야당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사건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발목을 잡은 채 지

무책임한 사람들

역감정을 부추기기도 한다. 말로는 국난이라 하면서도 임진란 당시의 무책임한 고관들과 다를 게 없는 행동이다.

독 속의 게를 한 마리만 넣어 두었을 때는 기어이 혼자의 힘으로 빠져 나오는데 두 마리를 넣어 놓으면 올라가는 놈의 발목을 붙잡기 때문에 결국엔 한 마리도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한다. 한국의 지형은 '독 속의 게'로 표현되곤 하는데, 아마도 한국인은 오랜 사대와 쇄국 속에서 독 속의 게와 같은 심사를 갖게 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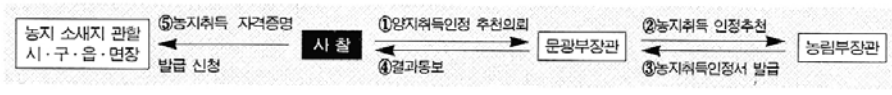
결국 원균, 김성일도 왜군과 싸우다 죽었다. 안타까운 것은 기왕 그럴 바에야 이순신을 비롯하여 여러 의병장과 힘을 합하여 싸웠어야 했는데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만 보다가 역사에 오명을 남긴 것이다.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공공연하게 지역감정을 선동하여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정치꾼들도 틀림없는 한국인이므로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것이고 스스로가 반민족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는 깨닫지 못한 것이다. 독 속에서는 '팔을 안으로 굽힌다'는 비생산적 사고가 판을 치는데, 우리는 독을 깨고 나와 큰 세계로 눈을 돌려야만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본지 논설위원)

개정 농지법 21일 시행

정재 보호 '청신호'

개인명의 등록 농지 사찰명의로 전환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취득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전통사찰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농지취득인정 사찰로 추천받아 해당 농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그림 참조〉

조계종총무원은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개인명의로 등록된 농지를 사찰명의로 전환하는 방침이다. 현재 주지 또는 연고자 명의로 등기된 농지는 증여와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비과세대상인 전통사찰에 농지를 증여함으로 세금부담은 없다.

농림부는 법제처 심의를 거쳐 21일 시험·연구·실습지 등의 용도로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에 전통사찰을 포함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 가능 지역은 당해 사찰이 있는 시·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이다.

이에 따라 불교재산 망실 방지를 위한 법적인 장치를 확보했다. 조계종의 경우 자치단체 또는 정부의 개발 계획 및 도로 개설 등에 따른 농지수용으로 대토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전통사찰의 농지 취득이 불가능해 주지 또는 연고자 명의로 농지를 등기했다. 이 면적이 2백64개 사찰 24만2천여평에 이르며, 주지 교체 등에 따라 망실의 우려가 있었다. 정성운 기자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 불자가 앞장섭니다.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 계 사
사부대중 일동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전 화 : 0595)883-1901
FAX : 0595)883-6084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 도 사
방장 노천 월하 대종사
부방장 초 우 대화상
전계사 현 산 대화상
주 지 월 파 대화상
총무국장 시 공
교무국장 명 현
재무국장 주 원
포교국장 도 언
호법국장 지 견
총림대중 일동
▶ 경남 양산군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전 화 : 0523)382-7182~7
FAX : 0523)382-7196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 양 사
방 장 서 옹
주 지 다 정
총림대중 일동
▶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전 화 : 0685)392-7502
팩 스 : 0685)392-2081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 광 사
방 장 범일 보성
주 지 현 지
총림대중 일동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번지
전화: 0661)755-0107
팩스: 0661)755-0408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 흥 사
주 지 보 선
부주지 몽 산
총 무 은 성
교 무 법 인
재 무 월 우
포 교 도 정
호 법 혜 일
▶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번지
전화: 0634)534-5502, 5503



◇제17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교정대상 자비상'을 수상한 고산스님(오른쪽)과 연광법사.

교정대상 자비상

원효종 고산스님·연광법사 수상

대한매일신보와 한국방송공사, 법무부가 1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17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청주여자교도소 종교위원 고산(63·사진 오른쪽) 청주 원효종 만성암 주지스님과 인천구치소 종교위원 연광(44) 조계종 법사가 교정대상 자비상을 나란히 수상했다.

고산스님은 90년부터 불교교리 강습 등을 통해 수용자 심성순화에 정성을 기울였다. 매년 부처님오신날 청주여자교도소 수계법회를 봉행해 현재까지 270여명에게 부처의 가르침을 전수했다. 93년부터는 불우수용자 226명과 자매결연을 맺은 뒤 각종 일상용품을 지원하는 등 안정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93년 1월부터는 '불교종파교회'를 주관해 지금까지 65회 6,780여명의 수용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설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연광 법사는 조계종 법사로 22년 동안 수용자들에게 자비정신을 전파하는데 힘썼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85년부터 출소자 28명에게 취업을 알선했다. 93년 9월에는 '자비의 전화 상담실'을 개설,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96년부터 피안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매월 120명의 무의탁 노인에게 무료 점심을, 지난해에는 'IMF 식당'을 차려 하루 30~40명에게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무료 이동목욕차량과 가정방문 무료 간병, 초·중·고 결식학생 점심배달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교차로

6월3일 운제스님 49재 봉행



혜초 법륜사 주지는 6월3일 오전 11시 서울 사간동 법륜사(732-2710)에서 운제당 이영무 대종사의 49재를 봉행한다.

은해사서 북한 불교사진전



법타(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공동대표) 은해사 주지는 14일부터 28일까지 은해사 보화루에서 '금강산과 북한불교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또 19일부터 6월5일까지 경주 불교엑스포 행사장내 주제관에서 '남북 서화 특별교류전'을 연다. (0563)335-3318

뇌종양 수술비 370만원 전달



보각 소쩍새마을 원장스님은 19일 뇌종양을 앓고 있는 이혁수(16)군이 입원해 있는 경희의료원을 방문하고 수술후원금 3백7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승가원은 혁수군을 돕기 위한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02)928-0750

광주에 영재학원 개원



혜당 광주불교문화대학원 교수 스님은 최근 광주 오치동에 '영재학원'을 개원했다. (062)262-8985

1만명에 무료 급식·진료



지도 대구 남구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은 16일 두류공원 잔디광장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1만명 초청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무료진료, 이발봉사 등을 실시했다.

육군 7사단에 위문품



총지화 총지종 통리원장은 18일 저녁 육군 7사단 5연대를 방문해 1백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군장병을 격려했다.

대천동 성당서 불교특강



목정배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은 23일 오전 경기 안성시 대천동성당에서 방상목 주임신부가 종교간의 이해와 대화합을 위해 마련한 불교특강에서 강의했다. 대천동성당은 봉축 현수막을 성당 현관위에 2주일간 내걸었다.

전국 국문학 학술대회 열어



임기중(동국대 문과대학장) 국어국문학회장은 29일 오전 9시 30분 연세대 제2인문관 강당에서 이틀간 '21세기와 국어국문학'을 주제로 제42회 전국 국어국문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02)2260-3027

3사 군승후보생 위문



이희용 군승단장은 6월2일 영천 삼사관학교에서 군사교육중인 군승후보생을 위문한다.

신문명 정책연구원 이전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27일 오후 5시 서울 용산역앞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층에서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전 개소식을 갖는다. (02)790-7001

성동구치소 재소자 위문

목화 불심정사 원장은 19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성동구치소에서 재소자 2천7백여명을 대상으로 대중공양과 위문공연을 실시했다.

한국 JTS 홍보이사에



전무송 연극배우는 최근 한국JTS 홍보이사에 선임돼 16일 연등축제 거리행사에서 JTS의 사업을 홍보하고 북한 어린이 돕기 모금활동을 벌였다.

봉축법어



대 산(삼론종 종정)

법비 중생 적시니 일체가 한마음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우리는 절망을 딛고 희망의 새 날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사슴 동산에 꽃피고, 봉황이 힘차게 창공을 날아 오르는 날, 온 산하가 기쁨에 용트림하는 이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두에게 기쁨과 행복과 희망을 나누어 줍시다. 너와 내가 따로 없고 동서가 따로 없으며 남과 북이 서로 달리하지 않는 그런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더불어 함께 할수 있는 밝은 사회 복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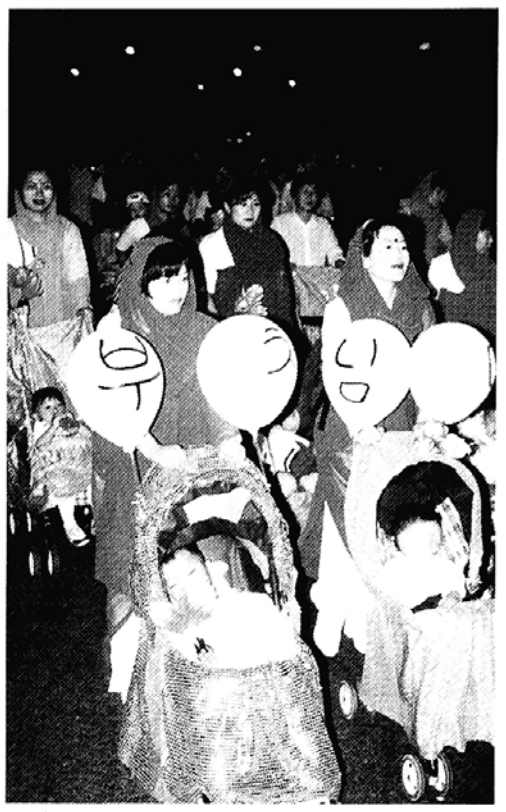
일 공(원융종 종정)

마음의 문열고 기쁨 행복 나누자

三界導師 釋迦尊(삼계도사 석가존)
爲指要路 說方便(위지요로 설방편)
良由法雨 霑群生(양유법우 점군생)
一切衆生 乘一心(일체중생 승일심)

삼계에서 인도하시는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꼭 가야할 길을 가르치기 위하여 방편을 베푸셨도다.

진실로 법의 비를 말미암아 여러 중생들을 적시우시니 일체중생 모두가 한마음을 탔노라.



제등행렬 나선 아기부처님들

Focus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열린 16일 저녁 대구 시가지. 제등행렬에 때아닌 유모차부대가 등장했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의 아기부처님들이 의젓하게 거리행진에 나선 것. 유모차 행렬은 어린 아기들까지 제등행렬에 참여할수 있으며 엄마들도 그만큼 힘이 덜 들고 이색 볼거리까지 제공해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사찰측에서는 "금마차에 실린 아기는 부처님을, 엄마는 시녀를 형상화했다"고 한다.

"오늘은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부처님오신날임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기들은 천진스럽기만 하다.

대구=이윤호 기자

김형중·정선진·이욱태 법사 홍법대상



◇김형중 법사



◇정선진 법사



◇이욱태 법사

불심홍법원(이사장 하도명화)은 제11회 홍법대상 수상자로 김형중(43·교법사) 정선진(46·군종법사) 이욱태(38·교법사) 법사를 선정했다.

김형중법사는 지난 84년 초·중·고 도덕 윤리 교과서에 나타난 불교왜곡 및 문제점 연구발표를 시작으로 종교편향을 시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청소년 포교를 위해 〈불교를 찾아가는 길〉〈청소년 불교성전〉 등의 저서를 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선진법사는 1977년 군종법사로 임관후 22년간 군포교활동에 진력, 9사단 호국백마사를 비롯 4개의 법당 건축과 여러 불사를 회향해 장병들의 신행터전을 마련했다. 이욱태법사는 해동중학교 교법사로서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부산지부 총무부장, 부산불교교육대학 교학처장 등을 역임하며 청소년교화 전문가로서 활동해 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금강산 슬라이드 강연



법당에서 보고 듣는 슬라이드 강연회는 불자들에겐 색다른 경험. 지난 15일 조계사가 주최한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이천봉' 주제의 슬라이드 강연회는 대웅전에 자리한 3백여 불자들을 사로잡았다. 강사로 초빙된 유홍준 교수(영남대)는 슬라이드를 통해 금강산 사찰과 유적을 소개하면서 구수한 입담으로 흥미를 이끌어냈다. 유교수는 금강산의 사계(四季)의 모습을 전하면서 불교유적들도 상세히 소개했다. 한명우 기자

재가연대·BBS에 서돈각박사, 성금

12일 정식으로 해산된 한국불교 재가회의 대표 서돈각박사는 20일 마포 진흥원 회의실에서 재가연대 박광서대표와 불교방송 성낙승사장에게 잔여재산 1천5백만원을 기탁했다.

서돈각 대표는 이날 전달식에서 "회원들의 뜻에 따라 재가회의 잔여재산 1천5백만원을 두 단체에 기탁하게 됐다"며 "이 돈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뜻있게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원우 기자

고 침 ※지난호(223) 4면 봉축메시지 대산스님의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경기포교사련 초대회장 김동균 법사

"군·경등 직능단체 포교 앞장"



"경기지역의 군 교도소 경찰 어린이 직장 직능별 포교사업의 확대는 물론 지역법회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19일 수원 북문노인회관에서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을 증명법사로 창립법회를 거행한 경기도포교사연합회 초대회장 김동균(45·수원지방법원 재판참여관)법사는 "바른 신행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참불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서원했다.

지난 3월22일 단위 포교사회로서는 처음으로 창립발기회를 가진데 이어 7일 수원시약사불자회의 창립을 후원한 김법사는 수원법조인불자회, 경기도교사불자회, 경기신행단체연합회 결성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김법사는 또 지역내 관광사찰의 내·외국인 관광객 안내 포교사를 배치하고 불교대강연회와 지역순회 법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사업계획도 밝혔다.

71년 당대의 선지식이었던 용화사 전강스님으로부터 조사선을 지도받고 원중(元中)이란 법명을 받은 김법사는 삼화불교대학 및 신흥사불교대학 교수, 수원교도소·구치소 초청법사, 수원법조인불자회 공동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왕성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마음처럼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오고산

부회장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홍인곡	부회장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전운덕
부회장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김성초	부회장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이홍파
부회장	대한불교	조계종	호계원장	김월서	이 사	대한불교	일승종	총무원장	김혜정
이 사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주운경	이 사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정경식
이 사	대한불교	원융종	종 정	배일공	이 사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총지화
이 사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송무진	이 사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전남정
이 사	대한불교	진언종	종리원장	손금광	이 사	대한불교	용화종	총무원장	이법덕
이 사	대한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이효성	이 사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이대화
이 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유청송	이 사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한학봉
이 사	보국불교	염불종	총무원장	이청봉	이 사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윤일오
이 사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이혜공	이 사	대한불교	열반종	총무원장	김해곡
이 사	대한불교	미타종	총무원장직대	권성우	이 사	대한불교	여래종	총무원장서리	신혜안
이 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부장	여원택	이 사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부장	오성조
이 사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부장	이지성	이 사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부장	김국성
이 사	대한불교	진각종	총무부장	김회정	감 사	한국불교	태고종	교무부장	편백운
감 사	대한불교	진각종	재무부장	손수성	사무처장				윤자월

■ 사무국: 우110-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B/D 2층
TEL : 02)732-4885/ FAX : 02)737-7872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 불자가 앞장섭니다.

국회정각회

회 장 서석재
부회장 하순봉
박상규
구천서

회원일동 합장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6호
TEL : 02)784-3280

탐방 대우자동차법우회



◇부산 대구자동차법우회는 지난해 영천 충효사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좋은제품 생산이 곧 수행"

79년 창립…회원 90여명
매달 사찰순례…이웃 돕기도

생산의 일선에서 자신의 정성을 다해 제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생활불교의 출발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

11년전 7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된 부산 대우자동차 법우회(회장 권영발)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부처님 제자로서 손색없는 직장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신행단체다. 작업이 시작되면 바로 옆 말소리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작업환경 속에서 대우자동차 법우회 회원들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공부를 수행으로 삼고 있다.

어느덧 10주년을 넘겨버린 대우자동차 법우회는 해마다 창립의 기분으로 새로운 회원들에게 불법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다. 창립이후 한달에 한번 사찰순례법회를 통해 부산 경남 일원의 사찰은 빠짐없이 다녀왔을 정도다. 이제는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석을 위해 분기별 법회로 바꾸어 진행하고 있는데 회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사찰순례 법회는 90여명에 달하는 기존회원들의 신행을 겸하면서 신입회원들이 사찰에 친근감을 갖게 하고 주지스님 법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자가 되게 한다.

대우자동차 법우회는 16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선승 경봉선사가 주석했던 통도사 극락암을 다녀오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중이다. 그동안 소극적으로 진행해 오던 사업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재정적 기반 확립, 불우이웃돕기, 사찰법회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권영발 회장은 "내세울 만한 대외적인 활동은 없지만 회원 한사람 한사람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을 생산이나 일상으로 이어가는 것이 더 큰 사회기여"라고 강조한다. 또 "경제회복의 주역으로 제 몫을 다하는 대우자동차 법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심·친목 다진 '佛音잔치'

대구 찬불가 경연…학생·직장불자등 24팀 참가

"…임에게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픈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10여 명의 우바이로 구성된 원만사 불자회팀이 '육바라밀'를 부르자 인기그룹 HOT나 젝스키스 콘서트장에서나 들어봄직한 환호성이 대구 대덕문화의 전당을 가득 메웠다. 대구광역시 신도회가 20일 개최한 찬불가 경연대회장이다.

올해로 6회째 열린 이번 찬불가경연대회에는 각 사찰 신도회를 비롯 직장불자회팀, 초중등부팀 등 대구시 직장직능단체와 신행회, 사찰 신도회 24개 팀이 참가해 노래실력을 겨루며 서로 친목과 결속을 다졌다.

6년 전 가족찬불가 대회로 출발했다가 지난해부터 찬불가경연대회로 문호가 대폭 개방되면서 사찰 신도들뿐만 아니라 직장직능불자들의 친목과 불심을 다지는 장이 되고 있다. 또 의식용 찬불가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대중가요처럼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찬불가가 다수 소개돼 직장·직능단체들이 찬불가를 배우는 장으로도 자리매김되고 있다.

이날 경연대회에서는 천태종 대성사신도회 이연숙씨가 '거룩한 손'을 불러 대상을 차지했다. 입상자 전원은 1년간 대구불교방송에 음성포교사로 출연하고 각종 불교행사에 초청되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대구신도회 박진수 사무국장은 "찬불가 경연대회가 해를 거듭해 오면서 신행단체나 직장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주는 매개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정기법회를 알차게 이끌어주는 견인차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대구신도회 찬불가경연대회는 사찰 신도회뿐만 아니라 직장불자회의 불심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무사고 발원 차량용 목탁 보시

혜은정사 · 연예인불자협 · 불자가수회 등 참가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자비의 목탁 달아주기 20주년 기념행사가 1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청기와 예식장 앞에서 개최됐다.

혜은정사(주지 혜은)와 연예인 불자협회, 불자가수회, BBS 교통통신원 불자회가 함께 한 이날 행사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과 양보운전, 명랑한 거리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로 3천개의 목탁과 경전테이프 3천개를 배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혜은스님과 가수 김흥국씨, BBS 불자 교통통신원, 혜은정사 신도 등 60여명이 참가했다.

김흥국씨는 "교통사고는 한 개인을 망치고 나아가 가족에게까지 커다란 아픔을 안겨줄 수 있다"며 "자비의 목탁을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운전자들의 마음이 보다 여유로워지고 향기로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시철도법우회 창립

서울지하철 5,6,7,8호선을 관장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가 8일 창립됐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법우회는 서울지하철공사로부터 분리돼 나오면서 도봉사업소 이정완 소장을 비롯한 70여 명의 불자들이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와는 별개로 불자회를 조직해 출범하게 됐다.

법우회는 지하철 구간에 부처님오신날 연등 점등을 비롯 불법전파와 사회봉사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산스님, 영등포교도소 위문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9일 영등포교도소를 방문해 봉축법회를 봉행하고 재소자 교화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방송용 모니터 설치를 위해 8백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 영등포교도소 방문에는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과 관음회원, 합창단, 불자가수 송춘희 남강수 김무한씨 등이 함께 했다.



수안스님 에세이 '참좋다…' 출판회

수안스님(통도사 축서암) 그림 에세이 〈참좋다 정말 좋구나(늘푸른소나무 刊)〉 출판기념회가 19일 출판문화회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개그맨 전유성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영수 출판평론가를 비롯 이양희 자민련 부대변인, 한인현 서양화가, 주명덕 사진작가 등 사부대중 8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사암련 5·18 영령 천도재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천운)는 16일 망월동 5·18 신묘역에서 5·18 민주영령 천도재를 개최했다.

광주불교사암련 회장 천운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야만 민주와 정의를 외치다 가신 민주영령들을 위로 할 수 있다"고 법문했다. 이날 천도재에는 현지(송광사 주지) 성호(관음암주지) 벽상(천룡사주지) 혜광(용화정사 주지)스님과 광주광역시 고재유시장, 5·18유족회 정수만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장군 불교연합회 장학금 전달식

기장군 불교연합회(회장 정암)는 15일 기장군청 대강당에서 기장군민 화합과 발전을 위한 봉축대법회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정암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모두 마음의 등불을 밝혀 무명과 번뇌를 소멸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기장군 불교연합회 회장 정암스님, 최현등 기장군수를 비롯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청불회장 박종열 비서관



청와대불자회는 12일 집행부회의를 열고 신임회장에 박종열 민정비서관〈사진〉을 추대했다.

신임 박종열 회장은 올해 55세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검 형사 제2 부장과 서울지검 제1 차장검사를 거쳐 지난 4월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됐으며 독실한 불자이다.

중앙병원 법당 창립 9돌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불교법당(지도법사 지홍) 창립 9주년 및 봉축 기념법회가 18일 중앙병원 동관 6층 대강당에서 사부대중 6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중앙병원 법우회장 김영태교수의 봉축사와 불광사 주지 지암스님의 법어, 합창단의 찬탄곡, 이란씨의 쾌유 신행수기 발표, 심진스님의 환우를 위한 쾌유의 노래공연, 지홍스님의 인사말씀, 관불의식 등으로 진행된다.

보현가족 군합동 법요식

고양시 재가불자 봉사모임 보현가족(회장 이일심명)은 22일 부처님오신날 제9보병사단 수색대대에서 한연수 지도법사의 집전으로 군장병 합동법요식을 가졌다.

올해로 3회째 마련한 이날 봉축법요식에는 인근 30연대 장병들도 동참하는 등 위문법회를 겸해 봉행됐다.

우리 모임에선

우리는선우 자비등 점등

우리는 선우(이사장 박광서)는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8일 서울 장충공원에서 제8회 자비의 등 점등법회를 가졌다.

체육공단 무량회 봉축식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회장 이완배)는 20일 올림픽회관 1층 법회장에서 봉축법회를 가졌다.

법회에서 인환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은 '나의 초발심 수행'이라는 주제의 법어를 통해 "부처님법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일상생활에서 내가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량회는 법회 후 올림픽회관-곰말달리-수변무대 산책로-야외미술관-광화의광장-올림픽회관을 코스로 제등행렬을 가졌다.

금융단불교련 합동법회



전국금융단불교연합회(회장 김윤하)는 19일 한국산업은행 32층 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스님은 법어를 통해 "올바른 마음가짐과 상대를 존중할 줄 아는 불자로 거듭나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농협중앙회 한빛은행 금융감독원 불교회 등 금융단불자 1백50여 명이 참석했다.

포천불청 봉축행사

포천군 불교청년회(회장 이규호)는 15일 포천군민회관에서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연등축제행사를 가졌다. 군악대와 연합합창단의 공연으로 막을 연 이날 연등축제는 육법공양, 개회식에 이어 봉축 법요식과 포천읍 시가지 연등행진으로 진행됐다.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마음처럼…
토목공사 전문업체
(주)성보건업
대표이사 권 영 복
■ 대구시 북구 고성2가 33-1 일흥빌딩 305호
TEL : 053)352-8811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 불자가 앞장섭니다.
4대째 이어온 1백년 전통의 가업
국내 최초 문화재관리국 등록업체
12년간의 연구를 통해 세계최초의 황금기와 발명
동 광 기 와
대 표 오 세 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면 동상리 1209번지
TEL : 052)238-3433

중생의 고통·번뇌 벗어나게

이렇게 들었다 — 부처님 오신뜻

밀레니엄버그, 유고공습, 각종 비리사건, 수많은 컴퓨터바이러스, 엘니뇨와 자연재해….

2천년을 앞두고 서로 다른 이름과 모양의 혼란과 혼돈이 세계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2천5백여년전 부처님은 혼란과 혼돈의 사바세계인 우리들 곁으로 찾아오셨다. 지혜와 생명의 가르침을 한아름 안고 말이다. 22일은 부처님 오신날이다. 모든 불자들은 교조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겨, 혼란과 혼돈의 사바세계를 청정한 정토의 세계로 일구어 가자. 그래서 밀레니엄버그, 유고 전쟁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밀레니엄버그와 수많은 번뇌와의 전쟁을 종식시키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 오신 큰 뜻을 다시한번 되새겨 본다. 〈편집자 주〉

▨"만약 내가 중생의 여러 악한 마음을 깨뜨려 줄 수만 있다면, 내가 아비지옥(阿鼻地獄)에 늘 있으면서 무량겁(無量劫)에 걸쳐, 중생때문에 큰 고뇌(苦惱)를 받게 된다 해도 고통으로 알지는 않으리라." 〈열반경〉

▨원컨대 중생으로 하여금 늘 편안하고 즐거워 갖가지 병고(病苦)가 없게 되기를. 악한 짓을 행하고자 하면 그 모두가 이루어지지 않고, 닦는 바 선업(善業)은 다 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모든 악취(惡趣)의 문을 닫아 걸고 인천(人天) 열반(涅槃)으로 이를 바른 길을 가르쳐 주게 되기를. 만약 중생들이 여러 악업을 쌓은 탓으로 온갖 극중(極重)한 고통을 당할 때에는, 내가 다 대신 받아 즘으로써, 그들이 해탈을 모두 얻어 지상(至上)의 깨달음을 완전히 성취하게 되기를. 〈화엄경〉

▨나의 법은 현재에서 모든 번뇌를 떠나며, 시절을 기다리지 않고 통달하여 밝게 보며, 자기를 인연하여 스스로 깨달아 아는 것이요. 나는 언제나 중생의 벗이 되어 중생을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고, 늙음, 병, 죽음과 근심, 걱정, 슬픔의 번뇌를 떠나 시절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에서 그 고뇌를 벗어나게 하며 보고 통달하여 스스로 깨달아 증득하게 하오. 〈잡아함경〉

▨"나는 모든 것을 이긴 자요, 일체를 아는 사람.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굴레에서 벗어났노라. 스스로 욕망을 파괴하여 자유를 얻었고 위없는 지혜를 성취하였거늘 누구를 스승으로 삼으랴. 나에게는 스승이 없고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 견줄 자 없도다. 나는 이 세상의 성자요, 가장 높은 스승이며, 진리를 깨달은 부처이니라. 모든 감정으로부터 고요함을 얻었고, 홀로 열반을 증득하였다. 이제 진리의 왕국을 세우고자 베나레스의 카시로 가노니 어둠의 세계속에서 불사(不死)의 북을 울리리라." 〈사분율〉

▨부처에게는 번뇌의 악함과 번뇌를 끊음의 청정함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다. 중생들의 개성이 다르고 능력이 다름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다. 중생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중생들의 갖가지 세계상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다. 진리의 궁극적인 경계를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다. 한 생에서 수백 생에 이르기까지의 지나간 세월의 일들을 사실대로 아는 지혜가 있다. 천안(天眼)을 얻어 미래세의 세계를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다. 모든 번뇌를 끊어 마음이 해탈하고 현세에서 스스로 자신이 증득(證得)한 줄 알아서 다시 윤회(輪廻)하지 않음을 바르게 아는 지혜가 있다. 〈증일아함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받들어 공양해야 할 사람이 셋이 있다. 부처인 나와 나의 제자와 전륜성왕이니라. 왜 부처에게 공양해야 하는가? 부처는 항복하지 않는 사람을 항복케 하고, 제도되지 못한 이를 제도하며, 해탈하지 못한 이를 해탈케 하며, 열반하지 않은 이를 열반케 하고, 보호할 이 없는 이를 보호하고, 장님에게 눈이 되어 주고, 병든 사람을 능히 구원하기 때문이다. 부처는 악마나 천신보다 뛰어났으니 가장 훌륭한 복전이요, 공경할 만하고 귀하게 여길만 하니라.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친다." 〈증일아함경〉

열린마당

동국대 불문연 봉축학술회의
2000년대를 여는 한국불교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목정배)은 개교기념일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2000년대를 여는 한국불교'를 주제로 13일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한국불교의 교단 수행 복지 포교 네 분야의 회고와 전망을 통해 2000년대 한국불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각 발표문을 요약 게재한다. 〈편집자 주〉

승가제도 개선 청정승단 확립

교단연구 **암도**〈前 조계종 교육원장〉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은 종헌상 종단 자체가 승려와 신도의 사부대중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종회나 연합회는 없다. 조계종은 종단이라기 보다는 승단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현실적인 조계종단의 당면과제는 첫째 승가의 생활제도를 개선하여 여법한 승단을 만들고 둘째는 승려들의 의식을 개혁하여 청정승가를 재창출해내는 것에 있다. 종정의 임기를 종신제로 하고 동진출가자로서 경율론 삼장에 밝은 대종사를 추대하여 행정에 절대적으로 관여치 않아야 종단의 상징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총무원장은 문중파벌을 떠나서 공심있는 종사급으로 중앙종회와 본사주지회가 합동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본사주지는 교단 내의 장로와 중진들이 모여서 뽑도록 하면 오늘날과 같은 폐단이 없을 것이다.

미래의 세계는 누구나 다 미지의 세계라고 한다. 이 미지의 2000년대를 맞이하는 한국불교의 모든 승려들은 대참회를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대동단결해야 한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지성인들은 동북아시아의 정신문화로 이목을 돌리고 있다. 정신세계의 폐허로 그 활로를 찾기 위하여 선불교에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다. 여기에 한국불교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참사람(불보살)을 제시해야 한다.

포교저변 확대와 신앙의 실천

포교 **성타**〈불국사 주지〉



포교 방향의 첫째는 교학의 발전이 바로 포교의 밑거름임을 믿는 일이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변화된 환경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상을 현대사회에 맞게 풀어 알기 쉬운 언어로 널리 펼쳐야 한다. 둘째 사회의 지도층에 대한 포교를 강화해야 한다. 불교가 새로운 세기에도 우리민족과 사상을 주도하는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정수행과 승풍진작 신도의 교육과 조직화 불교문화를 포함한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각종 사회활동을 통한 기여도의 증대가 필요하다. 셋째 포교 저변의 확대와 신앙의 실천이 필요하다. 교육기관·복지기관의 확대, 의료기관의 설치 등 간접포교활동을 통한 포교 저변의 확대는 잠재적 불자를 실질적 불자로 전환시키고, 기존의 불자를 신앙의 실천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불교의 사회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유아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포교는 불교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아동심리 청소년 지도 등 관련 분야의 연구와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 세계화에 발맞추어야 한다. 포교활동 역시 열려진 정보화 사회를 십분활용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복지인력 양성등 전문성 강화

불교복지 **혜도**〈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장〉



불교복지는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의 예를 든다면 단순히 장애가 있는 사람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치료와 직업재활 사회복귀 등이 체계적으로 이행되어야 서비스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불교복지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히 요청된다. 불교복지는 일반사회복지의 방법과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불교복지 활동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인력과 그들을 양성해낼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불교복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설치와 이용의 활성화도 요구된다. 관련기관의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복지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활용이 가능한 충분한 정보가 축적돼야 한다. 그리고 종단과 각급 사찰에서 더욱 활발한 사회복지활동과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 각 단위사찰에서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종단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 전환이다. 불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불교 복지기관의 활동을 원조할 수 있는 후원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구복신앙 탈피 보살행 펼쳐야

수 행 **권탄준**〈불교문화硏 전임연구원〉



불교인이 많다고는 하나 합리적인 교리에 호감을 가지거나 단순히 정감을 가지는 정도의 신자가 많고 수행을 한다고 해도 정법대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로인해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사회적인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행이란 본질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불성이 그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깨달음의 세계는 언제나 보살의 수행에 의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참생명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부처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다.

보살행은 주변환경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이기적인 개인주의에 물들어 맹목적으로 탐욕을 부리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아를 확립하여 자기 자신을 참되게 지키고 실현해 나아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수행법이다. 보살행은 현재의 불교 수행에서 구복신앙·신비체험·소승적 차원의 수행을 탈피하여 현실 세계 속에서 인간이 처한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바로 깨달음을 실현하여 자비를 실천하는 부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수행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행법은 고학력 시대에 각종 사회교육과 다양한 정보매체를 통해 수준 높은 지식을 갖춘 합리적인 현대인에게 종교를 초월하여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목탁소리

버려진 연등

이 은 자 〈취재1부 기자〉

16일 저녁 동대문에서 조계사에 이르는 서울 도심거리는 장엄한 연등불로 환히 밝혀졌다. 지나던 할아버지도 관광나온 외국인도 각양각생의 아름다운 연등과 그 연등만큼이나 아름다운 불자들의 모습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행렬을 따라 걷기까지 했다.

제등행진에 이어 밤 10시가 넘도록 우정국로에서 펼쳐진 연등축제 한마당의 열기는 남녀노소, 승과 속이 하나된 화엄의 세계 그 자체였다.

그러나 행사가 끝난 후 거리 여기저기에는 찌그러지고 부서져 내던져진 연등이 발견되었다. 흥칙하게 버려진 연등은 바로 우리 불자들의 잘못된 신행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같아 보는 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18일 불자 안미선씨(불교자원봉사연합회 환경팀)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계사와 안국동 일대에 구기고 짓밟혀 버려진 연등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토로한 안씨는 "불과 몇시간 전만 해도 부처님처럼 소중히 여긴 연등을 제등행진이 끝났다고 쓰레기통에 내팽개치는 일부 몰지각한 불자들이나, 그 광경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불자들 모두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매년 제등행렬후에 수없이 버려진 많은 연등을 접한다. 하지만 왜 그 연등이 버려져야 하는지,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거리 곳곳을 돌며 버려진 연등과 쓰레기를 말끔히 치워놓기 때문이다. 내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연등축제는 더이상 불자들만의 행사가 아니다. 서울 시민이 동참하고, 외국인이 관심을 갖는 서울시 문화축제로 확대됐다. 연등축제가 진정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자들부터 문화시민으로서의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ejlee@buddhapia.com)

범우사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21-1 전화 : 717-2121 팩스 : 717-0429 인터넷 http://www.bumwoosa.co.kr 범우문고② 값 2,000원

혼탁한 마음의 실타래를 풀어주는 정화수 같은 책

無所有

무소유



다시, 그 청청한 울림
일상에 가려져 있는 명징한 삶의 진리가
한 구도자의 목소리로
산사의 풍경소리처럼 찾아온다



법정(法頂)스님 / 강원도 산골, 화전민이 살던 주인 없는 오두막을 빌려 홀로 밭갈을 구하고 밥을 일구며, 청빈의 도와 맑고 향기로운 삶을 실천하고 계신 스님은 30년이 넘는 침묵과 무소유의 철저함으로 이 시대의 가장 순수한 정신으로 손꼽히고 있다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마음처럼 …

(주) 임창공영

대 표 임 창 규

임직원 일동

■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52-27
TEL : 02)646-9184

"중생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경전 속의 禪 사상 20

유식학 근본경전…지관 수행법 제시

發 보리심후 부처님 교설에 의지해야

해심밀경 (상)

글쓴이



묘 주

〈동국대, 강사〉

〈해심밀경(解深密經)〉은 유식학의 근본 경전이다. 유식학은 요가 수행자가 지관(止觀)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각한 유식(唯識)의 이치, 즉 '외부세계는 마음을 떠나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표상식(表象識)으로 존재한다'는 체험을 바탕으로 이론화 되었으며, 유식경론에는 지관의 수행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해진다. 유식학의 근본취지는 중생의 마음에서 붓다의 마음으로의 전환, 즉 중생의 무명업식(無明業識)을 붓다의 반야 부분별지혜로 전환시키는데 있다.

〈해심밀경〉은 8품의 내용이 이론문·실천문·증과의 논리정연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전의 선사상은 제6 분별유가품에서 지관 수행법으로 상세하게 설해진다. 분별유가란 지혜로써 요가 수행, 즉 지관 수행법을 관별 해설한다는 뜻이다. 불교에서 요가는 모든 교리·수행·증과에 상응해서 어긋남이 없는 실천행을 말한다. 감각기관을 제어하고 정신통일의 상태에서 정견(正見)을 통한 해탈을 얻고자 한다. 지(止)·관(觀)은 삼학(三學)중의 정(定)·혜(慧)에 해당되는 용어이다.

이 품에서 석존은 "다투고 떠도는 여러 회론의 집착을/마땅히 버리고 높은 정진을 일으키라/모든 하늘과 세간을 제도하기 위해서/이 요가 수행을 그대들은 마땅히 배우라"고 말씀한다. 원만 청정하고 숭묘한 지관 수행에 관하여 18가지 부문에 걸쳐서 관찰대상(境)·수행(行)·증과(果)의 체계로 설명했다. 이것을 지관수행의 전제조건, 지(止)와 관(觀)을 함께 닦아야 함, 관조의 대상인 영상의 문제, 지관 수행의 장애와 극복하는 방법, 지관 수행의 광대한 위덕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지관 수행의 전제조건

지관을 수행하려는 이에게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수행과정에서 내내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에 안주해야 하는가 이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대승불교에서 지관을 수행하는 목적은 외도들의 5가지 신통 경계나 성문·연각이 구하는 아라한·벽지불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관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지처와 머물곳으로써 2가지를 명시한다. 첫째는 연기·무아·중도의 근본명제 위에 시설된 세존의 교설이다. 교설을 이 경전에서는 법을 가정적으로 안립한 것(法假安立)이라고 부른다. 그 진여의 경지는 말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지만(言語道斷), 중생교화를 위해서 방편상 가정적으로 교설을 안립하므로 그렇게 부른다.

둘째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 즉 최상의 바르고 평등하며 보편적인 깨달음을 얻고자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려는 대장부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래야만 붓다의 큰 지혜와 대열반의 경지를 얻어서 궁극적으로 열반에 안주하지 않고 생사의 세계를 저버리지 않고 화신으로 나투어 중생 교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보리심이야말로 지관의 수행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고, 그 실천에는 부처님의 자내증을 말씀하신 갖가지 교설이 지침이 된다. 석존께서 "교법으로 안립한 요기 안에서/만약 방일하면 큰 이로움을 잃게 되고/이 교법과 요가 수행에 의지해서/바르게 수행한다면 큰 깨달음을 얻느니라"고 말씀한다.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함께 닦아야 함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은 〈아함경〉 이래 불교 수행의 근본 방향이다. 〈해심밀경〉에서도 역시 사마타(定)와 위빠사나(慧)를 동시에 닦아야 함이 강조된다.

여기서 지(止)·관(觀)의 개념을 살펴보자. 지(止)의 원어인 사마타는 '고요' '평온'의 의미이다. 정신을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함으로써 정신통일의 상태에서 신체와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진 경지이다. 사마타 수행에 의해 8가지 선정(색계 4, 무색계 4)을 이루고 5가지 신통을 성취할 수 있다(누진통은 위빠사나에 의해 비로소 가능하다). 삼마지·정(定)으로 바꾸어 사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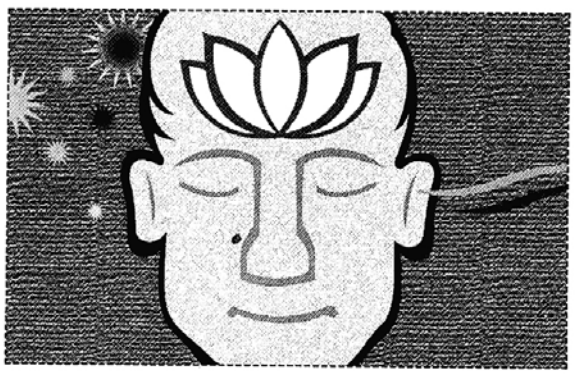
관(觀)의 원어인 위빠사나는 '꿰뚫어 봄' '통찰' '관찰'의 의미이다. 사마타에 의해 심신의 편안함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몸과 마음의 현상으로부터 진리를 관찰한다. 사마타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함에 비하여, 위빠사나는 대상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진리를 통찰한다.

과 학 산 책

마음과 질병

독신자 발암확률 높아
외로움등 내적경험 발병원인

마음 잘 다스리면 건강 유지



우리들은 일상적인 삶이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하다는 이유로 주의 깊게 보려하지 않고 무언가 신기한 것을 좇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경험이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의학 특히 아유르베타(AyurVeda, 인도 전통 의학)를 현대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는 디팍 초프라(Deepak Chopra)는 1939년 발간된 양자치료(Quantum Healing)에서 전통적인 서양의학도 일상적 경험이 질병 발생의 복잡한 역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쓰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다양한 사례와 과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우리들의 몸과 질병에 대해 전통적인 동양의학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신자와 혼자 사는 과부들이 결혼한 사람보다 암에 걸리기가 쉽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졌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느끼는 외로움이 암 발생 위험요소인 것이다. 외로움을 '발암물질'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외로움을 치료하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 아닌가?

코넬 대학의 생체학 교수인 에릭 카셀(Eric Cassell)은 일반적으로 서양 의사들은 환자를 진단할 때 환자가 말하는 증상이 어떤 알려진 질병에 해당하는 가를 발견하려 한다고 증언했다. 이와는 달리, 전통적인 동양의술에서는 환자의 질병 보다는 환자 자체에 관심을 더 가진다. 즉,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물리적 요소보다는 각자의 경험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은 사람의 몸은 분자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것이다. 그 말도 맞지만 앞의 경우에서 처럼 분자 만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것이 많다.

동양의학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내면에 순간 순간의 경험이 쌓이고 이것이 자라 표면 위로 들어난 것이 병이라는 것이다. 결국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얼마나 쌓였는가를 보거나 쌓이는 것을 막는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꽉 막힌 도로에서 자동차에 앉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주변의 세계를 의식하지 못한 채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내 몸은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모든 것을 소화하여 나에게 보낸다.

우리가 산에 묻혀 산다고 해도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입력이 들어온다. 이 입력은 일정하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입력이 어떤 모습을 띨 것인가는 내가 이 입력에 어떻게 관여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과학은 이 과정을 측정할 수 없다. 왜냐면 감각이나 감정을 눈금으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살아가는 동안은 나를 나로 만드는 사건들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외부로부터 계속 들어오는 입력의 궁극적인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다행히도 나와 떨어질 수 없는 나의 본성인 것이다. 내 본성은 내가 보고 듣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 있으면서 나를 형성하는 근본이다. 이 근본 자리로 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수행이 아니겠는가?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①

무지에서 공까지 (상)

불교에서는 '공(空)'이니 '무아(無我)'니 하는 말들을 쓰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 퍽 생소하게 들리는 말이다. 정말 부처님이 그처럼 강조하셨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 그 문제를 입에 올려 볼 엄두라도 낼 수 있었겠는가?

처음엔 관념적 이해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또 제 생각대로 노력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공'과 '무아'를 체험하려면 먼저 자아부터 충실히 알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만일 이 자아가 무엇인지, 즉 '나'라고 불리는 이 자아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모르고선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내던지려면 먼저 그것을 손으로 단단히 붙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늘 자아를 재확인하고자 애쓰고 있다. 이것만 봐도 이 자아란 것이 근거 박약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풍설만 무성한 그런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재확인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정말이지 왜 우리는 항상 그 '자아'가 위협받을까 봐, 위태로워질까 봐, 존립의 근거가 무너질까 봐 그처럼 전전긍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

보통 우리는 자신을 그 무엇과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자아'를 확인하려 든다. 우선 이름, 나이, 성별, 기능, 직업 따위 신원을 자아

'나' 집착이 苦의 근원

명성·직업등 자아와 동일시 금물
많이 놓을수록 진리 보기 쉬워져

와 동일시한다. 명예와 불명예 역시 마찬가지다. 득과 실도 그렇다. 무엇이든 손에 들어오는 것이 늘어나면 자아의식도 그 만큼 커지는 것처럼 보인다. 잃으면 그만큼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는 늘 쫓기는 신세를 면치 못한 채 만성적인 '집착'에서 시달리게 된다.

무엇이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존립의 문제로써 필요불가결하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가 살아 남을 수 있다고, 이런 저런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면 곧 미궁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 같은 기분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다.

집착, 즉 매임은 고(苦)를 일으키는 장본이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고통에서 철저하게 완전히 벗어나고자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집착을 놓아버려야 한다. 정신수행의 도정은 무엇을 성취하여 손에 넣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놓아주는 과정이다. 많이 놓아줄수록 많이 비우게 되고 그래서 진실을 볼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지는 것이다.

놓아주면 풀려난 그것은 바로 사라져버린다. 따라서 놓아주면서 행위 할 때 우리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위만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자신이 하는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고 있는 한, 우리는 포위 당한 처지이며 묶여 있는 신세, 바로 고(苦) 자체일 것이다.

〈번역=오종욱 기자〉

마하부와 나나삼판노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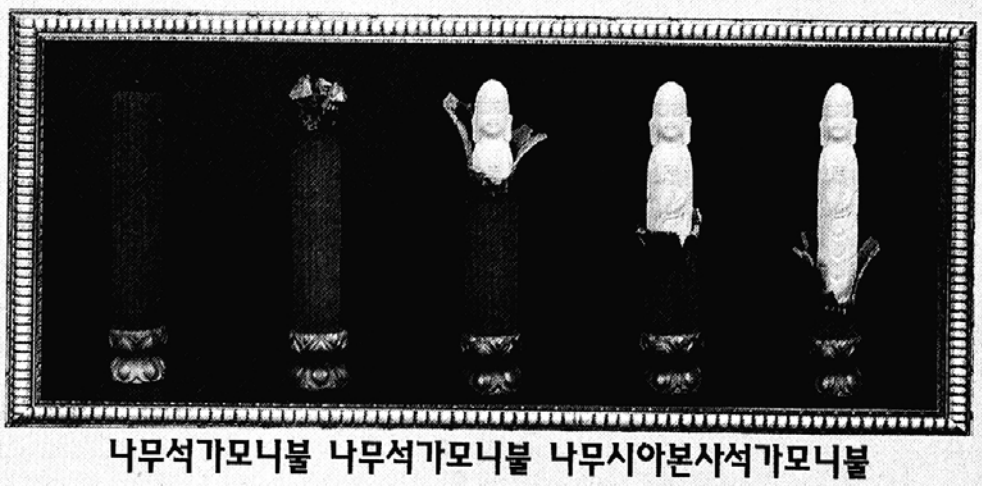
마하 부와 나나삼판노(Maha Boowa Nanasampanno) 스님은 태국북부 우도톤(Udron) 지방의 파 반 타드(Wat P Baan Taad) 사원의 원장이다. 명상 수련을 시작하기 전에 여래 해 동안 아잔 문으로부터 불교교리를 공부하고 빨교경전의 원어인 팔리어를 공부했다.

파 반 타드 사원은 우도톤 지방에 약 100에이커 되는 땅에 세워진 사원으로, 태국에서 가장 엄격히 수행처으로 꼽힌다. 이 곳에서 마하 부와 나나삼판노스님은 지혜 수련의 전주자로서 강하고 지속적인 선정 계발을 강조해 왔다. 스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중생이 우주라지만(Things as They are)〉에서는 가슴(heart)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여기에서 '가슴'이란 특정한 감정적 성질을 의미하기보다는 마음(mind) 그 자체를 뜻한다. 가슴을 마음이 머무는 장소로 간주하는 것은 빨교의 전통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스님의 제자이며 남방불교학의 석학 사니사로(Thanissaro) 스님이 1988년 태국에서 첫 영역·출간한 이래 94년과 96년 각각 재출간됐다.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현상공덕향은 외형이 원추형으로 금석의 연꽃문양 좌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 후 약 20여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색 향이 연꽃형상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타고난 다음에 향 연기는 소멸되고 법상은 깨끗한 재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 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외형과 겉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어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재일 및 법회와 방생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발명특허출원 : 48510
의장등록출원 : 19350
상표등록출원 : 28434

"간절한 기도와 함께 소원성취 하십시오"



지장보살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제조원 : 金城通商

Tel : 051) 324-3731 Fax : 051) 324-3733

권 수익금 일부는 불교 발전기금으로 기탁됩니다. 권

• 구입처 : 서울/현대불교신문영업부 02)732-1522,동영02)308-6600~1 / 인천:무성 032)575-6057 / 대구:불교대구방송사업팀 053)427-5114 / 부산:동진기획 051)555-1087,대성불교사 051)332-0289 /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마음처럼 …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한국불교태고종
광주 · 전남종무원

원 장 동 환
부 원 장 무 봉
종회의장 법 천
종회부의장 동 표
사정위원장 지 산
총 무 시 각
교 무 월 인
재 무 호 산

종무원 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산99-7
TEL : 062)375-1820
FAX : 062)375-1820

군산불교대학

학 장 박순호 부학장 김성구
교무처장 김순조 학생처장 김영길
관리과장 조동제

◆강의시간: - 법사과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불교과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학 인 일 동

■ 전북 군산시 경암동 644-8
TEL : 0654)445-4562,443-1080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주 지 지 장

신 도 일 동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2
TEL : 0653)854-1578,855-0698

이리 불교대학

학 장 지 장

학 인 일 동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2
TEL : 0653)854-1578,855-0698

이리불교대학
가릉빈가합창단

회 장 김순애

합창단원 일동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2
TEL : 0653)854-1578,855-0698

대한불교 원효종
연 화 사

주 지 상 원
창건주 표 만심행

신 도 일 동

●법회안내:매월 7일(음)오전 10시
매월 18일(음)지장재일법회 오전10시

■ 전남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409-1
TEL : 0654)381-3564

대한불교 조계종
선원사

선원사부설 연꽃유치원
문서포교원 깨달음
전통다원 타성일편

신 도 일 동

■ 전북 남원시 도통동 392-1
TEL : 0671)625-2946,631-0108

화 신 승 복

◆승복 · 한복 · 두루마기 전문◆

대 표 이 진 우

임직원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11-3(피카디리극장옆)
TEL : 062)223-8910

광주불교능인회

◆불교식 장례는 불자들 손으로◆

사단법인 광주불교능인회
광주불교 능인회 새마을금고
광주불교 능인회 장의부

대 표 김두원

임직원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2동 484-4
TEL : 062)226-5161~3 FAX : 234-8485

관음사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김 정 현

임직원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4가 54-1
TEL : 062)224-1921,1883
FAX : 062)226-3757

광주불교교육원

광주불교문화대학
광주불교문화대학원

이사장 이 범 석
학 장 영 조
대학원장 현 지

학 인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52-17 봉산빌딩 4층
TEL : 062)228-9098,234-6601
FAX : 062)228-9003

도심속의 솔밭전통찻집
연 다 원

달마그림, 연꽃사진
전시 판매합니다.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1번지
(상무지구 무악사내)
TEL : 062)375-6056

한식동기와 전문업체 (풍진상사)

대 표 이 승 진

임직원 일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0-6
TEL : 0342)713-5760 FAX :715-8239

(주) 동부요업

혼과 정성이 서려있는 한국 전통기와의
아름다움을 동부요업이 이어갑니다.

대 표 박 문 환

임직원 일동

■ 전남 구례군 간전면 간문리 623-1
TEL : 0664)781-0987, 781-6611
FAX : 0664)781-0980

단청, 탱화 · 도금전문업체

문화재 기능 보유자

대 표 임 동 영

임직원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동 191
TEL : 062)234-0620/011)602-4458

삼 일 제 재 소
문/화/재/건/문/업/체

대 표 이 재 교

사찰 · 제각 · 한옥
일반목재 · 특수목재 · 다그라스
육송 · 미송 · 외송 · 홍송 · 콜시칸

임직원 일동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원곡히 249-1
TEL : 0613)331-8778 FAX : 0613)331-9885

대일 불상조성소

불상 · 석불 · 동불 · 후불 · 대리석 · 순금
인조석등 · 조각탱화 · 조각일체
범종불사 일체문의

대 표 심준식(우형)
(子)심 민 수

■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2동 57-91 4/1
TEL : 062)652-2384
핸드폰(父)011)642-2384 (子)011)604-2384

광주 금륜회

회 장 정환담 미타회회장 이대연심
청년회장 나승진 신 도 일 동

▶법회안내
일 반 법 회 : 매주토요일(오후3시)
청년회법회 : 매주 금요일(오후7시)
미타회법회 : 매달 셋째주 수요일(오전 10시30분)
법화경강의 : 매주 목요일 (오후5시)

■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3-7 (아송빌딩 4층)
TEL : 062-224-0175, 232-5704

대한불교 조계종
송 광 사

주 지 지 원

신 도 일 동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
TEL : 0652-243-8091 8681

정 혜 사

주 지 혜 일

신 도 일 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4
TEL : 0652)84-3732

관 음 도 량
대한불교 조계종
만 의 사

주 지 성 직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중리 140
TEL : 00339)376-6005, 6624

불교용품 선우
(구. 성심원)

불교용품 총판

대 표 박영민

직 원 일 동

■ 서울시 도봉구 쌍문1동 378-28
TEL : 02)998-7930~1

대한불교조계종
수안사(수안불교대학)

주 지 박 세 민
이사장 서대광명

대중 및 신도일동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8-12
TEL : 02)587-4677

대한불교조계종
노 적 사

주 지 석종후

신도회 일동

■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성(內)
TEL : 02)353-5016,4924 FAX : 02)386-4198

익산 법사회

회 장 김 진 수

법사회 일동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2
TEL : 0652)854-1578, 0698

불 광 사

주 지 보하 지암

대 중 일 동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TEL : 02)413-6060~2 FAX : 02)413-6781

청 계 사

주 지 지 명

신 도 일 동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번지
TEL : 0343)426-2221, 2670

천진선원

주 지 보 운

■ 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1235-2번지
TEL : 0591)745-0522/742-0511

경남관음종종무원
송 원 사

주 지 송 월

■ 경남 진주시 옥봉남동 878번지
TEL : 0591)745-2308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환경조건 동내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차마시는 '나' 누구인가"

산문밖의 禪 茶人 최규용 翁

장경각 보수하다 차맛 알아
경봉·성철스님등 차로 인연
'정행검덕' 진정한 차정신

白壽 바라보는 나이에도
'육우다경' 한글번역 몰두



◇"끽다래(喫茶來)." 금당 최규용옹은 만나는 누구에게나 차마시러 오라고 권한다.

"자, 어서 와 차나 마시게"

찻물 끓이는 소리를 내며 비 내리던 늦봄, 분홍색 흰색 작약이 흐드러지게 핀 '금당다우(錦堂茶寓)'의 나무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금당(錦堂) 최규용옹(97)이 화두를 던지듯 담담하게 차를 건넨다.

백수(白壽)를 눈앞에 두었다는 것을 조금도 느낄수 없도록 꼿꼿함과 기품이 느껴지는 금당선생. 2백년의 세월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고가 '금당다우'는 선생과 조화를 이루며 한 몸처럼 잘 어울린다. 오랜 연륜에서 풍어나는 고즐한 향기와 품격, 여유로움이 그대로 다가온다.

'당대의 다성' '살아있는 다선(茶仙)'이라 불리우는 금당선생은 찾아오는 손님에게 차를 권하는 일이 일상사처럼 됐다. 그러면서 "천천히, 살그머니, 조용히, 환하면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차를 마시면 한가한 경지에 자연히 이르게 된다고 차 마시는 경지를 자상하게 일러준다.

"차마시는 일이 곧 참선이예요. 차는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에 여유를 줍니다. 차를 제대로 마실 줄 아는 사람은 그 신묘한 세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방에서는 졸음을 적게 하려고 생차잎을 씹어먹는데 그것은 차의 깊은 향과 맛이 내면의 충만함과 하나되기 때문이지요."

금당선생의 차 인연은 아득히 멀리 십대를 거슬러 올라가지만 진정한 차맛을 알게 된 것은 1960년대 초 해인사에서 장경각 보수공사를 할 때였다. 고건축에 안목이 뛰어났던 그는 6년간 절에서 머물면서 장경각을 보수하고 하안거 동안거를 스님들과 같이 지냈다. 흔히들 다선일여(茶禪一味)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상징적인 수사만은 아니라는 걸 그 시절 알게 될 정도로 차에 푹 빠졌다.

금당선생은 차문화가 이만큼이나 우리나라에서 명맥을 이어온 것도 선방에 차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신라시대부터 차를 마셨으나 조선시대의 차는 일부 관청이나 선방에만 있었다. 차에 부과하는 세금이 너무 높아 민가에서 차를 외면하자 우리나라 차문화가 끊어질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선방에 차가 있었고 차담을 나누는 수좌들이 있어 지금까지 차향이 선향과 함께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금당선생이 절집안 얘기를 시작하면 빼놓지 않는 이가 바로 경봉스님이다. 차를 즐기기로 유명했던 경봉 스님이 주석했던 통도사 극락암에는 차를 즐기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 스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차를 대접했다. 스님이 열반했을 때는 은행이, 맹인, 곱추를 비롯 주위의 사람들을 이 다 모여 추모했다고 회고한다. 매우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다비를 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두 주일을 계속 내렸다. 그 비로 일대의 더러움이 일시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 비로 인해 어느덧 자신의 마음까지 씻기워졌음을 알게됐고 이심전심의 경지를 느꼈다. 성철스님도 잊을 수 없다. 성철스님은 만날때마다 다른 말은 없이 "금당이요?"라고 묻기만 했는데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말끔해지곤 할 정도로 법력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차로 맺어진 인연은 청담, 일타, 문성, 장천, 석정, 법정스님 등 당대를 이끄는 대 선지식들에게 자연스럽게 닿아 있다.

금당선생은 다구(茶具)를 연구하며 일본과 우리나라의 도공계보까지 꿰고 있을 정도로 고미술에도 일가견이 있다. 고미술, 민예품 등에 대한 금당선생의 연구는 65년 고려민속공예사 회장으로 우리민속공예를 일본을 비롯 해외에 전파하는 결실을 맺을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선 제자를 향해 금당선생은 "참선해라" 한마디뿐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젊은이는 방안으로 들어가더니 가부좌를 틀고 앉는다. 금당선생 역시 틈나는대로 5분이든 10분이든 정좌하고 앉아 참선에 든다. 굳이 참선하겠다는 생각도 없다. 차를 마실 때도 길을 가다가도 사람과 만나다가도 참선삼매에 들기 일쑤다.

"끽다래(喫茶來)." 금당 선생이 만나는 사람마다 잊지 않고 건네는 말이다. 차맛을 음미하러 오라, 단순히 마신다는 음(飮)자가 아닌 맛본다는 끽(喫)자에서 이미 금당선생의 차세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중국 조주 선사의 "끽다거(喫茶去)"에 대한 화답으로 일타, 석정스님, 금당선생 세 사람이 88년이후 줄곧 세상 사람들을 향해 던져온 화두이기도 하다. 차를 즐기는 사람은 차 한잔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이치를 깨닫고 깊은 자문(自問)에 잠긴다. '차는 마시는 나의 본고습은 무엇인가'라고.

금당선생은 요즘 차문화의 근간을 이룬 〈육우다경(陸羽茶經)〉을 우리말로 옮기고 있다. 차나무 모양, 차의 선택, 차의 재료, 다기, 다구, 차달이는 방법, 차의 효능등이 5천 6백자에 담겨 있다.

그러나 선생은 차정신이 단 네자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행검덕(正行儉德)'. "이 정신이야말로 본래면목을 찾을 수 있는 실천행입니다." 바른 행동과 검소한 생활은 선생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덕목으로 선생이 회장으로 있는 '육우다경연구회'를 중심으로 차정신확산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자신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되찾자는 취지다. 그것이 바로 선생이 주창하는 다선일미의 선차(禪茶 명상차)의 경지이다. 선생에게 차는 자기의 본래성품을 찾아가는 구도의 길이며 그대로 화두였던 셈이다.

"이제 남은 것은 열반에 들어가는 것뿐이예요. 상무천왕이요 하무걸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왕이나 걸인이나 똑같이 죽음의 갈은 평등하다는 말이죠."

열일곱에 시집와 선생 곁에서 칠십년 세월을 함께 해온 부인 민속인(85) 할머니도 "내 집인 듯 오세요"라는 말을 잊지 않으며 차맛처럼 푸근하게 손을 꼭 잡는다.

떡을 팔며 오로지 모습 없는 본래면목을 골똘히 찾다 깨침을 성취했다고 전해오는 떡장수 할머니처럼 금당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늘도 바다가 보이는 한옥, 그 오랜 나무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누구에게나 "끽다래, 끽다래"를 외치며 차를 달인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금당선생의 집 '금당다우'는 선생이 회장으로 있는 '육우다경연구회'의 활동 본거지이기도 하다.



◇금당선생이 집필한 〈금당다화〉등 차관련 저서들.



◇남궁련씨가 14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고구려 금동여래좌상. 높이 8.8cm.

국보급 고구려불상 중앙박물관서 본다

원로경제인 남궁련씨 기증



◇정양모 국립박물관장에게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는 남궁련옹(왼쪽).

국보급 고구려 불상인 '금동여래좌상'을 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에 기증한 남궁련(84·전 금융통화운영위원)옹. 14일 오전 불상을 손수 들고 중앙박물관으로 찾아가 기증서를 작성한 남궁옹은 "용산 새 국립박물관의 개관을 기념하고, 온 국민이 새 박물관에서 선조의 예상과 불심이 담긴 명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아끼는 금동여래좌상을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높이 8.8㎝인 이 불상은 현재 남아있는 고구려 것으로는 배우 이른 시기인 6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작품. 광배는 없지만 불신은 거의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어 그동안 고미술학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또 1979년 일본에서 열렸던 '한국미술 2000년' 전과 1983년 미국과 유럽에서 열렸던 '한국미술 5000년' 전에 출품돼 호평을 받았었다.

남궁옹이 이 불상을 손에 넣은건 1946년. 경기도 백제 토목공사 현장에서 출토된 이 불상을 문화재 전문가에게 소개받아 구입한 것이다. 이때부터 50여년동안 이 불상은 남궁옹의 애장품 가운데 하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양모관장은 "불상의 보존상태가 좋은데다 여태껏 발견된 고구려 불상이 5개뿐이어서 더욱 귀중하다"며 "국보 119호인 고구려 불상 연가칠년명(延嘉七年銘) 금동여래입상(539년 제작)과 비견된다"고 설명했다. 박물관은 이 불상을 최상급 유물(국보급)로 분류하고 기증자의 뜻을 기려 곧 일반에게 공개하고 문화재 지정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남궁련옹은 극동해운사장으로 오래 있으면서 60년대 국내 10대 그룹의 하나이던 극동그룹을 이끌었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신인 경제인협회 부장을 지낸 경제계 원로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 불자가 앞장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
문도회 문장 이 정 천
도선사 회주 이 혜 성
참 회 원 장 박 현 성
주 지 김 광 복
대 중 일 동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TEL : 종무소 02)993-3161~3 / FAX : 02)993-3164

이화피아노
원장 홍계선
■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068-7
TEL : 0391)651-1315

삼 화 사
주 지 원 행
■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
TEL : 0394)34-8313

삼 보 사
주 지 윤지원
신도회 회장 홍성걸
거사회 회장 박순배
연화회 회장 차정순
신 도 일 동
■ 서울시 은평구 역촌1동 17-12
TEL : 02)352-6406
FAX : 02)389-3262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㉑

不傷苗稼 方敢撒手也 到此地步
불상묘가 방감살수야 도차지보
便不用牧童鞭繩 自然無傷苗稼 如道
편불용목동편승 자연무상묘가 여도
人得眞心後 先且用功保養
인득진심후 선차용공보양
有大力用 方可利生
유대역용 방가이생

이런 경지에 도달해야 목동이 채찍과 고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곡식을 해치지 않게 되듯이 도인 역시 진심을 터득한 뒤에도 우선 그 공부를 계속 보호하고 잘 길러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비로소 중생을 이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若驗此眞心時 先將平生所憎愛底境
약험차진심시 선장평생소증애저경
時時想在面前 如依前起憎愛心
시시상재면전 여의전기증애심
則道心未熟 若不生憎愛心 是道心
즉도심미숙 약불생증애심 시도심
熟也 雖然如此成熟
숙야 수연여차성숙
猶未是自然不起憎愛 又再驗心
유미시자연불기증애 우재험심
若遇憎愛境時 特然起憎愛心
약우증애경시 특연기증애심
令取憎愛境界 若心
영취증애경계 약심
不起 是心無碍 如露地白牛
불기 시심무애 여로지백우
不傷苗稼也 古有呵佛罵祖者
불상묘가야 고유가불매조자
是與此心相應 今見發入宗門
시여차심상응 금견재입종문
未知道之遠近
미지도지원근
便學呵佛罵祖者 太早計也
편학가불매조자 태조계야

만약 이 진심을 시험해보려면 먼저 령소에 증오하거나 좋아했던 일이 때재로 자기 면전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전히 증오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도의 마음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요, 만일 증오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도의 마음이 성숙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성숙된 것은 아직 증오와 좋아하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또다시 마음을 시험하되, 만약 증오나 좋아하는 경우를 만났을 때, 억지로라도 증오나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증오하거나 좋아하려는 그 경계를 취해보려고 해도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비로소 마음은 걸림이 없어 마치 밖에 놓아두어도 흰 소(큰 지혜를 비유함)가 곡식 밭을 해치지 않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 옛날에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꾸짖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마음과 상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겨우 종문(宗門)에 들어온 이가 도의 원근도 잘 알지 못하면서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꾸짖는 것만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 이른 속단이다."

14. 진심은 앎이 없다(眞心無知)

或曰眞心與妄心 對境時
혹왈진심여망심 대경시
如何辨別眞妄耶
여하변별진망야
曰妄心對境 有知而知 於順違境
왈망심대경 유지이지 어순위경
起貪嗔心 又於中容境 起癡心也
기탐진심 우어중용경 기치심야

'옳다' '그르다' 대립시키는 것이
바로 망심임을 알아야 한다

既於境上 起貪嗔癡三毒 足見是妄心
기어경상 기탐진치삼독 족견시망심
也 祖師云 逆順相爭 是爲心病
야 조사운 역순상쟁 시위심병
故知對於可不可者 是妄心也
故知對於可不可者 是妄心也
고지대어가불가자 시망심야

물었다. "진심과 망심이 경계를 대했을 때, 이것이 진심인지 망심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대답했다. "망심은 어떤 경계를 대하면 안다는 생각으로 알므로 순경(順境)이나 역경(逆境)을 만나면 탐심(貪心)과 진심(嗔心)을 일으킨다. 또 그 중간의 경계에서는 치심(癡心)을 일으킨다. 이미 경계를 만나 탐, 진, 치 삼독을 일으켰다면 이는 망심임을 알 수 있다. 조사의 말씀에 「역경이다, 순경이다 하며 다투는 것은 마음의 병이 된다」하였다. 그러므로 옳다, 그르다 하며 대립시키는 것이 바로 망심임을 알아야 한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의심이 없으면

진제스님 〈해운정사 조실〉



· 1934년 경남 남해 출생
· 1954년 석우스님을 은사로 득도 출가.
· 1967년 향곡선사로부터 인가 받음.
· 1971년 부산 해운정사 창건
· 1991년 선학원 이사장, 선학원 중앙 조실 역임.
· 1994년~현재 팔공산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부처님의 진리는 깊고 깊어서 아는 자가 아니면 중생의 안목을 점검할 수 없고 바른 지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스승없이 깨달은 자는 천마외도(天魔外道)라고 못박아 놓았습니다. 광변무변한 진리의 세계를 혼자 수도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은 망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일상 중에 정진해서 깨달은 자는 응당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저 또한 출가 이후 큰 스님들로부터 공부를 점검받았습니다.

저는 1954년 정월, 21살 되던 해 출가를 했습니다. 동네에서 십 리쯤 떨어진 곳에 있던 해관암을 우연히 갔다가 설석우 선사를 친견한 것이 인연이 됐습니다.

석우 선사는 나를 보시더니 내 나이와 기타 이것저것을 물으신 후 '세상생활도 좋지만 그보다 더 값진 생활이 있으니 그대가 한번 해 보지 않겠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진 생활이 무엇인가를 여쭈었더니 범부가 위대한 부처되는 법이 있네,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수행의 길을 가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게 아니겠어요. 그래 그 길로 스님들의 사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후 환희심을 느껴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 이후에는 큰스님 시봉에다 공양주 소임 그리고 나무를 하고 채소를 가꾸는 등 해야 할 일들로 하루 종일 눈코 뜰 새없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6, 7개월이 지났을 겁니다. 하안거 해제일에 선방에 다니며 10여 년간 수행해 오던 선객(禪客)들이 해제하고서 석우 선사께 인사드리러 왔다가 마침 너댓 분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석우 선사께서는, "오늘 내가 자네들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 보게. 옛날 중국의 삼한 시절에는 글자 운자(韻字) 하나를 잘 놓음으로 인해서 과거에 급제하던 때가 있었네. 이것은 그 당시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일출동방대소(日出東方大笑) 즉, 해가 동쪽에 떠올라 크게 웃는 모습이 어떠하더라.' 하는 이 글귀에 운자 하나를 놓아 보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어떤 사람은 나 '아(我)' 자를 놓아서 재상에 등용되었는데, 자네들은 어떤 자를 놓아 보겠는가?"라고 덧붙이셨어요.

근데 선객들 중에는 대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때 선사께서는 신출내기 행자였던 저를 지목하시더니 '한마디 일러 보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대뜸 "없을 무(無)자를 놓겠습니다"했죠. 해가 동쪽 하늘에 떠올라 밝은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지만, 비추는 그 모습에는 호리(豪釐)의 상(相)도 없다는 뜻으로 '무(無)' 자를 놓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선사께서는 '행자가 장차 큰 그릇이 될 것이다' 며 아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큰 스님께 지도를 받으며 정진에 정진을 거듭했고, 그 덕분에 경허-혜월-운봉-향곡스님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선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향곡 선사께 법을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인연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내가 막 중이 된 뒤 석우 선사 밑에서 4년간 공부를 한 후 선산 도리사에서 공부를 하던 중 '망지견(妄知見)'이 나서 월내 관음사 향곡 선사를 찾아가 법을 물었습니다. 그게 인연이 시작된 셈입니다. 당시 내가 법을 물으니까 스님이 모두 아니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다시 오대산 상원사에 들어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누구나 심안 열리면
모든 불조가 설한 법문이
한 꼬챙이에 다 꿰이는 법

다. 거기서 겨울 안거를 하던 어느 날 그날은 유난히 날이 따뜻했었는데 문득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이 생기지 뭣입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는 안되겠다. 백지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향곡 선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향곡 선사께 사생결단 공부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사께서 화두 '향엄상수화'를 주셨습니다. '향엄상수화'는 한 사나이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 입으로 가지를 문채 매달려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뜻을 물으니, 대답을 하면 떨어져 죽을 것이고 대답을 안하면 모르는게 되니 어찌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의 화두입니다.

이 화두를 2년간 참구하여 결국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곡선사의 수승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1967년 하안거 해제 법회때 묘관음사 법당에서 향곡선사와 법거량이 있었습니다. 향곡 선사께서 상당(上堂)하시여 묵좌(默坐)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여쭈었습니다.

"불조(佛祖)께서 아신 곳은 여쭙지 아니하거니와, 불조께서 아시지 못한 곳을 스님께서 일러 주십시오."

"구구는 팔십일이니라."

이에 제가 "그것은 불조께서 다 아신 곳입니다" 하니, 선사께서 "육육은 삼십육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 제가 선사께 예배드리고 물러가자, 선사께서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내려오셔서는 조실방으로 가셨습니다.

다음날 제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불안(佛眼)과 혜안(慧眼)은 여쭙지 아니하거니와, 어떤 것이 납승(衲僧)의 안목입니까?"

선사께서 이르기를,

"비구니 노릇은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니라(師姑元來女人做)"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에야 비로소 큰스님을 친견하였습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선사께서 "네가 어느 곳에서 나를 보았느냐"고 또 물으시는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 본사 생산제품 ·
솔선식(2개월 ₩500,000), 솔효소정액(2월 ₩500,000)
익수영진고 (2개월 ₩1,000,000), 치신왕기환(3개월 ₩500,000)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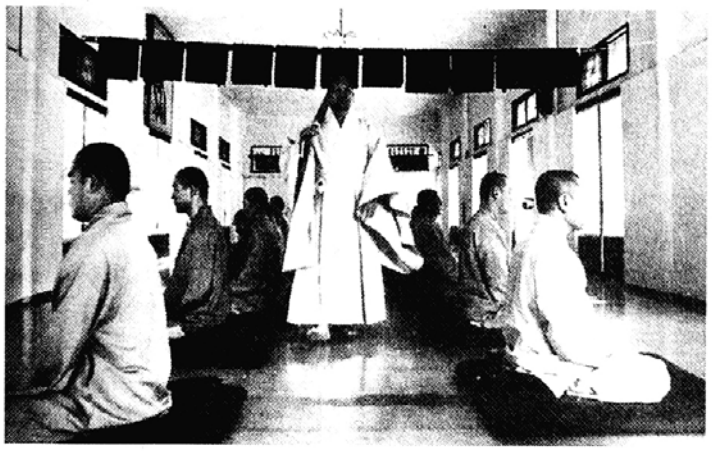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큰스님 수행한담

깨달을 길 없습니다”

바른 법문 듣고 화두 놓지않으면 부엌 안방 사무실 만원버스 어디든지 일등선방입니다



◇해운정사 금모선원에서 수행하는 수좌들. 진제스님(사진 가운데)이 장군죽비를 들고 수행자들의 공안 타파를 돕고 있다.

‘나’라는 허세 버리고 오매불망 일념에 참선으로 마음 밝혀 만법의 주인되세요

“관”하고 답하자 선사께서 “옳고, 옳다”며 하셨던 그 때가 눈에 선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인가를 하는 법인데, 요즘은 은밀히 밀실 속에 아무도 모르게 ‘제자에게 인가를 했다’하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도인이다”하며 횡설수설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백만인천 대중 앞에서 우담바라 꽃을 들어 보이자, 가섭존자가 빙긋이 웃어 보이니 “정법안장 열반묘심(正法眼藏 涅槃妙心)을 가섭존자에게 전한다”고 백일하에 드러내 보이셨는 얘기는 다 잘 아시죠.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무사자오(無師自悟)는 외도라며 스승없이 깨달은 자는 다 사견에 떨어져 있으니, 지도 받는 데 삼가고 또 삼가라 하셨습니다.

그런 것 보면 저는 발심할 때 좋은 스승(석우스님)을 만나 신심을 길렀고, 마음공부할 때 밝은 스승(향곡스님)을 만나 철방망이를 맞았으니, 수행에 빈틈이 있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습기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수행생활을 해 온 셈입니다. 아마도 절집 좋은 인연은 나만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선근공덕을 타고 난 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나 심안(心眼)이 열리면 모든 불조가 설한 법문이 한 꼬챙이에 다 꿰이는 법입니다. 모든 부처님도 성품을 봐서 부처를 이루었고, 모든 도인도 성품을 봐서 도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화두를 가지고 생활 속에 오매불망 일념으로 지속해 보세요. 화두가 일매삼매 중에 타파만 되면 부처님이나 모든 도인과 더불어 동일한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활구 참선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의심이 깨닫는 생명력입니다. 의심이 생명력인고로 바른 공부를 지어갈 것 같으면 보는 것, 듣는 것 다 잊어 버리고 시간이 흐른 줄도 모르는 일념에서 홀연히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화두가 타파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활구참선법이요, 활구 깨닫는 열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바르게 지어갈 것 같으면 1백 명 중에 99명은 다 견성도인이 됩니다. ‘생활 속 참수행’에 좀더 말씀드릴까요.

가지가지의 마음이 나면 만 가지의 진리의 법이 현전(現前)하고

가지가지의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 가지의 진리 법이 없음이라.

마음은 만 가지 진리법의 주인입니다.

이 마음을 깨달아 알 것 같으면 만법(萬法)에 임의자재(任意自在)할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할 때에는 온갖 무명업식(無明業識)으로 인해 번뇌가 쉴 날이 없을 꾸리며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일구월심으로 화두일념을 지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간절하게 골수에 사무치도록 공부한 결과, 하루는 빵을 굽는 도중에 홀연히 화두 관문이 타파되어 모양없는 참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빵소쿠리를 팽개쳐 버리고 위산 선사를 찾아가니 선사께서, 벌써 간파하시고 물으셨습니다.

“어떤 것이 모양 없는 참사람이냐?”

그러자 보살이 송(頌)으로 답하기를,

머리는 셋이요, 팔은 여섯 가진 대장사가(三頭六臂大力將)

한 주먹으로 태화산을 쳐부숨에(一擧擊破泰和山)

천겹 만겹의 태화산이 두 동강이 나니(分破和山千萬重)

만 년이나 흐르는 물은 봄을 알지 못하더라.(萬年流水不知春)

이렇게 깨달은 경지를 송(頌)하자, 위산 선사께서 들으시고는 “그대가 바로 알았느니라”하고 인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청신녀가 바로 유도바 보살입니다.

이렇듯 시끌벅적한 시장바닥에서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인네가 화두 관문을 뚫어 일대사(一大事)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 참선공부하는 것이 오로지 마음으로 지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속, 남녀, 어떠한 경계, 그 어떠한 형상과도 무관한 것이 이 참선법입니다. 그리고 참선방(參禪房)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바른 법문을 듣고 바른 지도를 받아서 걸음걸음 화두를 놓지 않으면, 부엌이나 안방이나 사무실이나 만원 버스 등, 가는 곳마다 다 일등 선방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법을 익히지 않고, 앉아 있을 때는 화두가 있는 듯하다가 서면 달아나고 걸어가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공부를 짓는다면 백 생(百生)을 하더라도 진리의 눈이 열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만약 시회대중이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각자의 화두를 오장육부에 사무치도록 지어간다면, 시절인연을 만나 확연히 열리니, 여러분도 다시 한번 대신심(大信心)과 분심(憤心)을 내어 보십시오.

정리=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우리가 참선수행을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자 지니고 있는 이 마음을 밝혀서 만법의 당당한 주인이 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위산(위山) 선사께서 상당하시어 이러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사람 사람마다 각자 모양 없는 참사람이 있어서 항시 면전(面前)에 출입자재(出入自在)하는데, 시회대중(時會大衆)은 이를 보느냐?”

대중 가운데 한 청신녀가 이 법문을 듣고서, ‘사람마다 모양 없는 참사람이 있어서 일상생활 가운데 쓰고 있다는데, 나는 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고?’하는 분심(憤心)이 일어 오매불망(寤寐不忘) 의심하고 참구했다고 합니다.

이 보살은 세간살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 시골 장터에서 빵을 구워 팔아서 생활으로 가는 것은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자연의 순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함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나는 사범대학을 택하게 되었고 또한 어릴 적부터 보리의 싹을 트게 하신 어머님의 공덕이 나를 불교종립학교인 능인고등학교로 부임케 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불교를 제대로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종립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불교행사에 참석했으나 그 가운데 방학마다 실시하는 전국종립학교 교직원 수련대회와 송광사 5박6일 수련대회는 많은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지금은 입적하시고 안 계신 구산큰스님께서 직접 참선하는 법을 지도해 주셨다. “나의 육체를 운전하는 것은 마음도 아니고 허공, 부처도 아니다. 그럼 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큰스님의 말씀은 더욱 더 의아심만 갖게 한다. 그러하다면 나 자신도 무(無)란 말인가. 일체중생들이 실유불성이라 하였으니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특히 국제선원에 계시던 혜국스님께서는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셨다. 수련을 마치고 온 뒤에도 혜국스님께서는 〈불교입문〉 등의 불서를 보내 주셔서 불도의 길을 재촉해 주셨다. 이같은 인연으로 인해 나는 83년 4월 조계종에서 실시하는 포교사 연수에 참가하여 포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대구지역 포교 법사단에 참가하여 활동하면서 교도소에 법회 하러 간 것이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다. 단주를 손에 굴리면서 눈을 지그시 내려감고 나의 이 슬픈 법문에 귀를 기우려 주는 수형생활 30년이 넘었다는 어느 무기수의 표정에서 인생의 고뇌를 읽었고 자기를 이겨내려는 굳은 의지를 맛보았다.

그후 나는 교사라는 직업을 바탕으로 포교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이 바로 새싹불자 포교였고 대구지역 불자교사들과 마음을 모아 포교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이는 내가 어머님의 불심을 통해 불교에 입문하게 된 것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리의 싹을 틔우기를 바라는 작은 서원이기도 하다.

지난 89년 4월에는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대구시지부를 창립하여 회장을 맡아 대구지역 선생님들의 가슴속에 불심을 심어 자라나는 새싹들의 가슴에 보리의 싹을 틔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90년 11월에는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대구지부 창립 준비에 우리 대구지역 교사불자회가 참여하여 20여개의 분회를 두고 있다. 내년이면 더욱 분회가 늘어 새싹들의 가슴에 불심을 심어줄 기회가 넓어지리라고 생각된다.

언제나 일상생활에서 맑은 모습으로 고운 말, 바른 말, 순한 말을 쓰면서 주변 사람들을 대하도록 노력하여, 마음 속으로도 원만한 생각을 지니도록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며 살아 가리라 다짐해 본다.

나의 수행일기



손기완 〈대구 능인고 교감〉

새싹 포교에 미력한 힘이라도…

‘나란 무엇인가’ 답찾다 포교사 돼



불심과 불성은 절이나 경전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있다

화엄법계의 소 울음 소리를 들었느냐

석만용 스님 지음 변형국판 / 320쪽 / 값 7,000원



이 명상록을 접하는 독자들은
금방 저자인 스님이 법당 안에서만 사시거나
경전의 글귀에만 매이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중생의 삶 가운데 절간을 짓고 중생의 애환과 눈시울에서
경전을 읽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겪은 대로 말하는 글예술의 수필이 독자로 하여금
지은이의 삶을 머리속에 그려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상이라 한다면
스님의 이 명상록은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믿는다.

시인, 경상대학교 도서관장 - 강희근

명예, 혹은 명성의 고삐, 체면과 윤리, 도덕의 굴레,
자존심의 송곳, 물질의 멍에…….
나는 이 모든 굴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각자 판단의 잣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아는 만용스님은 누구보다도 많이 벗은,
그래서 담을 것이 넉넉해져가는 큰 스님이라는 사실이다.

소설가 - 김수용

삶에는 지혜와 용기와 진실이 필요하다

삶이란 뭐꼬

석만용 스님 지음 변형국판 / 256쪽 / 값 7,000원

“누더기 같은 욕망을 버려라.”
“쓰레기같은 집착심도 버려라.”
“걸레같은 망상, 똥같은 오만과 편견도 버려라.”
나는 한동안 삶에 지친 군상들에게 버릴 것만을 강조했다.
그들이 뽕잎을 먹고 크는 누에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몇번이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섶에는 신선한 뽕잎이 고갈되지 않아야 한다는
삶의 법칙을 최근에야 깨달았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불제자인가.

삶이란 변화가 있고 희망이 존재하는 저마다의 오솔길이다.
나는 한 마리 파랑새가 되어 지친 발걸음을 옮기는
중생들의 머리 위에서 노래공양이라도 하고 싶다.
그간 저질렀던 무심, 무능, 무학의 소치를 일부나마 덜기 위하여.

도서출판 빛샘 전화(대) : (02)3143-1516 · 팩스 : (02)3143-1518

'사굴산파' 개산정신 아직도…

가람의 장면들 7

인제 한계사터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설악산 한계령이 시작되는 곳. 행정구역 상으로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에 장수대가 있다. 불쑥 솟은 기둥같이 깎아지른 암벽이 마치 장군과도 같다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골짜기가 좁고 깊은데다 높은 절벽까지 솟았으니 한낮에도 늘 그늘이 지는 곳이다. 장수대 휴게소에서 북쪽 산위를 걸어 오르면 산등성이에 갑자기 양지바른 평지가 나타나니 여기가 바로 한계사 옛터다. 몇 개의 기단 흔적과 석탑의 잔해만이 앙상하게 서있는 곳이다.

기단·초석등 잔해만 남아
건물·장식 없지만
자유로운 조형정신에 감동



◇인제 한계사 터 삼층석탑(보물 1276호). 그 앞에는 약왕보살 공양상이 있었을 것이 분명한 길쭉한 석조대좌가 놓여있다.

빈터엔 가람 연 선사들의 불심이…

건물은 자어지는 순서의 반대로 허물어져 내린다. 가장 나중에 세워지는 지붕이 가장 먼저 무너진다. 돌로 쌓여진 서양 건축의 폐허에는 벽체와 기둥의 알부라도 남아 원초적이기는 하지만 입체적인 공간이 남게된다. 그러나 나무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한국건축의 폐허들은 기단과 초석을 남기고는 모두 사라져 버린다. 나무란 쉽게 무너지고 쉽게 썩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건축의 폐허란 대개 잘해야 기단과 몇 개의 초석들이 대지에 흔적을 남기는 평면적 폐허로 남게 된다.

폐허에 서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가는 듯한 묘한 감동을 느끼게 된다. 남은 것이 적다고 가치와 감동까지 적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부수어지면 부수어진 대로 감동의 깊이는 더해간다. 건물에 색칠을 하고 장식을 다는 것은 건물이 완공되기 직전에 행해진다. 따라서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빨리 없어지는 것이 이들 장식이다. 한국건축의 폐허에는 이런 일절의 장식과 가식과 치장들이 남아있지 않다. 남겨진 기단과 초석들은 오로지 대지에 터를 잡고, 터를 닦았던 건축 당시의 근본적인 생각들만을 전한다. 컵데기는 사라지고 오직 가장 근원적인 정수들만 남은 곳이 바로 한국건축의 폐허다.

한계사의 폐허에는 삼층석탑을 제외한 지상의 건물이란 하나도 없다. 5~6개의 건물터로 보이는 석축들과 초석들만이 남아있는 철저한 폐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다른 어느 완성된 가람보다도 극적인 감흥이 있다.

그 높고 깊은 산 속에, 감히 있으리라 생각지도 않은 험지에 처음 가람을 열었던 선사들의 희열과 불심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깊은 골짜기를 바라보는 시원한 경관, 울창한 수풀 속에 갑자기 마련된 반짝이는 대지, 한평의 땅이라도 아껴 쓰려는 듯 여기저기 산재된 건물터와 인공의 흔적들, 그리고 대자연의 소스라치게 아름다운 감동들. 금경사지에 마련된 넓지 않은 철터는 차라리 하나의 처절한 희구이다.

한계령을 넘어 명주 땅에는 범일선사가 사굴산파를 개산했던 굴산사가 있었다. 범일스님은 이어서 대관령 밑에 신복사를 개창했다. 신복사 터에는 고려시대의 삼층석탑(보물 제87호)이 있는데 그 앞에는 돌로 만들어진 보살 한분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공양하고 있다. 〈묘법연화경〉 약왕보살본사품에 등장하는 희견보살이며 후에 약왕보살이 된 분이다.

한계사 터 삼층석탑 앞에는 직사각형의 길쭉한 대좌가 놓여 있다. 비록 불상은 없어졌지만 석조좌상의 대좌였음이 분명한 부재다. 대좌에 패여진 흔적으로 보아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석탑을 바라보는 공양상이 있었음에 확실하다. 이 역시 예의 약왕보살이며 이 지방의 지역적 형식이며, 한계사가 범일의 사굴산파의 일원으로 창건됐음을 알려주는 조형이다.

이절이 언제 창건됐는지, 언제 폐찰됐는지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는 기록은 없다. 남겨진 유구로 미루어 대략 신라 말에 창건됐으며, 여러 차례 화재로 다시 지어지기를 거듭하다가 조선 중기에 폐찰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시대의 가람이면서도 일정한 배치형식을 찾을 수 없다. 금당 옆으로 부속건물 터들이 놓였지만 금당과 열이 맞는 것도 아니다. 당시의 가람들은 회랑을 두르고 좌우가 대칭되는 기하학적 배치형식이 일반적이었지만, 한계사 터에는 회랑의 흔적도 없고 대칭적인 형식도 없다. 대지가 불규칙하고 좁아서였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절의 창건정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모든 구속을 거부하며 참다운 진리에 도달하려고 했던 구산선문의 자유로운 조형정신이었을 것이다.

한계사의 폐허는 이 처음의 정신, 가장 근본적인 건축적 생각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건축적 공간이다. 비록 건물이 사라져버린 폐허지만 건축적 정신으로 가득한 장소다.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과 함께 법등을 밝히고 있다.

동산반야회는 본지가 지난 3월부터 펼치고 있는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동참, 법당 문고만들기에 나섰다.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동산반야회는 교재를 비롯 교리·경전류를 우선적으로 구비한다.

동산반야회 문고설립 법등 밝혀

불교교양대 학생·동문 등 법공양 나서

이밖에도 불자들의 신심증장을 위한 신행서, 교양서 등까지 다양한 도서를 비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동산불교대학 재학생을 비롯 동문들을 대상으로 도서를 기증받고 있다.

김재일회장은 법등밝히기에 가장 먼저 〈정토의 세계〉(불교시대사 刊, 장휘옥 저)와 〈세계의 종교〉등 만다라 총서 20권 등 50권을 기증했다. 이 가운데 만다라총서 시리즈는 불교를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유명렬 동산불교대학 총학생회장과 재학생 33명도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 소장도서를 기증했다. 20일까지 기증된 도서는 벌써 1백여권이 넘었다. 이밖에도 대부분의 회원들이 동참의 뜻을 표해 도서실 만들기 법공양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문고형 도서실만들기에 취지를 같이한 동산반야회 회원들의 도서법공양은 구입하거나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불서를 기증하는 형태다. 먼지만 쌓여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불서를 원하는 불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절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은 가정에서 사장된 불서를 살리는 역할도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감명깊에 읽었던 책이나, 꼭 권하고 싶은 책을 구입해 기증하기도 한다.

동산반야회 도서실만들기는 무엇보다 불자들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편 동산불교대학은 6년전부터 군법당과 교도소를 비롯 미국 시애틀 동지에 불서보내기운동을 펼쳐왔고 6월경 정토불교대학을 설립할 예정이어서 도서법공양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증 문의(02)732-1206

인·터·뷰

"교양교재 활용에 적합"



도서 50권 기증
김재일 회장

본사의 캠페인에 뜻을 같이해 문고형 도서실을 꾸미고 있는 김재일회장(동산반야회)은 선뜻 도서 50여권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정토의 세계〉(불교시대사 刊, 장휘옥 지음)는 김회장이 가장 먼저 추천하는 불서다.

"장소에 구별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염불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불자들은 물론 일부 스님들까지도 신심이 결여돼 있습니다. 이 책은 염불의 중요성, 방법 등 염불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양대학의 교양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장점입니다." 김회장은 〈정토의 세계〉를 불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꼽았다. 한편 김회장은 〈정토의 세계〉 〈불교교리 그리고 불자생활〉 20권을 다른 사찰에도 도서관이 설립될 경우 비치할 수 있도록 본사에 위탁했다.

"소장불서 거의다 기증"



캠페인 적극동참
유병렬 총학생회장

도서실 만들기를 적극 환영하는 유병렬 동산불교대학 총학생회장은 가장 감명깊에 읽었던 선시집 〈형상에 덮힌 진면목〉(정인각 刊, 박상문 지음)을 내놓았다. 유회장은 "이 시집은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사상을 간략한 시어로 담아, 읽으면 읽을 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게 한다"고 기증의 이유를 밝혔다.

유회장은 이밖에도 소장 불서중 교양대에 필요한 책들은 동산반야회 도서실에 기증할 계획이다. 동산반야회가 재가불자교육도량인 만큼 도서실은 필수 시설이라고 강조하는 유회장은 "도서실을 통해 회원들간에 필요한 책을 나눠볼 수 있어 기쁘다"며 "보다 많은 회원들이 동참해 도서실이 동산반야회의 또다른 법당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서기증자 명단

동산반야회 불서기증(33명) 70권
김화순 3권, 최낙구 2권, 이선자 1권, 윤주광 2권, 고영기 2권, 김동규 1권, 홍현상 3권, 엄기준 1권, 이용일 2권, 박명순 3권, 최봉자 1권, 지용남 2권, 정원형 3권, 갑중기 2권, 강영규 3권, 이재상 1권, 조화영 2권, 김영석 6권, 김정숙 1권, 이익종 3권, 배규호 2권, 김윤하 2권, 최순삼 5권, 최종철 2권, 임영선 1권, 류재창 2권, 임장수 1권, 육명자 3권, 박종갑 2권, 박상숙 1권, 이경웅 2권, 강충석 1권, 강원호 3권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 불자가 앞장섭니다.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大韓佛敎 曹溪宗
한마음선원(禪院)

원 장 대 행
주 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 전화 : 사무처 (0343)472-3100
팩 스 (0343)472-2746

● 국내지원 ●

● 한마음 광명선원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 : 0446-877-5000/0462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하동 1500번지 Tel : 064-721-4662
● 부산지원 부산시 영도구 봉삼동 522-1 Tel : 051-403-7077
● 광주지원 광주시 서구 치평동 201-5 Tel : 062-373-8801-3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451-17 Tel : 052-244-0884
● 대구지원 대구시 중구 남산1동 2105-2 대광빌딩 7층 Tel : 053-426-2779
● 충부경남지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329-1 Tel : 0525-342-6630/6639
● 진주지원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0591-746-8163, 744-1321
● 대전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동 344-21 Tel : 042-532-1481
● 포항지원 경북 포항시 상도동 18-99 Tel : 0562-275-3163
● 청주지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동 53-1 Tel : 0431-259-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04번지 Tel : 0391-651-3003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도천동 113-3 Tel : 0557-643-0643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상동 962-19 Tel : 0631-284-1771

● Overseas Branch 해외지원 ●

-U.S.A (미국 지원)
● New York (뉴욕플러싱 지원) 144-3932 Ave. Flushing Ny.11354 Tel : 718-460-2019 / Fax : 718-939-3974
● Washington (워싱턴 지원) 7807 Trammell Rd. Annandale VA. 22003 Tel : 703-560-5166 / Fax : 703-560-5566
● Los Angeles (LA 지원) 210N Catalina St. L.A CA. 90004 Tel : 213-382-1711 / Fax : 213-386-8852
● Chicago (시카고 지원) 7852 N.Lincoln Ave.Skokie IL. 60077 Tel : 847-674-228 / Fax : 847-674-0812
-CANADA (카나다 지원) 20 Mobile Dr,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 : 416-750-7943 / Fax : 416-750-3091
-ARGENTINA (아르헨티나)
● Buenos Aires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원) Miro 1575(1406) Cap.Fed Rep. Argentina Tel / Fax : 54-11-4921-9286
● Tucuman (뚜꾸만 지원)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CP4107, Tucuman, Rep. Argentina Tel / Fax : 54-381-425-1400
-GERMANY (독일 지원)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 : 49-2131-969551 / Fax : 49-2131-969552
-Thailand (태국 지원) 43 pattanavet Sukhumvit Soini Bangkok, Thailand Tel : 662-711-2005 / Fax : 662-391-6425

새로나온 책



▲끝없는 행원= 어둠 속의 보배라도 등불이 없으면 볼 수 없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비록 지혜가 있더라도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교육 포교 사회복지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천운스님의 작은 설법집. 보현행원의 수행을 한다면 성불의 씨앗을 심게 된다는 것을 강조.〈향림 刊, 값 4천6백원〉



▲선심초심= 선 수행은 깨달음 얻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간직하기가 어려워 깨끗한 수행하기 어려운 탓이다. 이 책은 어렵고 난해한 선서가 아니다. 우리의 수행이 깨끗함을 잃어가지 않도록 도와준다. 불일소책 시리즈 여섯 번째인 〈선(禪)〉의 개정판. 강연심 옮김.
〈불일출판사 값 6천원〉



▲타래= 속명 이경미 법명 보현스님. 80년대 초 CF모델, MC, 가수 등 연예계를 주름잡던 그가 어느날 갑자기 출가했다. 그리고 13년만에 자선소설을 냈다. 번뇌를 안고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산문의 진리를 뒤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이다. 왜 스님이 될 수 밖에 없었는지, 실타래처럼 얽힌 속세의 이야기들이 한올 한올 풀어 헤쳐진다.
〈찬섬 刊, 값 7천원〉



▲낯선 세상속으로 행복한 여행 떠나기= 여행은 언제나 가슴을 뛰게 한다.
이 상적인 새로운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행의 참맛을 곱씹어 볼 수 있는 책. 2박3일, 3박4일의 여정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한 초보 여행자들을 위하여 코스 등 상세한 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변산 개암사, 미륵신앙의 진원지 금산사 등 8도의 사찰과 불상 그리고 가볼만한 여행지들이 수록됐다. 김산환 지음 〈성하 刊, 값 1만원〉

"불교예절-상식 동화로 배워요"

김영만씨 '스님은 황금을 메고…

재미있게 읽다보면 '불교가 보여요'

'간추린 불교예절 50문50답' 도 정리



"절에서는 왜 늘 향을 피우는지요." "절에 웬 도깨비집(천왕문)이 있나요."

절을 찾는 어린이들이 흔히 품을 수 있는 의문들이다. 이같은 의문들을 비롯 불자예절, 상식 등에 관한 내용을 지루하지 않게 술술 읽어가면서 익힐 수 있는 불교 안내서가 동화로 나왔다.

불교아동문학 신인 작가상을 수상한 동화작자 김영만(사진)씨가 펴낸 〈스님은 황금을 메고 어디로 갔을까〉가 바로 그것. '동화로 배우는 불교예절 상식'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여름방학이 끝난 개학식 날부터 우란분절인 그 이튿날까지 주인공인 세모와 친구들, 짝궁인 한나라네 가족, 같은반 친구이며 소년가장인 석기형제가 백운사에 다녀오는 과정에서 겪는 이야기가 중심 줄거리이다. 특히 황금덩어리를 메고 산을 내려오는 해덕스님의 행방은 글을 읽는 내내 궁금증을 주어 재미를 더하고 깨달음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야기의 발단은 백운사에 있는 마애불이 소원을 잘 들어 준다는 소문에서 비롯된다. 공부를 잘 해 짝궁 나라에게 잘 보이고 싶은 세모, 슈퍼모델이 되고 싶은 소라, 부자가 되고 싶은 동길이, 가수가 되고 싶은 방울이, 농구선수가 되고 싶은 장훈이, 이들은 마애불에 소원을 빌러 가기로 백운사행을 결정한다.

이렇게 그릇된 동기에서 백운사에 가게 되지만 이들은 여러가지 사건을 겪고 독실한 불교신자인 나라 부모님과 스님을 만나면서 차츰 불교에 대해 알아가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 이야기속에는 불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생활해야 하는지 등등의 기초적인 상식과 불자에게 필요한 예절이 재미있는 사건과 함께 담겨 있다. 또 이 책은 〈365일 동화〉 〈시장나들이〉등의 동화책 그림을 그린 일러스트레이터 최민주씨의 그림이 눈을 즐겁게 해 더욱 재미있게 읽는 요소가 된다.

조계종 교육원장 일면스님은 "읽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불교의 참뜻이 라든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주 쉽게 이해된다"며 "읽고 나면 주인공들이 보여 주던 불자예절과 수행방법이 눈앞에 선하게 떠올라 금방 익혀 실천할 수 있다"고 평했다.

한편 〈스님은 황금을 메고…〉 끝에는 '간추린 불교예절상식 50문50답'을 실어 불자라면 누구나 알아둬야 할 기초적인 예절과 상식을 문답식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놓았다. 동화를 먼저 읽은 다음에 다시 읽는 '간추린 불교 예절 상식 50문 50답'은 머리속에 더욱 쏙쏙 들어온다.

저자는 "어린시절 어머님 따라 절에 갔을때 무섭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어리둥절했던 경험이 출간의 동기가 됐다"며 "어릴적 불교예절에 대한 훈습은 불교를 편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올바른 불자가 되는 단초가 된다"고 강조했다.〈다림 刊, 6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한국불교 선지식 열분 선문답 통해 만난다

이은윤씨 '큰바위 짊어지고 어디를 가는가'



선어록 관련 서적은 중국 선종사와 중국 선사들에 관한 이야기뿐이다. 이들 서적은 조사선의 극치를 보여주지만 중국에서는 이미 그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것들이다.

오늘날 한국 선불교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종교전문 저널리스트인 이은윤씨가 선지식 열 분의 선문답을 쓴 〈큰바위 짊어지고 어디를 가는가〉는 중국에서 사라진 조사선의 맥이 현재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선사들의 수행처를 찾아 나눈 선문답을 통해 우리나라 선불교의 모습을 하나씩 서술하고 있다.

총무원장 자리를 놓고 벌이는 조계종단의 종권 다툼에 대한 질문에 "(세상의 모든 감투는) 눈 위를 밟고 간 기러기 발자국(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 버리는 것)"이라고 거침없이 답하는 서옹스님(백양사 고불총림 방장)을 비롯, 혜암, 서암, 석주, 원담스님 등은 현대 한국불교의 얼굴이자 우리나라 현대불교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인 이은윤씨가 31년 동안의 취재 경험에서 겪은 오늘날 한국 불교계의 실상에 대해 일반인은 물론 신도들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속살까지 끌어내어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중앙 M&B 刊,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시어로 녹인 불교우주관

정관스님 첫 시집 '선우' 펴내



산과 들 광야에는/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그대로가/ 부처님의 모습이요/ 실체없는 뜬 구름이/ 인연따라 흩어지는 이 도리가/ 부처님의 진면목이면/ 부처님 참 모습에는/ 오고 가는 거래의 흔적이 없음이니/ 흔적없는 이 도리가/ 이름하여 최상승이라 하느니라/(' 부처님오신날' 중에서)

새싹불자포교에 남다른 활동을 펼쳐 널리 알려진 정관스님(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총재)이 자신의 첫 시집 〈선우〉(부다가야 刊)을 내놓았다. 새싹불자포교에 남다른 활동을 펼친 스님이 문서를 통한 포교에 나섰다.

구도자로써의 번뇌, 깨달음, 그리고 우주관이 간략한 시어로 녹아 있는 이 시집에서는 수행자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시심을 맛볼 수 있다. 특히 이 시집은 영문 번역시도 함께 실었다. "우리나라 불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불자들까지도 우리나라 불교의 속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스님의 영역의도는 강한 포교의 열정을 엿볼 수 있다. 이 시집에는 '범어사 소적새의 밤' '신불가(信佛歌)' 등 16편의 시가 실려 있다. 값 6천5백원. 김중근 기자

'붓다' 36년만에 재출간

박경훈씨, 한글가로쓰기 수정보완



불자들에게 애독됐던 현암신서 시리즈 〈석가의 생애와 사상〉이 36년만에 읽기쉽게 〈붓다〉로 재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책이 재출간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청소년들은 몰른 현대인들의 독서성향에 맞게 널이 읽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기존판형을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바꿨다. 물론 내용도 수정보완해 시중에 내놓았다.

박경훈씨(前 법보신문 주필)가 번역한 〈붓다〉는 가비라성의 왕자로 태어나 고행을 거쳐 해탈, 열반에 이르기까지 붓다의 행적을 생생하게 되살려 기록한 전기. 이 책은 붓다가 출가하기까지 겪은 마음의 갈등, 고행, 해탈, 열반과정이 자세히 실려 있어 누구나 붓다를 친근하게 느끼며 불교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삶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온갖 아집과 욕심, 이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에게 한없이 넓고 깊은 자비와 예지의 빛을 던져주는 책이다. 무샤고지 사네아츠지음.
〈현암사 刊, 값 9천8백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2	불교 선수행의 핵심	송 위 지	시 공 사
3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 형 조	여시아문
4	선문촬요	이 철 교	민 족 사
5	허공의 몸을 찾아서	지 명	불교시대사
6	가슴을 적시는…	보현스님	찬 섬
7	유식학개론	이 만	민 족 사
8	인연이야기1	삼 중	문학수첩
9	선림승보전	원 철	장 경 각
10	가슴을 적시는…	성우·지현	민 족 사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그대들도 나처럼 이 길로 오라 법산스님 지음

중도행법 가르침 이해쉽게 설명



"수행자들은 정말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부처님의 중도행법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며칠이라도 전심전력하여 정진한다면 끝없이 헤메던 불안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그대들도 나처럼 이 길로 오라〉는 대구 여래선원 법산스님이 10여년등안 인도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지에서 구도행각과 〈대념처경〉을 근간으로 위빠사나 수행법을 담은 책. 바른마음챙기기, 중도행법의 가르침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부록으로 해탈에 이르는 16관문을 소개한 수행 지침서다. 〈민족사 刊, 7천5백원〉

똥속의 과일줍기 지명스님 지음

공해도시 극락으로 바꾸는 지혜



무(無)사상과 생활철학을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 쉬운 말로 풀어 써온 지명스님의 글이 〈똥 속의 과일 줍기〉로 묶여 나왔다. 이 책은 95년부터 불교계 신문및 일간지, 잡지 등에 실어온 칼럼과 수필을 모은 것. '똥 속의 과일 줍기'는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한 젊은이가 감나무 밑에서 대변을 보았는데 그 자리에 홍시가 떨어지자 감을 주워들었다. 어른들은 어찌 똥속의 과일을 주워 먹느냐고 꾸짖었다. 그러자 젊은이는 "먹으려고 집은 것이 아니고 깨끗이 씻어서 버리려고 했다"고 둘러댔다. 공해 덩어리 도시를 극락으로 바꾸는 지혜를 잔잔히 들려준다. 〈예담 刊, 값 7천5백원〉

다시보는 팔만대장경 이야기 박상진 지음

대장경 새긴 고려인의 얼 재조명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민족의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역사가 오래돼서만은 아니다. 불력에 의지해 몽골의 침략을 물리쳐 보고자 조성했던 고려인의 피와 땀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경북대 박상진교수가 지은 〈다시보는 팔만대장경 이야기〉는 팔만대장경판의 참다운 이해를 위한 해설서이다. 이 책은 대장경판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새겨졌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에서 시작하여 나무의 종류, 경판을 새기는 과정의 재현, 대장경판에 얽힌 설화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운송신문사 刊, 값 7천5백원〉

운제당 이영무 대종사

· 49재 안내 ·

태고사에서 승정원장으로 봉행된 운제당 이영무 대종사의 영결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데 대해 다시한번 이 지면을 빌어 가슴 깊이 감사를 드리오며 운제당 이영무스님의 49재가 다음과 같이 봉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면 무루 참석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 운제당 이영무 대종사 49재 …….

· 일 시 : 6월 3일(음력 4월 20일) 목요일 오전11시
· 장 소 : 법륜사(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12)
· 연락처 : (02)732-2710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강의



설법방법 · 교수기법 · 실기훈련

說法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성격 좋고 화술이 능해야 합니다.
○이론과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격, 가치관의 체계확립
○자료의 재구성 능력확보
○설법, 강의, 강연, 화술, 사회, 회의진행
○음성, 태도, 수사(修辭) 원고작성, 상담기법등

■ 연 수 안 내 ■
▶ 기 간 : 2개월 과정
▶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수시접수
▶ 사후관리 : 정회원 대우(매달 1회 모임)
▶ 장 소 : 본연수원 강의실
▶ 지도교수 : 金 哲 會 박사

♣문의 및 신청♣
☎ 02)737-1567 / 725-1357
FAX (02)737-8725

韓國說法硏修院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오봉빌딩 별관 3층)

「오가피를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늙음을 견디게 하고 수(壽)를 더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久服卽輕身耐老 延年不老) - 동의보감」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C 9시 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8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의 보도("오가피 알고봤더니 金가피")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가 담긴 오가피에 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제품: 오가피 추출액, 오가피 열매 발효액, 오가피 묘목
■ 주소: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화: 0333-682-5034/3
■ 인터넷 홈페이지:http://myhome.netsgo.com/baegh)/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韓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용린佛字체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신기록을 획득한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용린 佛字체」 최초로 공개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지 달마달마대사와 그림, 丹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묵가협회 초대 작가로 추천함.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아)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마음처럼 …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 조계종 **향림사**
조 실 천 운
주 지 혜 향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51-3
TEL : 062)375-7600

광주불교대학 · 대학원
학 인 일 동
■ TEL : 062)375-7603,7633

대한불교 조계종 **증심사**
주 지 영 조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
TEL : 062)226-0107

대한불교 조계종 **약사사**
주 지 종 일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12
TEL : 062)222-9844

대한불교 조계종 **흥룡사**
주 지 상 운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23-1
TEL : 062)651-5083

대한불교 조계종 **연화사**
주 지 명 신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448-35
TEL : 062)227-7295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
주 지 일 명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산 4-1
TEL : 062)942-3260

대한불교 조계종 **원효사**
주 지 현 지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TEL : 062)266-0326

대한불교 조계종 **무각사**
주 지 광 민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1번지(상무지구)
TEL : 062)383-0108

대한불교 조계종 모악산 **불갑사**
불갑사 선원
주 지 수 산
신 도 일 동
■ 전남 영광군 불갑면 모악리 8
TEL : 0686)52-5258,8097

대한불교 조계종 **도갑사**
주 지 범 각
신 도 일 동
■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
TEL : 0693)72-0521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사**
주 지 현 장
신 도 일 동
■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831
TEL : 0694)52-1755

천불천탑 **운주사**
주 지 운 공
신 도 일 동
■ 전남 화순군 도암면 대초리 70
TEL : 0612)374-0660

대한불교 조계종 나한산 **만연사**
주 지 오 안
신 도 일 동
■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구리 179
TEL : 0612)374-2112,4564

대한불교 조계종 **향일암**
주 지 종 삼
신 도 일 동
■ 전남 여수시 돌산읍 율림리 산 7
TEL : 0662)644-4742

오늘도 무사히 하루일을 마쳤으니
이제는 걸림없는 자유로운 시간이다.
조용히 선정에 들어 밤 깊은 줄 몰라라.

생활인의 불교도량 **광륵사**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392
TEL : 062)222-7801

한국불교 태고종 **금둔사**
주 지 지 허
신 도 일 동
■ 전남 순천시 낙안면 상송리 3-2
TEL : 0661)54-2954

한국불교 태고종 **세심정사**
주 지 지 암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58
TEL : 062)222-9442

한국불교 태고종 **법륜사**
주 지 월 인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74-5
TEL : 062)375-7444

한국불교 태고종 **태평사**
주 지 동 환
신 도 일 동
■ 전남 나주시 노안면 영평리 37-1
TEL : 0613)32-8270

한국불교 태고종 여귀산 **구암사**
주 지 지 명
신 도 일 동
■ 전남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675
TEL : 0632)43-5848

석문산 관음기도도량 **용문사**
주 지 혜 종
신 도 일 동
■ 전남 강진군 도암면 석문리 32
TEL : 0638)33-4879

한국불교 원각종 **수지암**
주 지 진 학
신 도 일 동
■ 전남 여수시 시전동 선소마을 765
TEL : 0662)84-1576

월명산 **흥천사**
주 지 지 환
신 도 일 동
■ 전북 군산시 금동 2-17
TEL : 0654)445-3769

천수염불도량 **정토사**
회 주 한 탑
주 지 혜 광
신 도 일 동
■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2구 492-1
TEL : 0684)381-0108

동곡사
주 지 혜 림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산 188-1
TEL : 062)232-6995

대한불교 진각종 **영광 심인당**
주 교 지 정
신 도 일 동
● 법회안내: 자성일 불공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 월초불공일 : 매월 첫째주간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4-7
TEL : 062)263-5272,261-1735

법융사
주 지 법 륜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20-3
TEL : 062)672-0866

군암산 수덕사
주 지 혜 명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2동 125-1
TEL : 062)263-0550~1

무등산 칠원사
주 지 혜 명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104
TEL : 062)222-1691

한국불교 천명사
회 주 성 관
주 지 지 명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20-10
TEL : 062)234-6203

대한불조계종 염불선도량 **정토선원**
주 지 도 성
▶ 법회안내
약사재일(음) 8일 오전10시
지장재일(음) 18일 오전10시
관음재일(음) 24일 오전10시
미타재일(음) 15일 오전10시
가족법회 : 매월 1.3주 일요일 오후7시
어린이법회 : 매주(토) 오후2:30
청소년법회 : 매주(토) 오후4:00
청년회법회 : 매주(목) 오후7:00
신 도 일 동
■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15-5
TEL : 062)528-0108

불교학술세미나 '풍성'

28일~6월4일 7개 단체서 마련 '21세기 불교의 역할' 등 탐구

한 세기를 마감하고 맞는 새로운 세기, 21세기에 불교가 담당해야할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불교선학연구원, 한국불교학회, 한국종교학회 등 주요 불교학술단체들은 28일부터 6월4일까지 전환 시대의 불교를 조명하는 춘계학술대회(도표 참조)를 각각 마련한다.

'20세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주제로 28일부터 29일까지 서강대에서 제42회 전국역사학대회가 열린다. 28일에는 주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펼치고 29일에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역사교육 경제사 과학사 고고학 미술사 등 8개 분야로 나눠 발표가 이뤄진다.

한국종교학회(회장 길희성)도 서울대에서 29일 오전9시부터 '종교-20세기에서 21세기로'를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연다. 이날 불교분과에서는 박경준 교수(동국대)가 '21세기 문명의 불교적 모색'을 발표하는 등 종교계에서는 어떻게 21세기를 맞이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20세기 종언과 21세기 시작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준)의 부처님오신날 기념 학술대회는 31일 오후2시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20세기의 종언과 21세기 시작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사회복지적, 정토사상적 측면으로 접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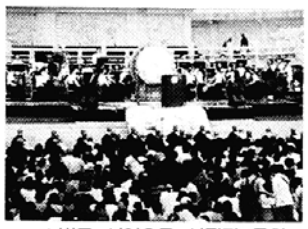
이밖에 경허선사에 열반 87주기를 맞아 펼쳐지는 한국불교선학연구원(원장 이은윤)의 제1회 학술회의는 28일 10시 서울 무불선원에서 '경허스님의 선사상과 역사적 위치'를 주제로 열린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경허스님의 선사상을 비롯해 선정관, 결사, 선시, 불교사적 위치 등이 발표된다.

28일 오후1시 동국대 학술문화관1층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인덕)의 제31회 불교학술연구발표회에서는 대승사상을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근본불교와 대승정신의 본질', '보리달마의 대승선이 미친 영향', '대승경전의 본성과 창조적 해석학의 과제'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의 비판불교의 비판적 검토 제1차 세미나는 29일 오후2시부터 동국대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판불교의 이론적 좌표', '비판불교가 제시하는 형이상학과 철학적 원리' 등이 발표된다. 6월4일 오후2시에는 동국대 교육연구원(원장 유시규)이 '한국불교 종단의 재가교육'에 대한 발표를 동국대 중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재가불자의 교육정책, 조계종·천태종·진각종의 재가교육, 한국 불교에 있어서 재가불자의 역할 등이 발표된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학술대회 일정

날짜	주 제	장소	주최
5월28일	경허선사 87주기 추모 제1회 학술회의 경허스님의 선사상과 역사적 위치	서울 무불선원	한국불교선학연구원 (02)541-0002
	제32회 춘계학술연구발표회	동국대 학술회 1층 덕암세미나실	한국불교학회 (02)2260-3122
	제42회 전국역사학대회(29일까지) 20세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	서강대	한국서양사학회 (02)705-8327
5월29일	춘계학술발표회 및 불교분과 정기발표회 종교-20세기에서 21세기로	서울대	한국종교학회 (02)880-6237
	비판불교의 비판적 검토 제1차 세미나	동국대 90주년 학술문화관 세미나실	고려대장경연구소 (02)797-0585
5월31일	20세기 종언과 21세기 시작을 위한 불교의 역할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02)720-6618
6월4일	한국불교 종단의 재가교육	동국대 중강당	동국대 교육연구원 (02)2260-3515



◇법고 시연으로 시작된 동화사 봉축음악회.

동화사 통일대불앞 초파일 봉축음악회 4천여 사부대중 '열기'

팔공산 동화사(주지 성덕)는 대구MBC와 공동으로 15일 오후7시 통일대불앞 특설무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동화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30여명의 운문사승가대생들이 올리는 저녁예불과 진표, 도일스님의 법고시연을 시작으로 2시간여동안 진행돼 산사를 찾은 4천여명의 시민들을 매료시켰다.

룸비니 동산에서 부처님이 탄생하는 장면을 무용으로 형상화한 이애주 교수의 불교무용 '비람강생상' 등 불교적 내용을 많이 가미시킨 이날 음악회는 무용과 음악, 대중음악과 클래식, 서양음악과 국악, 불교의식등을 적절히 섞어 훌륭한 앙상블을 이뤄냈다.

법현스님의 깊고 중후한 첼로음과 김일수씨의 감미롭고 애절한 섹소폰 연주는 동화사를 찾은 시민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테너 임산과 소프라노 김선애의 성악, 국민가수 이선희씨와 댄스그룹 코요테의 대중가요도 갈채를 얻어냈고 국악인 이호연 정은하 등은 태평가 박연폭포 등을 불러 노인들을 즐겁게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apia.com)

화제의 전시

송주섭씨 설치전
30일까지 통도사 성전암

삼천세계 사부대중의 염원을 담은 '테라코타 설치전'이 31일까지 통도사 성전암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설치전에서 작가 송주섭씨는 전통가마에서 구워낸 '인물' 테라코타 1천여점을 전시한다. 송씨는 아우성치는 듯한 표정을 짓는 인물 테라코타를 통해 동시대 불성을 찾는 불자들의 깊은 염원을 형상화 했다.



김기철씨 작품전
28일부터 롯데화랑

운회를 주제로 작품활동을 계속해온 화가 김기철(한국미술협회 이사) 씨의 개인전이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롯데백화점 11층 롯데화랑에서 열린다. 여러 가지 사물들을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표현하고 있는 김씨의 이번 전시회에는 이승의 벽을 넘어 더 넓은 깨달음의 시공으로 나가려는 작가의 의지가 엿보이는 '고리〈사진〉' 등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영양삼지동 모전석탑서
석재사리함 발견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영양삼지동 모전3층석탑(제83호)에서 사리함으로 추정되는 석재유물이 발견됐다.

영양군에 따르면 3층석탑 보수공사중 2층 옥개석 하부에서 돌로 된 두껑이 덮여진 채 발견된 이 석재 사리함은 가로 21㎝ 세로 17㎝ 높이 1㎝ 크기.

제작기법이 거친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재 사리함에서는 사리 1과와 입과 어깨 부분만이 형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깨어진 '녹색 유리 사리병', 사리병 뚜껑 표면의 '금박편' 등이 발견됐다.

영양군은 현장 보존을 위해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관리국에 보존 처리 및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또 탄화가 심한 종이류가 발견돼, 보존처리 성과에 따라 석탑과 절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 영양군 영양읍 상지2리 소재 영양삼지동 모전 3층석탑에서 4월28일 발견된 석재사리함.

지금까지 발견된 석재 사리함은 경주 분황사 3층석탑(국보 제30호) 해체·보수시 출토된 것이 유일하다.

오종욱 기자

달라이라마 10월 세계 6대도시 순회 종교음악제 연다

티벳의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10월 전쟁과 폭력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독일의 드레스텐 등 세계 6대 도시에서 '세계 종교음악 축제'를 마련한다.

달라이 라마는 17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간의 정신 속에 잠재된 내면의 갈망과 인식을 표현하는 여러 형식 가운데 음악이 아마도 가장 보편적이다"며 "다양한 민족과 종교, 문화의 사람들에게 평화와 동료애를 심어주기 위해 '세계 종교음악 축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불교도들의 영창, 그레고리오 수사들의 성가, 호주 원주민들의 토양 숭배의 노래, 아프리카 미국인들의 복음 음악 등이 공연되는 이 축제는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기점으로 독일의 드레스텐, 남아공화국의 케이프타운, 호주의 시드니, 일본의 히로시마, 인도의 방갈로레 등에서 각각 열린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加 토론토서 '고은시인의 밤'

캐나다 토론토 한국문인협회가 주최하는 '고은 시인의 밤'이 8일 캐나다 토론토 한인여성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낭송회에서 고은 시인은 '나의 문학과 인생'을 강연하고 시를 낭송했다. 김재홍 교수(경희대)는 한국문학, 고은의 문학세계 등을 강의했다.

7일에는 캐나다 요오크 대학 주최로 '북아메리카에 있어서 한국문학의 역할과 위치' 심포지엄과 시낭송회가 열렸다.

강지연 기자

홍순지씨 찬불가CD 출반

성악가 홍순지(37·불국사합창단지휘자)씨가 명상적인 음색으로 선계(禪界)를 노래한 찬불가 CD 앨범 '세속에서의 명상'을 내놓았다.

나용혜근, 부용영관, 청허휴정, 편양언기등 선승들의 선시(禪詩)에 전통 5음계를 적용해 심오한 선의 세계를 담아낸 10곡의 노래가 수록된 이 앨범은 불성 연마를 강조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표현했다는 평이다.

오종욱 기자





만해스님 탄신 120돌 삶-문학 집중조명 시집·소설 잇달아 출간

만해 한용운스님의 탄신 1백20주년을 맞아 만해스님과 관련된 시집, 소설 등이 잇달아 나와 눈길을 끈다.

미당 서정주시인의 〈한시선〉(민음사), 고은시인의 〈님의 침묵〉(민음사), 정찬주씨의 장편소설 〈만행〉(민음사 刊), 불교문학가 김호운씨의 〈님의 침묵(전3권)〉(밀알 刊)등이 바로 그것.

미당 서정주시인의 〈한시선〉은 만해 한용운스님의 한시 74편을 간추린 만해 시선집이다. 이 시선은 74년 '만해 한용운 한시선'이란 이름으로 출간됐지만 곧 절판되면서 잊혀졌다. 수록된 한시 중에는 '새로 밝은 날에'(원제 '新晴')같은 선시도 있지만 재가불자의 면모가 강했던 만해의 인간적 심경을 담은 것도 적지 않다.

정찬주씨의 장편소설 〈만행〉은 액자소설형식으로 '이 시대에 만해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해답을 찾아가는 구도소설이다. 교수 임용에서 번번이 떨어져 자살을 시도하는 주인공 민준이 만해의 속가제자인 지행을 만나 만해의 전기를 쓰면서 자신의 삶도 발견한다는 줄거리다. 저자는 만해평전을 읽다가 정인보선생이 '인도에는 간디가 있고, 조선에는 만해가 있다'에 감동해 출간하게 됐다.

김호운씨의 〈님의침묵〉은 사상가로서 만해의 삶을 다룬 평전소설로 6년전 펴낸것을 재정리하여 출간됐다. 고은시인은 만해스님 '시선집 〈님의 침묵〉을 이달말 민음사에서 출간한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남원 정령치 마애불 훼손위기

보물 1123호로 지정된 전남 남원 정령치 마애불상군에서 마애불상 2구가 추가 발굴됐지만, 관계당국은 지금까지 조사·보호 등의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아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남원향토문화연구회(회장 최명우, 이하 연구회)가 정령치에서 마애불상 2구를 추가 발굴한 것은 지난해 8월. 연구회는 이 지역의 불상수와 명문에 대한 조사와 보호각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 문화재관리국·전라북도·남원시에 재조사를 건의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예산문제를 들어 여태껏 추가 발굴된 불상에 대해 어떤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귀중한 국가문화재가 소멸 될 위기에 놓여버렸다. 마애불상이 조각된 바위의 석질이 약해, 불상과 명문의 흔적이 점점 소멸되어가고 있는 실정.

연구회는 "마애불상군을 계속해서 방치하게 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소멸될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지정문화재마저도 취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고, 관계당국이 빠른 시일내 정확히 조사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은사 사적기〉에 따르면 "신라 헌강왕 1년(875년) 도선국사가 불상군 주변에 개령암(開嶺菴)이라는 암자를 창건했다"고 기록돼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국내 최초 단행본 출간!
부처님은 전생에 청개구리였다!
부처님 전생이야기
서희건 엮음
(문화재 전문위원)
2500여년 전에 씌어진 우화처럼 재미있고 눈물겨운 부처님 전생의 보물창고 자타카!
부처님의 전생은 기구하기 짝이 없다. 까마귀, 거북이, 코끼리에서부터 아이 낳는 여자, 도둑으로도 태어났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부처가 되기 전 보살로 살았던 전생 이야기인 것이다. 이들 설화는 동화처럼 아주 재미있기도 눈물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나 아라비안나이트, 우리나라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전2권 | 각권 값7,500원〉

박삼중 스님의
인연 이야기
처음으로 고백한 삼중 스님의 진솔한 라이프 스토리!
세 명의 의붓아버지를 둔 기막힌 팔자 이야기부터, 출가·환속·출가에 얽힌 숨기고 싶었던 여자 이야기, 그리고 사형수의 대부가 되기까지 처음으로 공개한 자전 에세이!
서대문 구치소 담 뒤에서 태어난 삼중 스님! 첫돌날 부처님을 모독하고 세상을 등진 젊은 아버지, 형무소에 수감된 또 다른 남자를 시중들기 위해 여교도관이 된 어머니! 그 어머니의 거듭된 재혼으로 세 명의 의붓아버지 곁에서 눈칫밥 먹던 소년 시절. 그리고 맨발의 출가와 환속으로 이어진 구도의 길에 만난 여인들과의 애틋한 사랑과 이별, 재소자 교화에 나선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큰손 장영자, 강신명 목사, 최 소피아 수녀 등과의 만남에서부터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너무나도 질긴 인연 이야기들!
〈제1권〉 다시 태어나면 스님 안될래 | 〈제2권〉 그 만남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네
〈전2권 | 신국판 | 각권 값7,500원〉
문학수첩 전화: (02) 790-5999 팩스: 790-6656
http://www.moonhak.co.kr ▪ 이 책의 수익금(인세)은 재소자를 위해 쓰여집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1166-3858

간 병 인
정심깊은 불자간병인
교육받은 전문간병인 항상 대기로 유료 간병 서비스는 물론 무의탁 노인 등에게 무료로 간병 자원봉사
전화 02)363-7884
팩스 02)364-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

당뇨완치
대한불교원융종 **세운정사**
0671)626-4984
011)696-4848
FAX 0671)626-4980
전북 남원시 하정동 226번지
주지 : 진 성

불자님의 치아건강
全燦齒科醫院
JEON CHAN DENTAL CLINIC
서울시 양천구 목1동 405-97
(5호선 오목교역 6번출구)
상담환영 02)645-9746
頓悟 全 炳 燦 합장

강좌

토지판매
易학교육전문학원 교재로 만든
5주 속성 **易학** 학습지
100% 간편 적중 **용신** 公式集
농협 : 037-01-298413 (예금주)글향기
SBS 모닝와이드(운명을 배워 운명을 개척한다)에 박규병(전직교사·59)원장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5주 속성 프로그램 소개
易학교육전문학원 02)332-8729(代)

水脈 찾기 강좌
1.신비추 L-로드 사용법(목요일)
2.저렴하고 간단한 수맥차단제 판매
3.사찰요청시 무료수맥점검 실시
4.수맥상담 및 기타문의 환영
02)734-2118/011)239-6817
대붕 氣 살림

동양사상 공부하실 분
◆과목 : 참선지도, 불교경전 역원문, 노장사상, 관상, 육효, 사주, 풍수지리, 가상(家相)
※전강 탄허스님 문하에서 수학
◆강사 : 김 소 호 거사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출장상담도 해드림)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12호 **달마정사선원**
011)755-5333/02)914-6551

전통불교의식 연구원
02) 511-0108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화엄경 (80권) -1,400,000원
법화경 (7권) - 170,000원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김창본
011)545-7252 처 사

동양·역학 강좌
사주학, 성명학, 궁합, 택일, 개운법
기초이론 및 실제감정, 책임지도
◆ 金東炫 선생 직강 ◆
사단법인 한국역술인협회 학술위원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학술위원
◆ 도연 역학 연구원 ◆
문의 : 02)894-5233
·경기 광명시 하안동

전통불교의식 학인 모집
◆ 습의과정 ◆
도량석·쇳송·상단예불·각단예불·불공시식
대령관욕·신중작법·지장청·관음시식
다비의식·특별의식등
◆ 기본반·중급반·통신반 ◆
◆ 교육기간 : 3개월 ◆
전통불교의식연구원
☎02)511-0108

구인

기도하며 함께사실
노보살님을 모십니다.
김천 금봉사
0547)430-0049
0547)433-7765

불교용품

부전스님 구합니다.
절에서 같이 사실 분
(60~70대)
0458)333-9777
0458)333-5787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기도·공부·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기타

태 광 에 너 지
심야전기보일러
심야전기온수기
심야전기 온 돌
전기온돌판넬
확실한 시공 철저한 A/S
062)526-5345/ 019)612-0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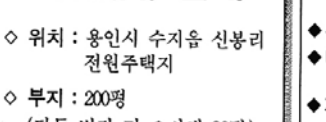
정신병 집중치료
환자 및 가족 비밀철대보장!
▶ 약물치료가 아님
▶ 귀신병 걸렸다고 생각되는 분
지리산 **묵계사** 011)596-9461

박민수 참선 교육원 T. (062) 251-2733 (017) 609-9068

견성-개인지도
Hint 물질도 허공도 이름도 아니다.
무엇이 그 몸을 끌고 다니는가?
필요-관심-의심-정진-깨달음

순수한 토종 염주열매가 여는
목암주 나무를 염가분양합니다.
062)222-6003(주간)
062)224-8895(주간)
062)234-0095(야간)

보이자
1kg (10만원)
■소타차 500g(10만원)
■칠자병차 3개(10만원)
茶道里
02)911-6798
017)406-6682

◇ 건강 (숯) 침대 ◇

●여름철 습기제거와 노화방지 및 숙면유도
●숯+오동나무+백송 (100%원목)
●숯(40kg)+오동나무 목침(1개)무료
02)935-3585/936-4383 해원공예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재 관리국 기능보유자 등록 제 962호
4불사 대웅전, 선방, 요사채, 종각, 산신각, 기둥은 육송만 사용. 그리고 4미터 이하도 육송을 사용해 드립니다.
▶시공사찰
용주사 용화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인사 비봉사 승가사 진관사 그외등등
현재 은선사 천운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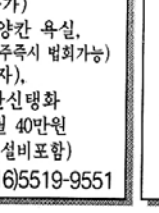
大慈大悲 달마도는 자연의 기운입니다
(KBS 2TV 달마도의 신비출연-98.7.24)

▶ 수성사
02)540-5926
무하합장
이사, 삼재 차량운행
수맥차단
5회의 불보살님 견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관음보살도 보급중>

기(氣)와 황토쑥뜸 치료
인생상담-질병상담문제아 무료상담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신경통, 당뇨, 비만증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병 기적같이 고쳐짐.
051)852-0067/011)453-861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82번지 **광불사**
주지 대 원 합장(氣 달마도 무료보급)

통광자기금침
세계최초로 특허를 획득한 자석+금침+은의 3가지 복합효과
실용신안등록 제118585호 보건복지부허가제조허가 131호 제품허가 31호
근육경직, 무릎, 어깨, 통증은 이제 그만!
동광자기금침은 이제 가정상비 필수의료품 입니다.
동양의 신비가담긴 금침과 인체에 좋은 자석을 결합하여 개발된 동광자기금침은 한방의학의 경락과 생체 에너지에 직접 작용하여 탁월한 효과는 물론 각종 통증을 치료하는데 더욱한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CATV 및 통신판매 중! 적은 투자! 고수익! 확신!
※ 지역총판 및 사찰판매점주를 모십니다 ※
제조원 동양전자의료기기 (주)판매원 東廣通商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5-11
대표전화 (0344)938-6292 FAX(0344)973-3505

귀 달마스님
◆사주 : 대운·행운·신수
◆작명 : 출세 문자 비법
◆관상 : 빈부 귀천 학당
◆풍수 : 자손 창성 번영
◆부적 :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시간 : 평 일 10:30~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15:00
02)999-5551 달마사

사람을 찾습니다.

▶성명 : 한말순
▶나이 : 69세
▶키:1m 50m
052)282-1490
0653)832-5769
017)546-1490
박차남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현대오뜸타워 104동 1004호

디몬 한방 옥베개
베개의 대혁신
머리가 무겁습니까?
■머리를 맑게 하는 특별한 秘方!
동의보감 「신침법」에 의한 32가지 한방약초와 우리나라 유명백옥의 자연정기가 머리를 맑고 시원하게 합니다.
■한방옥베개가 꼭 필요한 분
1. 신경이 예민하고 잠을 푹 이루지 못한 분 2. 잠자고 나도 머리가 무겁고 개운치 않은 분 3. 항상 목, 어깨가 뻐근한 분 4.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지는 분 5. 눈이 쉬 피로하고 머리가 맑지 못한분 6.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
세광산업(주) 주문처:02) 766-8273~4

벽지 바닥재
해인 인테리어
019) 369-8000

사찰안내

사찰 (급) 안내
◇위치 : 서울 ◇부지 : 58평
◇실사용평수 : 120평
◇법당 : 20평 ◇요사 : 50평
◇가액 : 2억 7천만원(급매)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전북
◇법당 : 25평
◇요사 : 40평
◇부지 : 130평
◇가액 : 2억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당 안내
◆위치 : 울산시 중구 우정동
◆평수 : 전체50평, 방 4개
◆본존불, 지장보살, 천불용 201불, 칠성산신 응왕불, 후불탱화, 신장후불탱화, 영가단, 신식건물, 시설일체 완비
◆가액 : 전세 일천만원에 월 45만원(권리비 2천만원)
052)245-3840,212-0691
011)557-3840

암자(급) 안내
◆위치 : 통영 바닷가 옆
◆대지 : 120평
◆가액 : 4,900만원
011) 582-1736

사찰 안내
◆위치 : 경기도 이천 소재 (서울 약1시간 거리)
◆대지 약 435평(건물5동), 대광전 27평 (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법전 거실 1, 방3), 요사 43평(방11 식당 화장실독립)
◆가액 : 3억 5천
◆특징 : 취락시가지 확정, 도면 열람가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오층지, 신고속도 건설중(서울근린지역), 녹지푸른 산을 낀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2)925-6118

포교당 안내
◆위치 :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평수 : 35평(포교 최적지)
◆가액 : 5천만원(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 ※
02)307-2616
011)416-2782/011)478-5979

사찰 안내
◆위치 : 천안 목천
◆부지 : 약 1천평 (종중땅)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용궁칠성각 요사채2동 석물미륵 탑등
◆가액 :1억2천만원
(꼭 필요한분 연락바람.)
02)838-2929
0417)566-5892

사찰터 안내
◆위치 : 대전시 동구 상소동 (대전역 20분 거리)
◆평수 : 임야 9,800평 밭 320평(준농림지)
◆용도 : 암자, 납골시설
◆가격 : 1억 2천(시세절반가)
042)525-5373
011)428-0805

사찰 안내
◆위치 : 전북 군산 시내에서 15분 거리
◆법당 주산포 22평, 요사채 50평,신축진물, 거실 大 1개, 방 4개, 목욕탕 3개, 부엌 20평, 다용도실 겸 창고 1, 태양열 온수기 한통 설치, 약수물 연꽃독 설치
◆대지 : 360평(대지 80평, 밭 172평) 총 612평
◆가격 : 2억 9천(절충가능)
※ 절옆에 3층 지방문화재 석탑 있음.
0654)451-2410
011)671-5161

사찰 안내
◆위치 : 전남 광양읍에서 10분 거리 (백운산밑)
◆건물 : 법당1칸, 방2칸
◆가액 : 1년 20만원
시설비 350 만원
0667)762-5909

사찰(급) 안내
◇ 위치 : 용인시 수지읍 신봉리 전원주택지
◇ 부지 : 200평 (단독 법당 및 요사채 30평)
◇ 가액 : 1천만원에 월 20만원
0331)283-7077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의성
◆대지 : 1천 12평, 법당 10평, 요사채 20평
◆지하수 170m, 주차시설 완비
◆가격 : 8천만원
0576)862-0319
011)9570-3533

사찰 전세 안내
◆위치 : 광주광역시내권 (전망 좋습니다.)
◆대지 : 300평
◆법당 : 50평
◆요사채 : 50평
◆가격 : 전세 6천만원
011)608-2669
017)602-2669

대지 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대호동 금정산아래 동신대학 뒷편
◇ 대지 : 250평
◇ 평당매매가 : 135만원 (가격 조정가능)
※사찰부지 입지좋음
※기초공사완료, 지하수개발완료
011)607-3155/012)601-4041

토굴 안내
◆위치 : 공주시 유구읍
◆대지 : 144평
◆황토벽돌,찻길연결되어 있음.
◆주변에 계곡 有, 경관수려
◆전용허가를 받은 집과 터.
◆가액 : 2천 5백만원 (상담후 절충가)
0416)841-6013

서울·부산지역 사찰구함(급)
⊙ 서울·부산시내 또는 근교 사찰이나 암자를 구합니다.
⊙ 전화 상담시 상담내용은 보안유지 합니다.
한국불사연구소 (02)561-7020

사찰안내
◆위치 : 울산시내 대단위 APT앞 (2500세대)
◆평수 : 30평
◆가액 : 2500만원 (월세가능) 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1)563-445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복현동 4거리
◇ 평수 : 43평, 2층의 2층 (옥상사용가)
- 법당,주지실,공양칸 욕실, 주차장 완비(입주즉시 법회가능)
- 삼존불(개금 4자), 후불·신중·산신탱화
◇ 가액 : 2천만원- 월 40만원 (보증금+시설비포함)
053)957-9551/016)5519-9551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 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산신탱화
◆ 시설 완벽
053)942-0700
011)501-2219

포교원 안내
◆위치 : 도봉구 방학2동
◆평수 : 25평
◆법당 주방시설 스님거처할방1
◆가격 : 전세 28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2)954-1289

사찰(포교원) 운영하실 분
◆위치 : 경기도 안산시 인구 밀집지역 ◆대지 : 85평
◆건물 : 법당17평, 주지실, 상담실, 거실, 방3개, 주방, 욕실(건평45평)
◆가격 : 일억 팔천만원 (매매가)
◆특징 : ●건축한지 3년 됐으며 사찰로 등기 되어 있어 어떠한 종교 행사도 할 수 있음. ● 건물 전면에는 주택 단지, 뒷면에는 야산에 산책로 조성되어 있음 (2K) ●전철역에서 택시 기본 요금거리 위치 (지하철4호선) ●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탱화 모셔져 있으며 법당 조성되어 있음. ● 단독주택이나 구조는 사찰용도로 건축하였음(현재 운영중) ●융자(오천만원) 할 수 있음
0345)419-3224 / 011)417-1008

여성불자 조직·신행 확대 모색

조계종 내달 26·27일 봉은사서 워크숍
해주스님등 강연…사회문제 참여 논의

"여성불자여, 눈을 뜨자!"

세상의 절반인 여성, 교계의 절반이 넘는 여성불자들을 위한 만남과 교류의 장이 교계 최초로 종단의 주도아래 펼쳐진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21세기를 앞두고 '여성불자의 새로운 모습'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6월 26일~27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연다.

포교원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세 차례의 교계 여성불자 예비모임을 갖고, 보다 많은 여성불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한다. 그동안 각분야에서 활동해 온 여성불자들이 한자리에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해 신행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여성불자들의 조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기획이다

이번 워크숍의 실무자인 한주영씨(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 간사)는 "여성들이 사찰과 종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보고자 워크숍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워크숍을 통해 여성불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불교가 여성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찰에서 활동하는 여성불자, 종단에서 일하는 여성종무원, 교계 직장여성, 불교단체 여성활동가, 여성문제에 관심있는 불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해주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이 '불교 입장에서 본 여성·여성운동'에 대해, 정미숙씨(경원대 여성학 강사)가 '페미니즘의 최근 경향'에 대해 강의한다. 또 신미숙씨(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간사)가 '사회 여성운동에 대한 소개'를 발제하며, 조혜란씨(경희대 여성학 강사)가 '불교 여성 단체 조직의 의의'를 발제한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증대되고, 정부에서도 여성발전특별위원회 등 여성정책에 관심을 쏟고 있는 현실에서 뒤늦게 여성의 역할에 눈뜬 교계의 이번 워크숍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02)720-7063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교계불자의 절반이 넘는 여성불자 조직을 위한 만남의 장이 펼쳐진다. 사진은 연등축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불자들.

청소년 단신

불교 청소년문학상 공모
시·소설등 10월20일까지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이사장 박용열)는 청소년 문학포교의 일환으로 제4회 한국불교청소년문학상을 현상공모한다.

자비실천의 미래지향적인 내용,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오는 10월 20일까지 시·시조·단편소설·희곡·시나리오·체험수기 등을 모집한다. (02)425-3002

어린이 맑은소리 발표회
함지골 청소년수련원

함지골청소년 수련원은 부산시내 초등학생을 위한 제10회 함지골 열린음악회 '어린이 맑은소리발표회'를 6월 5일 수련원 강당에서 갖는다. (051)405-5223

진주파라미타 창립 1돌
청소년 문화축제 열어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진주지회(지회장 구영석)는 2일 오후 1시~6시 진주시 대안동 차없는 거리에서 5백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창립 1주년 기념 청소년 문화대축제를 열었다.

인터뷰

명성여고 관음상 봉안 주역 김영희·이미자 보살

"학생들, 관음보살 가피 입어 자비롭고 지혜롭게 자랐으면…"



◇명성여고 고정에 나란히 선 김영희씨(오른쪽)와 이미자씨.

17일 오전 11시 불교종립 명성여자고등학교(교장 우하수) 교정에는 종립학교 최초로 관세음보살성상이 봉안됐다.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온 이 조성불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명성여고 불자어머니모임 수심회 김영희씨(98년 회장)와 이미자씨(99년 회장)는 이날 행사에서 "우리의 딸들이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을 따라 자비롭고 지혜롭게 자라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두 어머니는 "불교종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교내에서 불교를 대표하는 성상을 전혀 접할 수 없는데에 안타까움을 느끼다가 여러 어머니들이 뜻을 모아서 불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세음성상은 높이 2m의 청동으로 제작됐으며, 2천5백만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수심회 2백여 회원과 명성여고 동창회원, 교직원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이뤄졌다.

두 어머니는 "앞으로도 종립학교의 면모를 다질 수 있도록 법당을 정비하고, 장학사업을 확대하는 등 미래불교의 여성인재 양성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침체된 어린이법회에 활력을…
대불어·한불어 6월 지도자연수회

경제불황 등으로 침체된 어린이법회를 활성화하고, 21세기 한국불교의 기둥이 될 새싹불자 양성을 함께 연구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덕진)가 '슬기로운 어린이, 활기찬 미래불교'라는 주제로 6월5일~6일 경주온천관광호텔에서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실시한다. 여름불교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프로그램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연수회에서는 제1회 우수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경진대회도 열어, 우수 프로그램을 시상한다. (051)808-4569

한국불교어린이포교연합회(회장 지원)도 6월 26일~27일 중앙승가대학교 정진관 대강당에서 '제1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전국 어린이 법사·교사 연수회'를 연다.

캠프준비와 실제, 불교학교 운영방법등 실무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번 연수회 참가신청은 6월 10일까지다. (02)725-2201

여성 생활정보

자녀교육 위한 부모학교

서울 강북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자녀교유관 정립을 위한 부모학교'를 개최한다. 참가비 무료. (02)732-5560

여성 가장 직업훈련

강북 일하는 여성의 집은 텔레케뮤니케이터, 컴퓨터 오퍼레이터, 제과재빵사 과정 등 '여성가장 실업자 훈련과정' 4개 프로그램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이루어지며 모집기간은 27일까지다. (02)980-2377

주부신행담

진흙속에 피는 연꽃①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변함없는 연꽃과 같이 본래 깨끗한 자기 자신을 혼탁함에 물들이지 않는다'는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남편과 나는 옷맵시를 가다듬고 108배를 시작했다. 이젠 108배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서인지 쑥스러움이나 머슥함없이 편안하다.

예전의 난 오늘과 같이 안정된 삶이 있으리라고 생각지 못했다. 남들도 그렇겠지만 고통의 나날이다 싶을 정도로 힘겨운 젊은 날을 보냈다. 지금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나를 제도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시험하시며 공부하게 만드셨던 것 같다.

결혼 한지 불과 2년 만에 남편이 직장에 사표를 내게 되었고, 우린 친정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그렇게 1년을 살았을까. 때론 막일도 마다하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하던 남편은 대학선배가 알선해 준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되었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하는 기대도 잠시 친정어머님이 집을 팔아 마포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또 다시 우리 가정엔 소용돌이가 일었다.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친정어머니를 따라 이사한 게 화근이었다. 시집 식구들은 별 말씀이 없으셨지만 불편한 기색을 보이시며 나를 힘들게 했다. 7남매 중에 막내로 형들이나 누나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남편도 친정에서 사는 것을 못마땅해하고 불편해 했다.

급기야 남편은 매일 저녁 12시가 되서야 들어오기 시작했고, 신경을 곤두세울 대로 세워 조그만 일에도 싸울 기세였다. 결국 6개월만에 친정 집에서 나와 잠실로 이사를 했다. 못난 자식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 싶어 나는 일주일을 울면서 보냈다. 그런 내 모습이 측은했던지 남편은 "미안하다. 그 동안 잘못이 많다"며 사과를 하였다.

그 후 남편은 장사를 시작했다. 좁디좁은 단칸방에 옷장도 없이 TV와 서랍장만 놓고 살면서 가게 일에 매달려 살았다. 친정어머님은 오셨다가 울면서 나가시고 주위에 아는 분들도 안타까워 하셨을 정도로 힘겨운 생활이었다. 남편도 겉으로야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론 창피했던지 친구들이 집에 오려하면 이 굉계저 굉계를 대 못 오게 하곤 하였다.

그래도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고 장사에도 재미가 붙어갔다. 근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남편이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고 말았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남편이 다른데 사무실을 차려놓고 회사서류를 빼내고 있다는 이유였다. 남편 부하직원의 모함으로 남편은 어이없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 버렸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은 내가 하는 장사에 전화를 한대 더 놓고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분하고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던지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못 이루더니 남편은 오히려 나에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며 용기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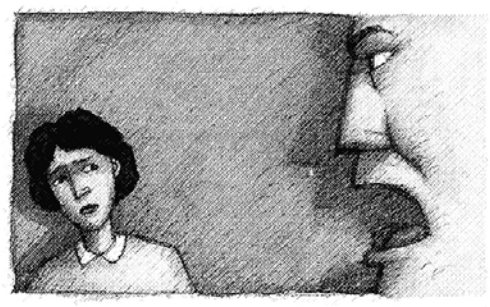
마음이 고달팠던 나는 불광사를 찾아가게 되었다. 절 집 분위기가 낯설기만 했던 나는 법당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며 우리 가족 화목하게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며 가족의 화목을 소원했던 내 기도가 가족들에게 전해졌던지 남편과 아이들이 별 거부감 없이 매달 초하루 나를 따라 불광사에 다녔다. 나중에는 가족 모두가 아침 일찍 깨우기도 전에 일어나 씻고 깨끗하게 차려입고는 절로 향하였다. 물론 가게 일과 남편 사업도 잠사 쉬었다.

남편의 실직과 가게의 어려움으로 많은 번민에 싸여 있던 나에게 부처님은 든든한 울타리로…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부처님은 알아주실 것 같았다. 그리고 나의 일을 보살펴 주실 것 같았다.

아이들도 착하게 잘 커 주었고, 자기들 나름대로 소원을 빌며 신행생활을 해 나갔다. 나 또한 가게 일은 일대로 하면서, 남편과 아이들을 챙기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제대로 다리를 펴고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고달팠던 하루를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었던 것도 잠시, 난 남편으로부터 받는 질시 때문에 정신적 고달픔을 느껴야 했고 서서히 지쳐갔다.

남편을 돕는다고 돕는데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동안 해 본 일도 아니고 해서 실수가 없을 수가 없는데도 그 때마다 남편은 험한 말로 나를 못살게 굴었다. 심지어는 한 두달씩 말도 하지 않고 외면하기 일쑤였다. 몸이 피곤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정신적으로 미쳐 버릴 지경이었다

강경아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그림·문병성

남편의 실직과 가게 어려움으로 많은 번민에 싸여있던 나에게 부처님은 든든한 울타리로…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법회안내

봉은사 일요법회서 법문



무진장스님(동산반야회 법주) 30일 오전 10시 봉은사 일요법회. (02)511-6070

30일 정토회서 설법



성일스님(신흥사 청소년수련원 원장) 30일 오전 11시 정토회 일요법회 '사바세계에 부처님의 향기를' 주제 법문. (02)587-8994

초하루 '유마경' 법문



일연스님(동학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유마경〉 법문. (042)825-2570

매주 木 법화경 강의

정환담(광주 금융회 회장)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일반법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청년회법회.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미타회 법회.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법화경〉 강의. (062)224-0175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5월26일 (수)



◇바자회에서 저렴한 가격에 물품도 구입하고, 불사기금도 지원하자.

■ **승가원 종합복지타운 건립기금마련 대바자회**=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28일까지 동국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횡성 종합복지타운 건립기금마련 대바자회를 갖는다. 이 바자회에는 의류와 생활도자기, 한지공예품, 불교용품, 음식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02)928-0750

5월27일 (목)

■ **능인선원 운문사 순례법회**=능인선원은 오전 6시 청도 운문사로 5월 순례법회를 떠난다. (02)577-5800

5월29일 (토)

■ **'밀레니엄을 위한 인간형' 강좌**=정토회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에서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상임공동대표 서영훈씨가 '밀레니엄을 위한 인간형'을 주제로 강연한다. (02)587-8994

■ **파라미타 청소년 사경공모전 시상식**=파라미타 전국청소년 사경 공모전 시상식이 오후 3시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02)723-6165

5월30일 (일)

■ **제6회 장애인 나들이**=오전 10시 우리는 선우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제6회 장애인 나들이 및 무료 급식을 서울 장충단 공원에서 연다. (02)2278-8672

■ **'마음의 전화' 종합예술대전**=마음의 전화는 오전 10시~오후 3시 동국대 정각원, 만해광장에서 초중고, 대학생, 지도자를 대상으로 제4회 종합예술대전을 연다. (02)382-5788

■ **수화찬불가 발표회**=광림사 연화복지학원 수화찬불가 발표회가 오후 3시 불교방송 3층법당에서 열린다. (02)2202-5831

5월31일 (월)

■ **강남포교원 노인회 성지순례**=강남포교원은 오전 8시 30분 공주 갑사로 노인회 성지순례를 떠난다. (02)539-2631

6월1일 (화)

■ **국토문화硏 해인사·직지사 순례**=국토문화연구회는 오전 7시 30분 합천 해인사와 김천 직지사, 청암사 등지로 순례를 떠난다. (02)2261-1313

6월2일 (수)

■ **금강호 통일기원법회**=현대 금강호 선상에서 오후 5시30분 통일기원법회 및 방생법회가 봉행된다. (02)732-4885

6월3일 (목)

■ **'넋의 소리' 공연**=불교무용단창단공연 '넋의 소리'가 4일까지 동국대 문화예술극장에서 펼쳐진다. (02)2260-3607

6월5일 (토)

■ **우룡 큰스님 친견 및 경주 남산 순례**=불교신행연구원은 6일까지 1박2일간 불국토 실현의 얼이 깃든 경주 남산으로 6월 불교문화기행을 떠난다. 학성선원 조실 우룡스님의 법문도 듣는다. (02)582-6613

6월6일 (일)

■ **금강메아리 산행법회**=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는 오전 9시 도봉산 우이동 그린파크에서 출발해서 원통사, 만장봉, 망월사 등지로 산행법회를 떠난다. (02)772-9517

6월8일 (화)

■ **군승단 군승하안거**=군승단은 10일까지 2박3일간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군승 하안거를 실시한다. (02)749-8646

게 시 판

♣ 알림

▲**무료 건강수지침봉사**=강북증합장애인복지관은 6월 5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2시~5시까지 무료 건강수지침 봉사를 실시한다. (02)989-4215

♣ 강좌

▲**불교문화센터 제27기 문화강좌**=불교문화센터 제27기 문화강좌가 개설됐다. 이번 강좌에는 〈선가귀감〉 강좌, 〈금강경〉강좌 등과 불화그리기, 불교전통꽃꽂이, 요가 등 총 42개 과목 59개 강좌가 진행된다. (02)703-0108

▲**선기공 선호흡**=성불사는 매주 월요일~금요일 새벽 6시,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 선호흡 선요가 선기공 선무도 등을 지도한다.(051)747-7017

▲**불교교양대학**=성불사는 제3기 불교교양대학 강좌를 연다. 기초교리와 사찰예절, 불교역사, 불교미술, 경전강의 등을 지도한다. (051)747-7017

▲**사랑의 수화교실**=삼전종합사회복지관이 제3기 사랑의 수화교실을 연다. 매주 월, 수요일 오전 10시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02)421-6077

▲**발마사지 초급반**=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27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발마사지 초급반 강좌를 진행한다. 2개월 과정에 참가비는 4만원이다. (02)2282-1100

▲**기초교리**=실상선원은 매주 수, 목요일 오전 8시, 저녁 8시 불교기초교리강좌를 연다. (0346)562-6903

▲**성훈따주기**=수효사문화원은 6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성훈따주기 강좌를 연다. 지도는 원장 무구스님이 한다. (02)313-5037

♣ 모집

▲**복지관 자원봉사자**=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차량지원봉사, 밑반찬, 학습지도, 가사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51)271-0560

▲**무의탁노인 후원자**=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무의탁노인과 저소득노인의 생계비 또는 용돈을 지원해 줄 후원자를 기다린다. (053)476-7700

▲**북녘어린이 돕기 결연자**=한국제이티에스는 북한어린이를 돕기위한 결연자를 모집한다. 매월 5천원의 현금을 후원할 수 있으면 된다. (02)587-8998

▲**노인공양 자원봉사자**=불교신행연구원은 장충단공원에서 실시중인 결식노인 점심공양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582-6613

▲**노인주간보호센터 이용자**=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40분~2시 40분까지 열리는 주간보호센터 이용자를 모집한다. 65세이상 고령자 및 거동불편 노인이어야 한다. (02)365-3677

▲**장애인 결연후원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불우 장애인과 결연 맺어 매월 1만원 이상후원해 줄 후원자를 기다린다. (02)989-4215

▲**학습지도 봉사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소년소녀가장, 결손아동, 청소년을 위해 학습지도를 해 줄 봉사자를 찾는다. 주 2회 중고등학생 학습지도가 가능한이면 된다. (02)852-0525

▲**탁아방 물품후원자**=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탁아방 물품후원을 기다린다. 장난감, 인형, 동요테이프, 아동용 테이블, 의자, 카페트 등을 지원해 주면 된다. (02)571-2988

♣ 답사

▲**강원도 야생화, 산채탐사 생태기행**=맑고향기롭게는 30일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와 북대사를 참배하고, 강원도 고산지대의 야생화와 산채 등을 탐사하는 생태기행을 떠난다. 회비는 1만5천원. (02)741-4697

♣ 화촉

▲월간〈불교〉·한국불교신문 송금엽 주간의 차녀 **경민양**이 김이규군과 29일 토요일 오후 1시 여의도 교원공제회관 15층에서 결혼식을 갖는다. (02)745-1614

▲前 주간불교 주필 최유심씨의 장남 **치범군**이 30일 낮 12시 서울 구로구 웨딩케슬예식장 신관에서 송은정양과 화촉을 밝힌다. (02)837-0100

♣ 부음

▲밀알출판사 이경용 사장의 모친 **김금녀씨**가 18일 별세했다. 고인은 전북 부안군 상서면에 안장됐다. (02)529-0140

종단소식

조계종

백양사 참사람 수행결사

장성 백양사(주지 다정)는 7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13~16차 참사람 수행결사대회를 백양사 수행관에서 연다.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13차 참사람 수행결사의 모집인원은 46명으로 접수기간은 7월 6일까지. (0685)392-7502

금산사 사진촬영대회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6월6일 오전 10시 경내에서 제1회 전국사진 촬영대회 및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를 위해 금산사는 행사 당일 살풀이춤, 승무, 바라춤, 연등제작 등을 시연한다. 상금은 금상 1점에 1백만원, 은상 2점 50만원, 동상 3점 30만원, 입선 40점 각 5만원. (0658)548-4441

태고종

무사고 기원등 보시

수락산 염불사(주지 호명)는 15일 신도들이 직접 제작한 차량용 호신연등 5천개를 수락산역 도로에서 운전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백진결사 재소자 위문

젊은 승가모임인 백진결사(회장 일로)는 19일 영등포구치소에서 부처님오신날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수용자 71명에게 수계식을 거행했다. 백진결사는 이날 무의탁자와 외국인수용자 100명에게 영치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

천태종

상월대조사 25주기 열반재

상월 원각대조사 25주기 열반대재가 6월 10일(음력 4월 27일) 단양군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서 봉행된다.

종정 도용스님의 증명아래 봉행되는 이번 대재에는 운덕총무원장 스님등 종단 스님들과 지역 기관장, 신도 등 2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다. (0444)423-7100

진각종

전국청년회 등반법회

전국청년회(회장 선상신)는 30일 월악산에서 등반법회를 갖는다. 청년회원들의 친목도모와 신심증장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이번 등반법회에는 청년회원 70여명이 동참한다.

대한법화종

15대 총무원장 운경스님



제15대 총무원장에 주운경스님(서울 보흥사 주지·사진)이 선출됐다. 운경스님은 1972년 경북 봉화 보덕사에서 김하산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법화종 3부장 및 포교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포교원장에는 법찬스님이 선출됐다.

원효종

원효열반 1313주 추모재



원효성사 열반 1313주기 추모대재가 14일 오전 11시 부산 금수사〈사진〉, 오후 2시 서울 효창공원내 원효성사 동상 앞에서 각각 봉행됐다. 종단협 주최 원효종 총무원 주관으로 효창공원에서 열린 대재에서는 사부대중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이 법어를, 성초 진각종 통리원장이 추모사를, 청운 원효종 포교원장이 발원문을 봉독했다.

진언종

종단기 게양 초파일 홍보

15일부터 22일까지 영동대교와 반포대교, 천호대교, 종로 탑골공원에서 종로5가에 이르는 거리에 520여개의 종단기와 봉축캐릭터기를 걸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종단을 홍보했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

생리통 · 기미

저는 3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겸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목무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직원 모집 공고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는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전국지원법인으로서 서울시로부터 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하게 되어 책임감과 창의성을 갖고 노인복지의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인원	자 격 요 건	공통
부장	1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경력5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노인복지경력5년 이상인 자	1. 운전면허증 소지자 2. P/C사용 가능자 3.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자
선임 사회복지사 (과장)	1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사회복지경력5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노인복지경력5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	7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소지자	
총무과장	1	해당분야 경력5년 이상자	
물리치료사	2	물리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조리사	1	조리관련 경력자	
영양사	1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운전기사	1	1종 면허증 소지자	
보일러기사	1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리	1	해당 분야 경력자	
서무 경리	3	서무 경리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1. **제출서류**: 1. 입사 신청서1부 2. 이력서(사진첨부) 1부 3. 자기소개서(A4크기) 4. 주민등록등본 1부 5. 졸업증명서 1부 6. 성적증명서 1부 7. 자격증 사본 1부 8. 경력증명서 1부
2. **접수기간**: 1999년 5월 25일~1999년 6월 8일(09:00 ~ 17:00) 우편제출시 6월8일 도착분 까지 유효
3.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면접일시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4. **근 무 처**: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66-25 **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5. **서류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22 (우 136-132)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 법인사무국
전화 (02) 942-0144~5 전송 (02) 942-0146
※ 입사 신청서는 전송가능함.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마음처럼…

병원부설 **빛고을 장례 예식장**
(장례문화의 혁신)

회 장 : 혜 정
대 표 : 이장국

임직원 일동

♣ 병원부설 장례예식장 층별안내
- 지하 : 영안실 장례용품실
- 1층 : 꽃집, 약국, 청과, 매점, 떡집, 식당, 생선
- 2층 : 201호, 202호, 분향소
- 3층 : 301호 302호, 303호 분향소
- 4층 : 401호, 405호, 분향소, 안내사무실
- 5층 : 501호, 502호 분향소
- 6층 : 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 안내 사무실
- 7층 : 호스피스, 치매병동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288-7
(계림 동광고 앞 우성병원 옆 건물)
전화: 062-225-2444/ 팩스: 062-226-4729

"록음악 타고 부처님 오셨네"

21일 결식아동돕기 록 페스티벌 청소년 1천명 환호

카르마 · 시나위 · 부활등 록그룹 '한자리'

"사오정은 수궁계/모든 잡귀 막아서/삼장법사 모시고 /경을 구해 평화 얻네// 랄랄라…"

찢어질 듯한 전자 음악의 반주에 맞춰 신세대 찬불가요 '사오정'이 흥겹게 울려 퍼지자 1천여 청소년들이 일제히 박수치며 박자를 맞춰준다. 21일 봉축기념 결식아동돕기 록 페스티벌이 열린 잠실올림픽 공원내 펜싱경기장.

불자들로 구성된 록그룹 '카르마'를 비롯해 시나위, 부활, 신촌 블루스, 김경호 등 국내 정상급 록 그룹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화려한 사이키 조명과 자욱한 안개 특수 효과 사이로 무대 위에 등장한 그룹 '카르마'. 스피커가 찢어질 듯이 열정적인 음성으로 "…유심속 진리있어 부처님 그 말씀에 육신닦고 마음을 비우면 이세상 누구라도 생불이라네 …"('무심유심' 중)를 부르며 부처님 가르침을 흥겨운 리듬에 실어 전한다.

"박수만 치지 마시고 이 뜨거운 음악이 온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 다 울려 퍼지게 온몸으로 보여 주세요."보컬 리더 김지웅이 소리치자 기다렸다는 듯 청소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온몸을 흔들어 대며 환호를 보낸다. 한 손에 야광봉을 들고 무대를 향해 팔을 뻗치는 남학생, 머리위로 두 손을 들어 박수치며 노래를 부르는 여학생, 친구들과 어깨동무 하며 제자리에서 깡총깡총 뛰는 사람 등 역시 신세대 청소년들은 표현 방식이 다양하고 솔직하다. 경건하고 조용한 찬불가와 달리 시끄럽지만 발랄하고 젊은이들의 호응이 높은 록에 실린 불음(佛音)을 듣는 청소년들의 반응 또한 예상외다. 신선하고 감각에 맞아 좋다는 것. 젊은 청소년들이 불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계에선 처음으로 시도된 봉축 록 페스티벌.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록 찬불가의 가능성을 보여준 이번 공연은 청소년 포교의 새로운 방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세대 감각의 록 리듬으로 바꾼 불교 록그룹 '카르마'의 열창하는 모습.

종교인 1080인 인권선언

19일 불교인권문화제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인 1천80명이 19일 조계사에서 인권선언을 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조계종 사회부와 실천불교승가회, 조계사가 주최해 19일 조계사 대웅전앞에서 열린 제1회 불교인권문화제에는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하여 이땅에서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1.2.3부로 나뉘어 진행된 인권문화제에서 함세웅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가 낭독한 인권선언을 통해 1080명 종교인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짓밟아온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재해야할 명분도 가치도 없다"며 "우리 종교인들은 모든 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명실상부한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의 창설을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문성근(영화배우)씨의 사회로 '99 이땅의 자비와 평화를' 주제의 콘서트가 열렸다. 콘서트에는 송시현, 김무한, 솔리스트, 권진원, 꽃다지, 최희준씨가 출연하여 참가자들에게 음성공양했다.

이에앞서 불교인권문화제 특별행사로 나눔의 집 할머니와 장기수들의 만남이 음식점 초향에서 있었다. 이날 콘서트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민가협과 불교장기수후원회, 조계사 농성단에 전액 전달됐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전통혼례 - 노인잔치 - 문안전화

교계복지관 초파일프로 '독특'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찰 및 교계 복지관이 다양한 행사와 독특한 프로그램이 마련하고 있다.

자양사회복지관(관장 공영애)은 관내 70세 전후의 생활보호대상자중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1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26일 오전 11시 한강 워너스 마리나 선상무대에서 민속전통혼례를 개최한다. 또 혼례식과 함께 지역내 독거노인 130명을 초청해 칠순잔치도 연다. (02)458-1664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무의탁노인 요구르트 배달 사업'과 '어르신 문안 전화' 후원자를 모집한다. 요구르트 후원은 노인 1명이 1년간 요구르트를 먹을 수 있도록 4만원을 후원하면 되며, 문안 전화는 무의탁 노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안부전화를 하는 자원봉사형식이다. (02)2282-1100

부산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현)은 6월4일 관내 사하구 거주 노인 7백여명을 대상으로 송광사를 참배하는 '제2회 어르신 일일 나들이'를 개최한다. 세계노인의 해를 기념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 1백여명이 함께 동행하며, 레크리에이션도 진행될 예정이다. (051)265-9471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는 남양주시 복지과와 함께 지역노인 2백여명을 대상으로 27일 낮 12시 경로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며, 서울 수효사(주지 무구)와 홍은동 현성정사(주지 현성),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혜창)은 지난 19, 20일 각각 경로잔치 행사를 가졌다. 또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과 고성 운흥사(주지 능륜), 양양 낙산사(지홍)도 13·15·17일 각각 노인잔치를 개최했다.

한명우 기자

뉴스 & 뉴스

두레회, 소쩍새마을 위문

행정자치부 간부 부인회 모임인 두레회(회장 김현옥)는 지난 15일 소쩍새 마을을 방문, 위문품과 후원품을 전달하고 세탁, 목욕, 식사제공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장·차관 부인 등 두레회 회원 25명은 수용시설을 둘러보고 횡성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위해 펼쳐지고 있는 '벽돌 1백만장 쌓기 운동'에 등참했다. 94년 발족한 두레회는 불교·기독교·천주교 신자 등으로 구성된 종교를 초월한 봉사모임이다.

한명우 기자

19일 호국용마사 개원

육군 제51 탄약대대는 19일 의정부 관음종 관음사 주지 정암스님을 증명법사로 호국용마사 개원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대장 김명규 중령과 최혜명 지도법사 등 장병불자 2백여명이 참석했다. 김재경 기자

외국인노동자 장기자랑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은 16일 석왕사에서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스리랑카등 외국인노동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축제를 열었다.

이날 외국인노동자 장기자랑에서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의 전통가요, 춤공연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김원우 기자

네덜란드인 영가천도재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왔다가 회생당한 네덜란드인을 위한 영가천도재가 열린다.

심우회(회장 김명원)는 한국항해탐험연구소(소장 채바다)와 함께 6월 1일 중문해수욕장에서 영가천도재를 열고 '하멜표류기'를 써서 한국을 유럽에 처음으로 알린 이들의 은덕을 기린다.

한편 채바다소장은 "하멜의 도착지점은 지금까지 알려진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관광지구가 아니라 중문해수욕장"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우 기자

스님 형이 전도사 동생에게 장기기증 뇌사아들 장기 4명에 새 삶

전남 장성 백양사 운문암에 기거하며 수도정진하고 있는 계성스님은 경남 진주에서 전도사의 길을 걷고 있는 동생 홍상씨(31)에게 지난 1월 망설임없이 신장을 떼준 사실이 20일 알려졌다. 신장조직이 맞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 가는 길이 달라 일년에 한 번 얼굴 보기 힘든 상황에서 뜻밖에도 형이 병실을 찾아왔고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만성신부전증으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던 홍상씨는 이제 다음달이면 목회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계성스님은 "비록 가는 길이 달라도 사는 이치는 같은 것 아니냐"는 한마디 말만 던진고 다시 절로 떠났다.

충남 당진에 사는 김성희(38)·조미라(36) 부부는 5월10일 용인 에버랜드로 소풍을 가던 중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아들 덩이군(11, 당진 신평초등학교 4년)의 장기를 기증. 19일 아주대학병원에서 간, 신장, 심장판막 등 장기이식 수술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주었다. 이들 부부는 부산 나란정사에 다녀던 독실한 불자로,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게 덩이의 뜻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덩이군의 동생이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처지에서도 장기를 기증해 주위사람들의 더욱 애틋하게 만들었다.

이들 부부는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 자리에서 아들의 뜻을 잇기 위해 사후 각막기증, 뇌사시 장기기증 등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생명나눔실천회에 밝혔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봉은사, 공부도량으로 탈바꿈

봉은학림 개설…6월14일부터 한달간 화엄특강

멎 차례 분규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 봉은사가 공부하는 도량으로 탈바꿈. 그 동안 실추됐던 이미지를 개선하고 포교와 수행을 선도하는 '새 봉은사 만들기'에 나섰다.

봉은사(주지 원혜)는 19일 포교와 함께 수행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나아가 불교미래를 위한 으뜸도량으로 태어나기 위해 '봉은학림'을 개설했다. '봉은학림'은 특정과목을 일정기간 강의하는 특강형식으로, 서울 경기지역 스님 70명을 대상으로 6월14일부터 7월15일까지 화엄경 입법계품을 강독경전으로 한 '화엄특강'을 실시한다. 학림개설 취지에 맞춰 각 대학 교수 및 화엄경을 수강할 수 있는 일반불자 50명을 청강생으로 받아들인다. 강의는 매주 월·화·수·목요일 진행되며, 강사는 각성스님(화엄학회 회주), 봉은사는 1차 강좌를 진행하면서 향후 봉은학림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봉은사는 '봉은학림'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필요에 따라서는 화엄학림이나 능엄학림과 같은 종단교육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봉은학림의 실무를 맡고 있는 봉은사 현기스님(기획실장)은 "봉은사 이미지 개선은 물론 도심 속의 공부하는 사찰로 변화하고자 하는 봉은사의 학림 개설이 도심의 여러 사찰들에게도 전파돼 공부 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02)516-5652

한명우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밝은길 아바타센터

◐아바타 코스는 7·9일 결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9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016-228-2358

소쩍새마을 자비의 등 1천여개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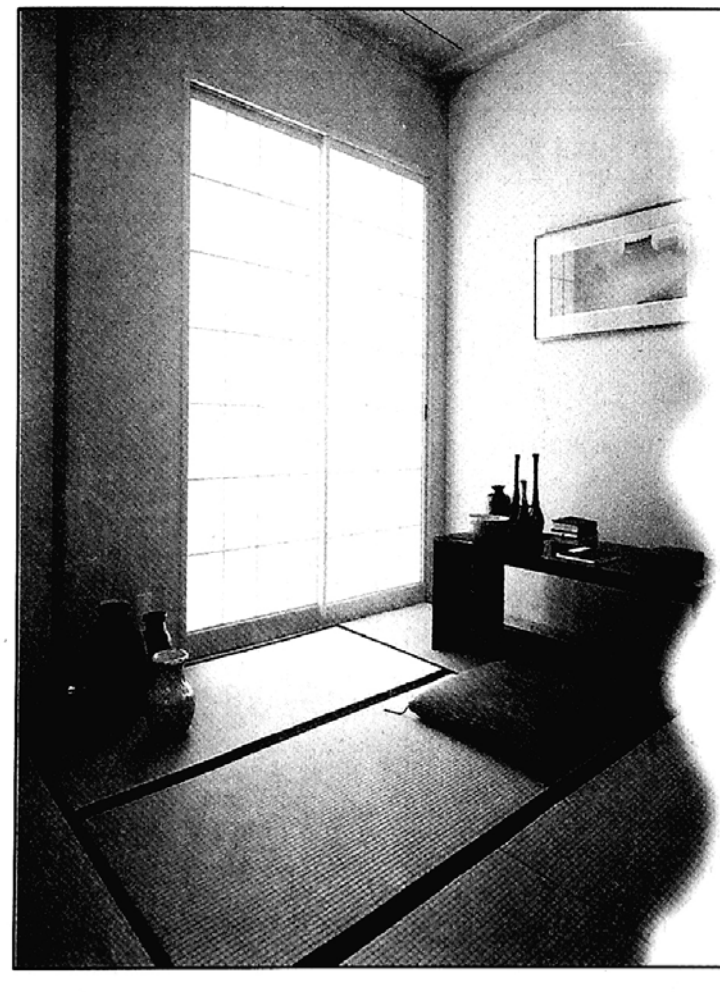
승가원과 현대불교신문사가 이달 21일까지 소쩍새 마을을 후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결친 '소쩍새 마을 자비의 등 밝히기' 결과 총 700여명의 동참 속에 1천여개의 등이 소쩍새 마을에 걸렸다. 후원금도 1천만원에 이를 정도로 참여열기가 높았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로 불자들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었다.

혼자서 10개의 등을 후원한 불자, 장애인 친구를 위해 등을 달아주고 싶다며 후원신청을 해온 어느 중학생, 신도들과 함께 후원금 1백만원을 들고 본사를 직접 찾아온 해인사 일본 포교원 평성사 주지 해운스님. 이들 모두의 정성은 이 사회를 밝게 비추는 꺼지지 않는 '등불'로 피어올랐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얻은 후원금은 소쩍새마을 지원과 강원도 횡성 종합복지타운 이전불사 기금으로 쓰여진다. (02)928-0750 한명우 기자



◇장애인등 소외된 이들이 모여사는 소쩍새마을에 십시일반 자비의 등 1천여개가 환히 불을 밝혔다.



C.M.M INDUSTRY
division of KWANG SAN.

21C 신제품
순동수맥「다미론」사계절용 등심초 매트
◆전국시도 특약점 모집중

여러분 사찰의 모든 공간을 경제적이고 품격있게
연출하고자 하실 때 다미론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미 많은 불자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허등록 제020C029호. 상표등록 제418243호. 다미론베드 특허출원 10-1999-0014792호)

저희 CMM 실업은 지난 50여년간 전통적 소재이고 자연재인 등심초 자리 바닥재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온 광산기업에 그 뿌리를 두고 불자님들의 건강과 생활의 격을 경제적으로 한껏 높혀드릴 수 있는 다미론을 개발하여 전국사찰과 불자님의 댁으로 보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불자님들께서 다미론의 세련된 디자인과 사용의 경제성에 찬사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본사)서울 마포구 창전동 3-68 덕성B/D 203호 Tel:02-332-2799 Fax:02-332-2799
공장)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206-2 광산B/D Tel: 062-526-1633 Fax:062-524-4123
(Internet Homepage)http://cmm.bz.co.kr (E-mail)cmmhome@chollian.net

*전국 소량 배송가능 「제 품 사 양」 (단위 mm)

구분		내 용
개요	시이즈	910×1,820×10(조정가능-축소가능) 약2매 / 1평당
	색 상	미론플색(미색)
	중 량	A,B형 5Kg/ 1매
	재 질	피질 등심초 돗자리
		심재 A형 폴리에틸렌고압축발포가교판+나망합판
		B형 상동+순동(99.9%) 조밀망
	A형 기본 B형 수맥 방지	이김 앞면 나일론직물(레리) - 일본산
		바닥면 고급 부직포
		가금 공업용스테플접합+글루건접합
발주기능량		3,000 ~ 5,000매 / 30일
제품 특성		접철가능, 보관 및 이동관리 용이 제품자체 보온, 보냉효과 우수(사계절사용가능) -냉,난방비 대폭 절감 비흡수성 심재 사용으로 위생적 다미론 베드-비접치 접목시설 완전조립식 수맥파 방지(B형)-각종수면장애 건강장애 개선효과 수요처별 사용해수에 따라 가격조정가능 시공용(부직포미사용)에는 시공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마음처럼 …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神學, 太極禪院

太極禪無道
참선·기공교정

院長 姜法性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681-16
TEL : 051)552-7972

간판

세상을 밝힙니다. 아름다운 SIGNES.

· NEON SIGN
· 파나플렉스
· 오닝 SIGN., 현수막
· 대리점 간판제작관리 A/S

광고세상 거보

■ TEL : 본사(代) 051)338-2222
영업소 051)867-6667

대한불교 조계종
혜원정사

조실 고산 혜원 대화상
주지 효명

고산장학회
선지식회
자비회
만불회
지장회
관음회
연꽃부부회
청년회
학생회·어린이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1113-1
TEL : 051)866-7771~4
FAX : 051)866-7777

부산광역시
서구불교사암연합회

고문 포광
회장 보광

수석부회장 월봉 섭외부장 성각
운영위원장 정년 사회부장 종고
운영위원 능지 교화부장 성부
총무부장 금종 홍보부장 상수
기획부장 보현 감사 팔봉
재무부장 보성 감사 보문

■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3가 578(보타원)
TEL : 051)243-0048

백산종합해사
BACK SAN TOTAL MARINE CO.,

대표이사 白文鉉

취급품목 : 1)선박기관(내연) 및 냉동기 수리 및 부품
2)유압 WINCH제작 및 수리
3)각종 선박 부품 제작 및 납품
4)무역 및 잡화

본 사 : 부산시 태평동 1가 5번지
TEL : 051)413-9600(대)
FAX : 051)413-9602

일본사무소 : 神戶市 中央區 若■通 5丁目 1-9-168號
TEL : 81-78-230-1323
FAX : 81-78-230-1234

공 장 : 釜山市 影島區 南港洞 2街 24番地
TEL :051)413-1193
FAX : 051)413-2339

사회복지법인
이화어린이집

원장 황보선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동 803-17
TEL : 051)202-9768,202-9769

불교인쇄기획·편집전문회사
대한기획

불서출판·각종회보제작·행사팜플렛·포스터

■ E-mail : Daehana@chollian.net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333-1
TEL: 051)866-7818 FAX: 051)864-7075

서적·불교용품 전문점
부다가야

여름불교학교 필수품인 단체 티셔츠 맞춤 전문
인터넷불교서적 전문점 부다가야

■ TEL: 051)865-4383 FAX: 051)865-4821
http://buddhagaya.co.kr

불자님과 더불어 커가는 은행
부산불교
신용협동조합

예금·적금 비과세혜택
대출환영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4-20
TEL: 051)633-9120~3

동남기획

통도사 부산포교지, 등불 인쇄, 기획
각 인쇄물, 각종불교용품 기획제작
카다로그, 카렌다 등 편집 상담제작

대표 배성권

직원일동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51번지 임강빌딩 503호
TEL : 051)465-5128~9 FAX : 051)464-0712

부산불교문화원

원장 원타

■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3동 393-12 불교회관 3층
TEL : 051)868-8723 FAX : 051)864-4466
천리안 : PBCA21

천보공업사

직원일동

■ TEL : 051)315-2859

재단법인 불심홍법원

고문 정관
이사장 하도명화
상임이사 혜총
이사 감사 일동
사무국장 현익채

■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번지
통도사 부산포교원內 202호
TEL : 051)818-4769

광고회사 동아개발
SINCE 1988

인쇄매체광고/홍보전단 기획제작
책자사보발간/인쇄물 기획제작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518 알파 O/T 509호
TEL: 051)703-1995,757-1995

BOORAE 부래여행 주식회사

부래여행(주) BOORAE TOURCORP

◇여권및 각국비자 발급대행
◇불교성지순례
◇해외여행, 국내여행
해외신혼여행 및 제주도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55-1
(대림B/D 1층)
TEL: 051)464-2100 FAX051)468-4411

박해일내과

원장 박해일
전문의

■ TEL : 051)414-4200

불교 전시관

대표 조재원

탱화, 동불, 특수불, 개금, 단청
불교서적, 테이프, 4·8용품
불교용품, 일체도산매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330-152번지
TEL : 051)647-7393,632-7393

한마음선원부산지원
법형제회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번지
TEL : 051)403-7077

귀 달리는 법당
부산불교운전기사회

회장 백봉도
임원일동

※6월 4일 창립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광진가스충전소
TEL : 051)624-2207
자비콜 택시: 051)622-8282

유림한의원

원장 이하경

■ TEL : 051)467-5217

청룡사

원장 효종
신도회장 양수명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85-9
TEL : 051)803-8399

운진사

원장 지암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335-48
TEL : 051)757-3118

늘 기쁜마음, 감사한 마음
관음사 출판부
도서출판 보안

대표 덕운(주영배)

불서 전문출판/불교용품기획·제작

■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1가 151-3번지
거상빌딩 4층
TEL : 051)255-5675
FAX : 051)255-5676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
낙동종합사회복지

대표이사 김성관
관장 임광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627-28
TEL : 051)271-0560~1
FAX : 051)271-0562

대한불교법등회

지도법사 이혜총
회장 강자명심
총무 박자비화
재무 김외화
外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3동 141-137
TEL : 051)523-1480

보현선원
여여정사
개금사회복지관

선원장 정여
사부대중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3동 369-22
보현선원 : 051)853-5486
여여정사 : 0527)355-9290~6
복지관 : 051)893-50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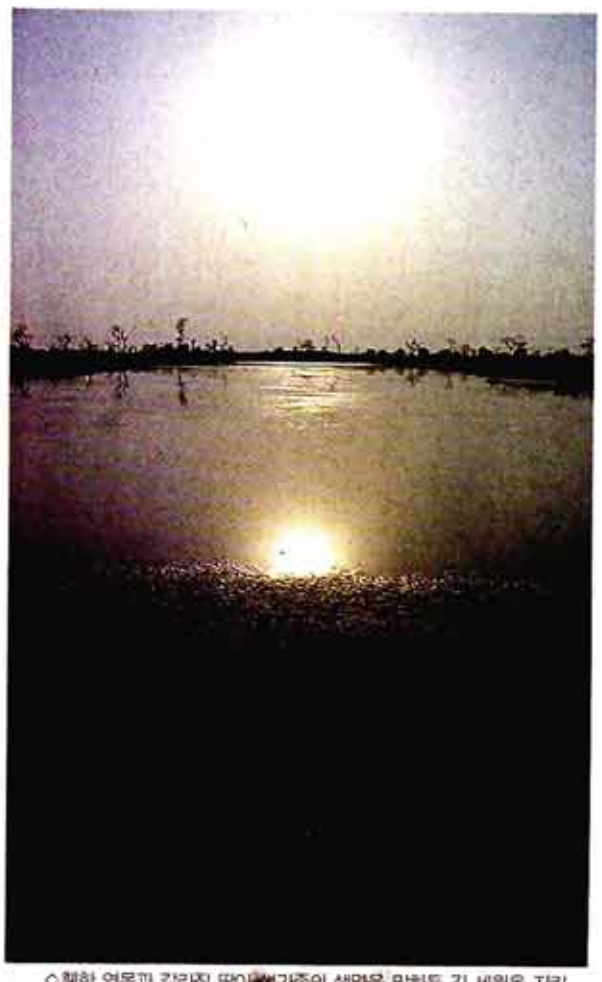
현대불교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3년

제 224호 21
서기 1999년 5월 26일 수요일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부다피아 인터넷 쇼핑몰
부처님 말씀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다피아 쇼핑몰」에서 만나십시요 !
★★ 부다피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02)732-1522
http://mall.buddhapia.co.kr F. 02)737-0697

출가탑에 서니 환희심 절로



◇행한 연못과 갈라진 땅이 석가족의 생멸을 말하듯 긴 세월을 지키고 있는 림브자그리 연못.



◇보리수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정반왕 탑 과 마야부인 탑. 마을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룸비니에서 카필라성까지

본지 고영배 사진기자 '부처님의 고향 가다' ㊦

룸비니에서 카필라성으로 가는 길은 기름진 농토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2천5백년전 해산을 앞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야부인이 룸비니로 향했던 바로 그 길이다.

카필라성으로 가는 도중 부처님이 성도 후 처음으로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부왕인 정반왕과 석가족을 만난 쿠단을 보았다. 그곳은 3개의 탑이 있고, 탑들중 부처님과 정반왕의 만남을 기리는 탑은 아름다운 무늬가 인상적이었다. 쿠단에서 남서쪽으로 약 2.5㎞ 떨어진 고티하와에 들러 현재 현겁 제1불인 구류손불 탄생기념 아쇼카 석주를 참배하고 네팔 카필라성으로 향했다. 카필라성은 두 개의 설이 있다. 네팔과 인도의 국경에 간와리아 유적을 성터로 보는 학자도 있으나 이곳은 석가족의 멸망 후의 성으로 추측되고 있다.

룸비니에서 30㎞ 떨어진 틸라우라코트의 카필라성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 몹시 무더운 날씨였지만 성스러운 곳을 찾아 왔다는 흥분이 더위를 식혀 주었다. 카필라성의 주변 마을인 틸라우라코트에는 20여 가구가 살고 있었다. 마을길로 따라 들어 서니 성의 서문이 발굴되어 있다. 성은 남북으로 500m, 동서 450m에 이르는 유적지가 발굴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본궁터로 추정되는 곳과 동문, 서문이 발굴되어 있었다. 남문과 북문터는 발굴후 다시 덮어 놨다. 서문 안으로 들어서니 우거진 숲의 넓은 왕궁터가 펼쳐졌고, 동쪽으로 발길을 옮겨 왕궁터로 추정되는 유적지로 갔다. 왕궁터에서는 SA-KA-NA-SYA라 표기된 테라코트 인장이 출토 됐다고 한다. 동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싯달타 태자의 출가를 기리는 작은 탑이 언덕처럼 솟아 있었다. 법신스님은 '출가탑'이라고 설명했다.

사문유관후 출가 깨달음 얻어 고향찾은 부처님 거기 계신듯…

싯달타 태자는 동문밖의 논에서 새에게 쪼아 먹히는 벌레와, 남문에서 병든 노인, 서쪽에서는 죽은 사람, 북쪽에서는 수행자를 보고 출가의 결심을 했고, 동문의 담을 넘어 출가를 하셨다. 모자랄것이 없던 왕자가 출가 사문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동문에 앉아서 출가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본다. 생로병사의 고를 뛰어 넘고자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성문을 넘었으리라.

출가의 숭고한 정신을 놓아 두고 북쪽으로 십여분을 걸어 정반왕의 탑과 마야부인의 탑으로 추정되는 곳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는 마을 사람 5~6명 정도가 보리수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정반왕의 탑 가운데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사진을 찍는 내가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듯 그들은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다. 정반왕의 탑은 지름이 15m 정도 되고 높이는 3m 정도가 된다. 마야데비 탑은 정반왕 탑보다 작은 지름이 약7m에 지표면에 있었다. 카필라성에서 우리는 발길을 돌려 사그리하와로 향했다. 이곳은 석가족이 몰살당한 장소로 '림부사그리'라는 연못이 있다. 주변은 석가족의 멸망을 말하듯 앙상한 나무 몇 그루만이 연못을 오랜세월 지키고 있었다.

성지 순례를 마치고 오는 길에 서쪽의 붉은 황혼이 차 안을 물들였다. 자연에 순응하고 불교와 힌두교가 구분되지 않는 종교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행복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길에서 태어나고, 길에서 살다, 길에서 떠나신 부처님의 삶을 생각하며 모든 여정을 접었다.

협찬: 대한불교예술원(佛事) (0357)542-3296



▲ 싯달타 태자가 사문유관 후 출가했던 동문터.



▶라울리가 출가전 사리불에게 불법을 공부하던 곳. 건물은 근래에 세웠다고 함



▼ 탑의 둘레에는 아름다운 문양의 벽돌이 새겨져 있다.

◇부처님 성도후 정반왕과 처음으로 만났던 것을 기리는 탑(쿠단 소재).

서울에서 50分거리

저렴한 가격

전원주택, 주말농장, 교육관, 수련장, 복지회관 건립부지

확실한 투자

삼보에 귀의하옵고

삼가 우리 불자님들께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해 뜻하지 않은 I.M.F한파를 잘 이겨 내셨는지요?
저는 10년전 부터 수도권 일원의 전원주택 부지 안내와 개발 사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青山컨설팅 대표 안 태진 입니다.
금번 저희가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기 좋고 물맑은 양평 지역에 투자성이 매우 높은 전원 주택지를 소개 해 올리고저 합니다.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평수 : 500평, 1,000평 분할매매
특징 : 동남향. 서울에서 50분 거리 전원주택으로 개발하여 토목정비작업 해드림
주위 피쉬랜드 낙씨터 근접. 평당 15만원 분할매매가능

부지1

부동산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산98번지
총 평 수 : 4980평 (준농림+생산임지) 500평,1000평 분할매매가능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평수 : 3,040평 (주택1채 허가필) 지목 : 준농림+생산임지
특징 : 서울에서 50분 거리 정남향 앞에 맑은 저수지, 주위경관 수려함 평당 8만원

부지2

부동산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121번지
총 평 수 : 3,040평(준농림+생산임지) 정남향, 출퇴근 가능, 저수지 접한 땅
급매 평당 8만원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평수 : 1,500평(전원주택 2가구 허가필)
지목 : 준농림(임야+답)
특징 : 저수지 근접. 서울에서 50분거리(잠실)
금액 평당 12만원 투자성이 매우 양호함

부지3

부동산 표시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산149번지
총 평 수 : 3750평 2필지(준농림+생산임지)
용 도 : 과수원, 꽁, 사슴목장 농업용도 개방가능
4m진입로 확보 급매 평당 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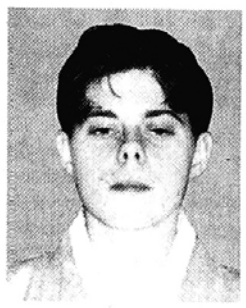
CHUNG SAN건설㈜
02)420-5474~5 / 011)213-4594

● 기타 더 자세한 관계서류 및 궁금사항은 ☎02)420-5474~5, 011)213-4594번으로 연락주십시오. 전국에 계신 불자님 가정에 행복된 나날을 기원 합니다.

한국사는 외국인불자의 신행

한국에 사는 외국인불자들의 신행이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사찰을 찾고, 법회에 참여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참선과 경전을 공부하고 탱화와 다도를 배우는 등 신행에 적극적이다. 연등국제불교회관에 따르면 97년이후 '경전공부' 과정을 수료한 외국인은 30여명,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한다. 천일기도정진, 매일 새벽예불, 경전독송, 사찰참배 등 웬만한 한국불자들도 하기 어려운 신행정진에 열심이다. 케롤, 윌러, 캐더린, 테데스코등 4인의 신행을 소개한다.

"한국 선불교 매력에 반했어요"



케롤

천일기도 정진

경기도 군포시 정혜사(주지 정혜)에는 '원응'이라는 법명의 캐나다인 케롤(32)씨는 지난해 7월부터 천일기도를 드리고 있다. 인도와 네팔에서 위빠사나를 배웠다는 그가 한국을 찾은 것은 지난해 5월. 연등국제불교회관의 소개로 정혜사에 머문지도 1년여 남짓. 처음에는 한국의 불교문화를 '잠깐'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에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사찰생활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학원강사도 그만두고 조석예불과 기도 삼매로 하루를 보낸다. 한국불교에 영원히 귀의하기로 발심한 것이다. 천일기도를 회향하면 발심출가 하겠다는 원응은 청소, 울력 등 사중일에도 묵묵히 앞장을 서며 마음을 닦는다.

86년부터 2년간 순천 송광사에서 출가해 행자 생활을 하기도 했던 찰스 윌러씨(39). 그의 하루는 안방에 모셔진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면서 시작한다. 잠에서 깨면 딸 마야(4)와 함께 합장을 하며 마음을 모은다. 딸에게 참배와 참선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줌으로써 어려서부터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로 딸과 함께 신행 생활을 하는 것이 남다르다. 한림대 재학시절 춘천에서 외국인 참선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는 그는 장소에 구애됨 없이 참선 삼매에 빠진다.



찰스 윌러

불서번역 불사

"참선을 하면 육체와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느낀다"는 윌러는 영문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경주편〉을 펴기도 했는데, 지금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불교영역사전〉 편찬을 기획하고 자료 모으기에도 열심이다.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신심을 키우는 외국인 불자도 있다. '전인령'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불리우는 미국인 캐더린(64·연세대 교양학부)교수. 미국에서 불교미술사를 공부하면서 불교를 알게 됐다는 그는 82년 한국을 방문해 본격적으로 '마음 공부'를 시작했다. 해인사 비구니 암자에서 보낸 3일 동안의 기억이 너무도 좋아서 발심했던 것이다.



캐더린

다도·참선 공부

"비구니 스님들의 자애로움과 죽음을 각오한 면벽수행에서 한국불교의 '참맛'을 느낄 수 있었다"며 "그것은 미국에서 배웠던 위빠사나와 요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전 교수는 당시 비구니스님에게 배웠던 참선과 다도로 매일 아침을 시작해 왔다. 지난해 9월부터는 연등국제불교회관이 개설한 '경전수업'에도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여러 불교행사에서 만날 수 있는 프랭크 테데스코(53·세종대 영문학과) 교수. 그는 조부모님의 임종을 지켜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진 것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동기였다. 88년 한국에 오기전까지 뉴욕 원각사와 숭산스님 선센터에서 참선에 주력해 온 테데스코교수는 불교와 기독교간의 갈등 해소및 불교의 사회 참여 운동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불교·기독교 학회지와 인터넷 등을 통해 훼불 사건 및 불교와 기독교 간의 갈등 문제를 계속해서 발표했으며,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와 불교환경교육원에도 관여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테데스코

불교사회 운동

매주 일요일에는 부인 임진숙씨(37)와 딸 세연(8)양의 손을 잡고 화계사를 방문해 딸은 어린이법회에, 그와 부인은 국제선원 참선법회에 참가한다.

오종욱·김주일 기자
(gobaoou@buddhapia.com)

세계의 부처님 오신날 표정

대 만 '공휴일 제정' 10만명 서명
미 국 거리 명상·연극·강연회
태 국 불교기 물결속 불꽃놀이

대 만 대만의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부산함 그 자체다. 아시아에서는 대부분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봉축하고 있지만, 대만의 경우 유일하게 그렇지 못하다. 대만불교협회는 4월8일부터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제정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만정부와 성명전도 벌이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한 불자들의 수는 벌써 10만여명을 넘어섰다. 대만 불자들이 공휴일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12월25일 크리스마스가 이미 국경일로 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만정부 웨이 치 린 대변인은 "12월25일은 국제적인 휴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대만불교계의 염원이 수용될지 두고 볼 일이다.

미 국 미국 오하이오주 동북부의 도시 클리블랜드는 미국에서 가장 큰 비사캬 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올해도 이곳에서 '그레이트 레이크(Great Lake)'라는 준비위원회가 결성돼, 축제를 준비했다. 축제는 16일 에큐리드 거리에서 이 지역 불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거리 명상 및 경선'으로 시작됐다. 이 행사는 20분 도로에 앉아 명상을 하고, 다시 20분 걸으며 행선하는 것. 보우링 그린 주립대학에서는 부처님 탄생을 주제로 한 연극이 공연되고, 마빈 베져교수(동양철학)의 '자비'를 주제로 한 강연회도 열렸다.



◇미 클리블랜드선원에서 명상하고 있는 불자들.

홍 콩 홍콩의 부처님오신날은 국가적 축제이자 외국 관광객의 '문화체험장'으로 이미 자리잡혔다. 이날 홍콩불교계는 '관욕제'를 기점으로 봉축 일정을 시작한다. 봉축기간 동안 홍콩불자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란타우(Lantau) 섬에 있는 포 린(Po Lin)사와 샤 틴(Sha Tin)사, 미우 파트(Miu Fat)사 세 곳. 홍콩에서 가장 규모가 큰 철불(높이 26m)이 봉안된 포 린사와 만개의 불상이 모셔진 샤 틴사와 미우 파트사에서 대부분의 홍콩불자들은 부처님께 꽃과 향을 올리고, 가족의 복을 빌며 부처님 오신날을 보낸다.

일 본 양력 4월8일. 고베의 한 사찰에서 꽃을 올리고, 차로 아기부처님을 관욕하는 의식이 진행됐다. '하나 마쓰리(Hana Matsuri)'가 시작된 것이다.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꽃과 차를 올리는 의식을 새싹불자에게 시킨다. 이때 올리는 차는 수국(水菊)을 말려 우려낸 아마차(amacha). 일본 불자들은 이 차를 대단히 신성시한다. 의식이 끝난 후 아마차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산문을 걸어나오면, 악한 기운이 자신을 범하지 못한다고 굳게 믿을 정도이다.



◇일본의 한 어린이가 관욕의식을 봉행하고 있다.

스리랑카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약 2주일동안 전국이 축제 분위기에 젖어들었다. 특히 불교국가로서 유일하게 부처님의 치아사리를 모시고 있는 스리랑카는 이 기간동안 치아사리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아사라 페라해라' 축제의 열기에 휩싸였다. 화려하게 치장된 코끼리에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셔 캔디시의 불치사의 사리탑까지 이운하는 이 축제에는 외교사절과 국민 등 수만명이 행렬을 이루며 장관을 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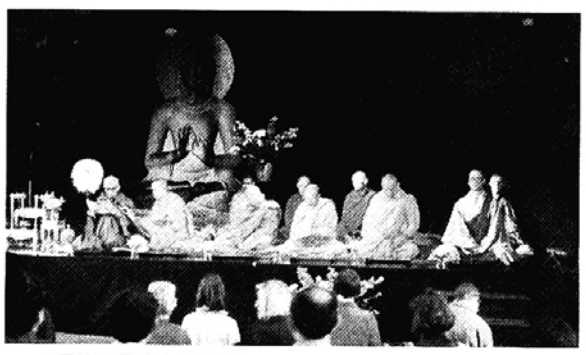
태 국 전국민의 94%가 블자인 태국불교계는 음력 4월 15일을 국경일로 지정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는 비사캬(Visakha) 축제를 열었다. 이날을 전후로 3~5일간 국기와 불교기가 곳곳에 게양됐으며, 왕립사원에서 열리는 푸자(Puja)라는 법요식에는 국왕과 총리 등 고위층이 참석했다. 저녁에는 연등을 강물에 띄우며 소원을 빌고 불꽃놀이 등으로 밤늦도록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남북통일·세계평화 발원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호주등 세계각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사찰들이 16·23일 일제히 봉축 팡파르를 울렸다.

해외 한국사찰 봉축행사

美·加 탑돌이·풍물·독경대회 등 다채
독 일 세미나·서예전등 예술제
호 주 108염주 보시·백일참선 수행



◇독일 보문사와 베를린 불교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한 봉축행사.

■미국·캐나다

LA 관음사, 워싱톤 보림사, 뉴욕 법주사·한마음선원, 하와이 대원사 등 미주지역 한국계 사찰에서는 16·23일 봉축법회를 각각 봉행했다. 16일 '세계평화 조국통일 기원' 법요식을 시작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법주사와 한국사는 5백여 교민불자와 유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탑돌이와 제등행렬을 실시했다. 한마음선원, 보림사, 불광사는 23일 법요식을 봉행하고 '정근기도'와 새싹불자의 노래·춤·연극 등 다채로운 봉축무대를 마련해 교민불자 뿐만 아니라 미국인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동부지역에서 활동하는 북미사암연합회는 16일 맨해튼 유니온스퀘어파크에서 '인류 한가족의 이상실현'을 주제로 봉축법요를 진행하고, 독경대회·퍼레이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캐나다에서는 교민불자들의 원력이 쌓여 '봉축행사'가 열렸다. 불광사, 대각사, 서광사 등은 16일 5층 목탑 탑돌이를 시작으로 법요식을 봉행했다. 또 제등행진 대신 '일일찻집'을 열어 불우한 이웃을 돕고 노인잔치를 마련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프랑스

파리 외곽에 위치한 송광사 파리분원 길상사와 관음선센터는 23일 봉축법회와 수계식을 봉행했다. 또 프랑스로 입양된 한국인들을 초청하는 특별행사도 마련해, 이날 사찰을 방문한 10여명의 '한국의 뿌리' 회원들이 세대를 초월한 동포애를 느낄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길상사와 관음센터의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생중계한 프랑스 2-TV는 "상젤리제를 연상시키는 영롱한 불빛이 파리 밤하늘을 수놓았다"고 보도했다.

■독일

베를린 홍법원의 학술세미나, 석왕사와 광법사의 제등행렬을 시작으로 봉축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16일 법요식을 봉행한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은 비디오 '부처님 일대기' '산사의 하루' 등을 상영하고 제등행렬을 펼쳤다. 보문사는 23일 사진 전시회 및 시낭송회, '지혜와 자비의 등불은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전통무용, 참선, 불교시낭송회, 한국전통사찰비디오 상영 및 서예·사진전 등이 열렸다.

■호주

캥거루의 나라 호주에서도 작지만 교민불자의 정성이 담긴 봉축행사가 열렸다. 정법사, 관음사, 보문사 등은 15일 법요식에 참석한 불자들에게 108염주를 나눠주고, 연등을 점등하는 것으로 '99 봉축행사를 시작했다.

정법사의 경우 올해부터 초파일을 기점으로 '백일 참선'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오종욱 기자

1999학년도 후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야간)

■ 석사.연구과정
1.모집학과 및 전공
가.불교학과:불교학,선학
나.불교사학과:불교사,예술사
다.불교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포교학
2.지원자격:4년제 대학졸업자(예정자)
3.전형방법
가.식사과정
1)일반전형:필기시험(영어,전공) 및 면접
2)특별전형: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사회지도급 인사를 우선함.
나.연구과정:서류전형 및 면접고사
4.전형일시:1999년 6월 17일(목) 14:00
5.제출서류
가.입학원서 1부(본 대학원 소정양식)
나.사진5매(3개월 이내 반명함판)
다.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라.대학 전학년 성적 증명서 1부
마.주민등록 초본 1부(병적사항기재요)
바.본교 정각원장 추천서 및 이력서 1부
사.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1부
2.전형장소:불교대학원 교학부에 게시함 『90주년 기념 학술관 2층』
3.특전
가.해외 자매대학 유학 및 연수에 참가할 기회 부여함.
나.각 사회복지법인 견학 및 연수
다.조계종 및 각종단 재적승려, 공무원, 교직원, 군인, 불교언론인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함.

■ 불교지도자 과정
1.모집인원:000명
2.전형방법:서류전형 및 면접
3.지원자격
가.조계종 및 각종단의 대덕 법계 품수 승려
나.각 종단의 간부
다.각 신행 단체의 간부 및 대표
라.신심이 돈독한 자
4.전형일시:1999년 6월 18일(금) 14:00
5.제출서류
가.입학원서1부(본대학원 소정양식)
나.사진5매(3개월 이내 반명함판)
다.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라.주민등록 등본 1부
마.본교 정각원장 추천서 및 이력서 1부
바. 승적 및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1부

■ 공통사항
1.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9년 6월 3일(목)-6월 11일(금)
평일 09:30-17:00까지(토,일요일은 제외)

100-17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교학부
☎ 02)2260-3097,8 FAX : 02)2260-3097

선수행과 교리공부를 위한 수강생 모집안내
부산선불교 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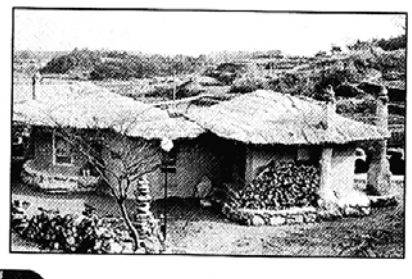
1.개 설 취 지
보타원은 지난 30년동안 부처님 대각사상과 고암 대종사님의 자비법력을 기리며 관음기도와 월례법회를 봉행해 왔습니다. 이제 좀더 깊이있는 수행과 교학을 함께 하고자 하는 원력으로 「부산선불교 교육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이에 뜻있는 불자 및 일반 인연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2. 교육내용·기간
♣ 개강일 : 99년 6월 1일 오전 11:00 ♣

교육내용	교육기간·강의	입학자격	입학원서접수	모집인원
참선실수 불교교리	6개월 매주목요일 14시~16시	26세이상 남녀누구나	수시접수 (선착순마감)	00명

구덕산 보타원 부설
부산 선불교 교육원장 한보광 합장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3가 578번지
전화 : 051)243-0048~9, 전송 : 051)242-4109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대비심처럼 찬란한 것은 없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3년



고은
시인
본지 논설고문

북아메리카 상공에서의 감회

기묘 초파일에 부쳐

부처님이 누구입니까 빈 몸 빈 마음의 허공 하나에 사랑을 가득채운 사람이 부처님

어찌 올해 초파일을 맞는 감회가 없으리오. 한국불교의 어느 부분을 생각하자면 그 착잡함이 수미산이요, 그런가 하면 그 원력 또한 수미산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조계사 승란은 온 세계에 1천 6백년의 한국불교가 그 내장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으나 이제 한발짝 물러서서 생각하자면 그런 처절한, 자신을 다 보여주고난 참회를 통해서 새로 큰 공부를 할만한 정진바라밀의 씨앗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할 일이 많은 나라가 한국과 한반도이고 할 일이 많은 종교의 하나가 단연코 가장 오래된 종교인 불교이며 그 가운데서도 한국불교이겠습니다.

지금 오대호중 휴론호와 미시간호를 건너 미국 중부와 광막한 평원을 내려다보는 상공에서 부처님을 생각함으로 부처님도 나도 덩달아 둥둥 떠 있는 추상이기만 합니다. 생각컨대 이 공중에서야 무슨 부처가 있고 무슨 중생이 있고 무슨 부처의 법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인간세상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살기 시작한 이래로 근원적인 불행을 감당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짐승이나 풀과 나무처럼 고기들처럼 저 스스로의 자연으로 살지 않고 인간 자신의 이념이나 사상을 낳은 것이 사실인즉 부처의 법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도 일어납니다. 궁극적으로 부처의 법이란 지금 인간이 이름붙인 불교 그것도 아님을 뼈아프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금강경〉이 무엇입니까. 그냥 대한불교 조계종 소의경전입니까. 그게 어느 종파 소의경전만이라면 이미 그것은 죽어버린 언어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금강경〉의 세계는 차라리 이제까지의 〈금강경〉밖에 있겠습니다.

옛날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버팔로라는 들짐승을 그 엄청난 떨거지에서 딱 몇마리만 잡아먹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림만 견하는 최소한의 식욕으로 가능한 일이었겠지요. 만약 그 짐승을 무더기로 잡아서 가죽을 팔고 고기를 저장해서 다른 지역에 실어다가 팔면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탐욕이 없는 세상이 그들 원주민의 자연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몇마리씩 잡아먹는 살생 없이는 버팔로가 번식해서 그 숫자가 많아지면 그놈들이 뜯어먹을 풀도 모자라고 마실 물도 모자라 끝내는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그놈들의 살 곳이 죽을 곳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진대 몇놈이 희생되어가면서 버팔로의 생태계가 유지되고 확보되는 일을 그들과의 같은 운명체인 인디언이 해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시절을 지나서 대서양을 건너온 백인의 총소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옛 인디언들은 자연 그대로의 법도를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지금도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나 다른 생물의 삶은 이러한 인디언과 다를바 없이 먹을 것과 거처할 공간을 최소한으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늘이나 바람 공기 그리고 강과 언덕이 내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의 것이란 소유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빌려쓰는 공공의 무대이지요. 그런 대지를 인간은 소유물로 만들어 마침내 세계를 큰 나라, 작은 나라와 문명과 야만으로 차별지어서 소유만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진지하게 지적해야 할 종교는 어떻습니까. 토론토에 와서 한국교민 5만인인데 그 숫자는 본국 회사원이나 유학생까지 망라한 것입니다. 그런 5만명 상대의 개신교 교회가 150개가 넘습니다. 일본 교민에게는 교회가 단 2개밖에 없다 합니다. 많은 것이 좋을까요? 옛 중국에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말이 있지만 아마도 그것은 높은 가치와 품위, 그들이 말하는 군자(君子)가 많을수록 좋다는 뜻이겠지요.

나는 많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은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크나큰 재앙을 몰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이기주의와 함께 있다면 종교일 수 없습니다. 종교는 내주어야 합니다. 이기주의를 이타주의로 바꾸는 운동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이 진짜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강경〉 없이도 나를 죽여 모두가 되고 텅 빈 허공이 되고 그 허공에 꽃 한 송이 피어나는 것이 〈금강경〉의 본래 면목이겠습니다. 어디 다른 종교만 그렇습니까. 우리 불교 집안에도 이런 이기주의의 뿌리가 해묵은 채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계종 사태도 미국 텔레비전 CNN이 말한 그대로 돈이 그 원인이었는지 모릅니다. 돈과 함께 있는 권력이 그 원인인지 모릅니다. 그런 현세적인 힘이 부처님의 법과 하나로 둔갑한다면 그런 놈의 법을 때려부수는 일이 정녕 불법일 것입니다.

최근 한국불교계는 너무 많은 불상과 불당축조로 뜻있는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세생생 비원을 통한 부처님의 세상에 다가가는 신심이 기보다 종교가 얼마나 현세적인 탐욕의 다른 이름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에게 인간의 냄새가 나는 것, 인간적인 것을 바랍니다. 너무 많은 비인간적인 일들이 인간사회를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눈물과 웃음을 서로 나누는 일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겠지요. 인간이 좀 더 나은 본성에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거룩한 것은 없겠지요. 인간이 수많은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대비심을 표현하는 것처럼 찬란한 것은 없겠지요.



그림 · 박구원

부처님이 누구입니까. 2천5백년전 인도 아리안의 피를 받은 한 구도자임에 틀림없지만 그이는 그 누구보다 뭇 목숨들을 슬피 운 사람입니다. 지옥을 울고 아귀를 울고 아수라를 운 사람이 곧 부처님입니다. 그 자신은 어떤 부귀도 모르고 빈 몸 빈 마음의 허공 하나에 사랑을 가득 채운 사람이 부처님 아닙니까.

나는 요즘 인간보다 짐승들을 훨씬 섬깁니다. 아니 부처보다 중생을 더 섬깁니다. 중생이란 어리석은 것들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제 탐욕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의 것을 세상에 그대로 두는 생명이 중생이지요. 다람쥐나 사자는 먹이를 채운 뒤 따로 먹을 것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죽이는 일도 그 죽음 없으면 다른 삶의 법칙이 해체되기 때문에 하늘 아래의 도리와 부합된 먹이사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격이 있는 명사나 어떤 현자 그리고 성인을 받드는 것보다 이런 짐승들을 내 스승으로, 내 부처님으로 여겨서 나도 그런 자연의 산 얼굴에 가까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불교의 무아 · 무심 · 공 · 묘유…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난의 친구들입니다. 부처님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가난의 부(富)입니다.

나는 종교의 존재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무 종교가 발달해서 그것만이 판치는 사회를 병든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종교를 의식하지 않은 세상이 가장 종교적인 세상일 것입니다.

작년 조계사 사태는 큰공부 할만한 정진바라밀의 씨앗 물욕 · 권세욕 버리고 새 일주문 세우자

한국불교, 유교의 탄압 아래에서 산중의 호젓한 밤으로만 부처님의 법맥을 이어올 때 그 뱃속에서 쪼록쪼록 소리가 나는 안빈의 체험을 잊어버려서는 안됩니다. 물욕과 권세욕의 일주문을 쓰러뜨리고 거기에 천고의 빈 몸으로 다시 출가하는 새 일주문을 세우시오. 아니 그런 문조차 세울 까닭이 없이 이 세상 도처가 일주문이요, 대웅전입니다.

석가모니부처님은 나에게는 한동안은 밤의 소쩍새이고 낮의 지렁이입니다. 엉겅퀴 줄기입니다. 귀의불!

고은 시인은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최근 버클리대학에서 봄학기 강의를 마쳤다. 이 글은 캐나다 토론토 요크대학 초청강연과 시 낭송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썼다.
● 연락처: 10 Fernald Dr. #30 Cambridge, MA 02138 USA
Prof. Ko Un
● 전화 · 팩스: 617-497-3973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 불자가 앞장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금 화 선 원
주 지 석청암
신도회 일동
금화선원신도회
불교교양대학각기동문 · 거사림회
■ 서울시 동작구 상도2동 363-146 장승빌딩 403,404호
TEL : 02)823-9135~6
FAX : 02)823-9134

문화재수래 · 단청기능 · 708호도금기능 821호 탱화 · 단청 · 불상조성
한국불교미술원
원 장 정규진
신도일동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96
TEL : 02)730-8072(야)648-0930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학장 무진장 이사장 김재일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회 장 김 재 일
사무국장 구본설 기획실장 문종순
대중일동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
TEL : 02)732-1206~8 FAX : 02)732-1207

전국신도회
회 장 선진규
사무총장 김재일
회원일동
■ 서울시 견지동 13
TEL : 02)732-7272~4 FAX : 02)732-7275

정 각 사
주 지 이광우
신도회장 이원각성
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77-12
TEL : 02)742-1231

승 룡 사
주 지 전야용
대중일동
신도일동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00-61
TEL : 02)814-7536

(사)대한불교법사회
성보사 포교원
원 장 구윤회
신도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99-28
TEL : 02)381-1234,2727
FAX : 02)371-1065
능곡포교원 0344)979-0220, 02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41 태영빌딩 2층

국가 지정 제28호
목아불교 박물관
관 장 박찬수
후원회 일동
■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TEL : 0337)85-9952 FAX : 85-9951
목아불교미술연구소 0337)85-9954
목방목아미 0337)85-9950 FAX : 37-9951

무 학 사
주 지 해 암
관음회 일동
무학회 일동
■ 서울시 중구 신당1동 304-188
TEL : 02)2238-8872,2235-9900

송강기획
불교음반유통/ 이벤트기획
대 표 윤성수
직원일동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
TEL : 02)745-6015 FAX : 02)745-6017

한국불교태고종 전통사찰 48호
송 덕 암
주 지 고동우
신도회 일동 · 약사회 일동
■ 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TEL : 0445)688-2913

대한불교 조계종 기도도량
대흥산 성불사
주 지 대 선
대중일동
■ 충남 홍성군 금마면 봉서리 산60 대흥산
TEL : 0451)634-4286

법공양 페이지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대행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마음의 정성 있어야 등 켤수 있어

오늘은 대도사인 부처님께서 오신 날로 정해진 날입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마음이 벅찹니다. 부처님이 고행하신 길과 수많은 선지식들이 걸어오신 길의 그 뜻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벅찹니다.

돈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을 켜는 것과 같고, 점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태워 갈 때를 말합니다. 수많은 큰스님네들께서 도를 이룰 때 걸어온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벅찹니다. 지금 스님네들이야 크게 어려운 점이 없지만 옛날에는 정신적인 탄압과 물질적인 것 등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걸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을 여러분들은 다 생각지 못할 겁니다. 사람 사상을 다 버리고 인생의 길이 어떠한가를 한 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야 하는지,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걸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모두 원인이 있죠. 항상 말하듯이 '지수화풍에서 생명이 생겨서 지수화풍으로 뭉쳐 나와서 지수화풍을 먹고 지수화풍으로 또 흩어진다.' 이런 인생길 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들이 다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도 고생이라고 할 건 없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으니까, 또 자기가 어떻게 뿌리면은 잘 거둘 수 있을까 하고 노력을 해 오다보니까 자기 몸을 그렇게 불사르듯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 부처님 오신 날을 오늘 하루만으로 생각지 말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죠.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하여간 모든 종교의 이름을 뛰어넘어서 일체 만물만생, 천차만별의 생명의 근본이 불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모습은 다르나 삶은 다 똑같애요. 미생물에 관한 건까지도 전부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한마음으로써 밝힌다면 모두가 둘이 아니게 됩니다. 입으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내 몸체를 가만히 보십시오. 한마음으로써 한 개체가 아닌가. 내 몸속에 있는 생명들이 어디 따로따로 흩어져 있습니까? 내 몸 한 개체에 모두 같이 모여서 사는 거죠. 그리고도 일체 만물만생이 다 한 지구에 집을 삼아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닭장에 닭을 가둬놓듯이 '너희들은 바깥으로 뛰어나가면 죽는다' 해서 그 공기주머니 안에다가 넣어놓고 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살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인 바로 그 창살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 "모든것은 주인공에서 화해서 나와
> 나를 시험하려 괴롭히는 것이니
> 나온자리 되놓으면 모두 없어져요"



그림 · 최주현

이 살아나가는 데 천차만별로 따르는 어려운 것들을 다 무릅쓰고 말입니다, 자기를 버린 채.

다른 걸 보지 마십시오. 촛불을 한 번 켜 보십시오. 초가 여러분들의 몸이라면 촛불을 켜서 그 몸이 다 타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사는가, 어떻게 해야 굶기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가르칠까.' 하고 돌보면서 이끌어 나가고 계실 겁니다. 부처님도 만중생을 위해서, 아니 만중생의 기쁨과 아픔을 같이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과 차원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근본마음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살얼음을 딛고 몸을 태워가면서 길을 걷는 나그네들입니다. 오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상(四相)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사상이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 내가 한다는 생각, 내가 이만하면 갖추었지 하는 오만'을 말합니다. 이 사상을 다 버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나 역대 조사들이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초를 불로 태우듯이 그렇게 자기 몸을 태워서 이렇게 오늘날을 있게 한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물론 부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진리는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바로 그 몸을 태워서 촛농이 떨어지듯 수많은 생명들에게도 전달을 할 수 있는 눈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로서로 상응하면서 서로서로 마음이 응신이 돼서 여러 생명체들에게 같이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마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선도 갖출 수 있고 악도 갖출 수 있고, 자비도 갖출 수 있고 능력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마음을 넓게 쓰는 대로 넓게 공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하면 그냥 행이고 넓게 쓰면 공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체 하나를 보더라도 공생입니다, 공생!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많은 줄은 알고 계시죠? 생명이 많은 줄은 아시니까 이것이 바로 공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생이면서 공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공체로 혼합이 돼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되 그냥 생각을 하느냐, 한생각을 하느냐 이 문젭니다. 내가 한생각을 하면은 모두가 더불어 같이 한 손이 되는 거고, 내가 그냥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한데 떨어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그대로 자기가 공생이며 공심이며 공체며 공용이며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생명의 근본이란 얘깁니다. 우린 더 못나고 더 잘나고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인이 어딨을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마음대로 쓰라고 마음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유자재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권!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마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맘대로 쓰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도리에는 악도 들어있고 선도 들어있는데, 악도 들어있고 선도 들어있는 그 도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끌어 주고, 악과 선을 둘 아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진리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되고 형성되고 뒤바뀌면서 고등동물인 이 인간까지 올라오기에도 힘이 벅찬데, 여러분들이 그 도리를 모른다면 어떻게 마음을 넓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베풀어줘도 베풀어주는 사이가 없고, 아무리 꺼내도 줄지 않는다는 얘기죠. 광대무변해서! 아무리 넣어도 그릇이 작아서 넘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체가 없는 거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넣어도 이 허공에 영이 가득 차있다면 그 가득 차있는 허공을 다 집어 삼킨다고 해서 이 마음이 두드러질까요, 두드러지지 않죠. 넣어도 넣는 사이가 없고, 꺼내도 꺼낸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도리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까닭에 잘 살든 못 살든 이 고(苦)의 중세계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청해서 내가 여기로 태어나겠다 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태어나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도리를 알면은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도 미생물은 물론 모두가 내 몸 아님이 하나도 없음을 알테니 몸으로 굳이 태어날 게 뭐 있겠습니까? 내 모습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님이 없는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도리를 바로 일대사의 인연으로서 돌 아니게 지으셨습니다. 몇 만년 전으로도 갈 수 있고 몇 만년 후로도 갈 수 있고 현재로도 항상 계시니 너나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원하신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모자라는 게 많아서' 라고 생각하시죠? 만약에 모자라는 게 없다면 갖출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모자라는 것 넘치는 것, 악한 것 선한 것, 긴 것 짧은 것, 못난 것 잘난 것, 잘사는 것 못사는 것, 어려운 것 어렵지 않은 것, 모두가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처라고, 부처의 몸이라고 해서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니라. 너희들과 똑같이 아프고 너희들과 똑같은 모습이니라 하고요. 그러나 알고서 넉넉하게 어려움이 없이 걷는 걸음과 모르고 '아이구!' 하면서 그냥 발을 동동 구르며 걷는 걸음과는 다르겠죠. 부처님께서나 역대 조사들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도 정해진 겁니다.

연등불이라는 그 자체도 바로 부처님의 자불, 연등불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처, 즉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게, 자기 자불의 연등이죠. 연등이라는 뜻은 초를 태우듯이 태워서 그 불을 더불어 같이 밝혔으니 연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등부처가 '너는 이 다음에 석가모니가 돼라.' 하셨던 거죠. 결국 자기가 자기한테 수기를 내리신 거니까, 주고받은 사이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연등을 밝히는 것은

> "창살없는 감옥서 벗어나게 하려고
> 제불 조사께서 촛불 태우듯
> 자기 몸을 태워 오늘 있게 한거죠"

☞ 25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걸 망
CHUN HWA
◆ 특허청 ◆
상표 등록출원
40-1999-0014193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걸망을 매세요.



♣ 좋은점 6가지 ♣
· 때가 묻지 않습니다.
· 방수가 잘 됩니다.
· 八正道를 마크로 사용했습니다.
· 주머니 사용이 무척 편리합니다.
· 大, 小 구분으로 체형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 안감은 心자로 佛心을 담았습니다.

규격 : 大 가로 44cm 세로 48cm
小 가로 40cm 세로 38cm
가격 : 大 ₩33,000 小 ₩30,000
색상 : 회색

은행	온라인구좌	예금주	서울 · 경기
농 협	061-17-001230	(주)천화무역	5개이상 주문하시면
우체국	013805-0068619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 전화주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

※ 본 걸망은 小白山 金剛寺 (0572)636-6546
노스님 선방건립을 후원합니다.

노스님의 근심
· 늙은 것이 서럽습니다.
· 노후보장 되어야 수행, 포교 전념할 텐데
· 평생 수행에만 전념해온 스님들은 노후에 의탁할 곳이 없는데
· 문중도 사제도 돈도 없기 때문에 갈곳이 없는데

불자들의 모임
공급처 : (주)천화무역
전화 : 02)449-8844
02)449-9100

철야용맹정진 수련회

기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완벽하게 절하는 비법
◈염불 금강경 독경하는 법 : 수행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몸에 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립고 지겹고 침은 마르며 목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삼매에서 멀어진다. 자성의 운율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에 한맺힌게 풀려 큰 소리로 염불해도 목 아프거나 쉬지 않고 힘차게 박력있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업장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업.
◆ 장궤합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와선 수행시 자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 정진 (토요일 10시- 일요일 오전 10시)
한글금강경 봉독2회, 석가모니불 염불 정근, 도인체조건강법, 108배2회, 와선호흡법, 수행상담 점검, 축원 기도 7회
◆ 넉넉한 복장, 세면도구, 예약수련 30명, 수련비 무료
출가예정자 수행체험, 특별소원성취기도 수행자
업장소멸용맹정진 수행자를 모십니다.
◆ 철저한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점검,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식, 식후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름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올곧게 잘하시는 고학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 차돌 암벽에서 다량의 약수가 나옴 (일년 두어도 이끼가 끼지 않는 특급수)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보덕선원
하안거 선방보살님을
모·집·합·니·다
여기 서울에 초현대식으로 육백명 큰 시설과 조용하고 공기 좋은 남향집 선원입니다. 저는 40년간 제방에서 정진하다가 수도의 기본인 원융산림선방으로 원을 세우고 창건했습니다.
저는 대중과 같이 정진하고 탁마하고 영원한 수도장으로 느낌이 오는 분위기로 상좌가 아닌 수도인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인연을 논하지 말고 오십시오.
같이 정진합시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824-1호
T. 02)914-4235
삼각산 보덕선원
원장 오본 합장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마음처럼 ...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일체 만물만생 생명의 근본이 '佛'

☞ 24면에서 계속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동시에 둘이 아니라는 뜻을 연등으로 표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기 때문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밀고 들어가라, 물러서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불성이 없다면 송장이 되죠. 초가 없어도 불이 없고 불이 없어도 초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이 없어도 불성이 없고 불성이 없어도 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불성이 있는 줄 알라. 알면 그냥 일거수일투족 다 그 놈이, 불성이 하는 거라고 믿고 거기 놔라. 그러면 몸과 불성이 둘이 아니게 된다. 그럴 때에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된다 라는 얘깁니다. 불성이라는 것도 이름입니다.

또 불성이 있는 줄 알면 여여한 줄 알라 하는 것은 본래 그대로 여여하다 이겁니다. 잘 쓰지 못해서 그렇지, 아프려면 아프라지, 죽겠으면 죽으라지 하고 턱 맡긴다면……. '잘되는 건 고맙다, 못되는 것도 너가 하는 거니까 잘되게 할 수도 있잖어.' 하고 그렇게 수레를 굴리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여한 줄도 알게 되죠. 어떤 게 닥쳐도, 설사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응, 무너지게 하든 죽이든 살리든 너가 이끌어가는 거니까 너가 알아서 해.' 하고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바깥으로 비치게 되죠. 그렇게 정돈이 되는 걸 비비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여한 줄 알면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못한다, 내가 했다, 나다 할 것도 없습니다. 못한다 한다가 어디 있습니까? 내 근본의 불성은 체가 없어서 무한량인데 왜 자기 몸을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못한다 한다가 어떻게 붙겠습니까? 무한량이면서도 아주 묘하고 체가 없어서 광대무변한 광명과도 같은 마음인데 하물며 하치않은 한계가 있는 몸에다 비유를 하리까.

그 몸이라는 건 항상 내 마음의 씀씀이에 따라서 움죽거리게 돼 있거든요. 만약에 호사가 지금 쫄딱 망하고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마음 씀씀이가 여여한 사람들은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니까 너 알아서 해.' 하구선 탁 거기다 놔 버린다면 이 몸뚱이의 행동은 그냥 담담하기 여여할 겁니다. 누구나가 다 이렇게 살다가 몸을 벗는 것은 정한 이치죠. 일찍 벗으나 늦게 벗으나 죽기는 매일반 아닙니까. 그런데 몸이 죽어서만이 죽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발견해 내지 못한다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몸이 죽는 거보다 마음을 발견해내지 못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눈을 뜨지 못하고 귀를 뜨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더 비참한 거죠.

우리가 촛불 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향을 피울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 딱 빼서 대리인으로 삼습니다. 향이 여러분들의 대리인이거든요. 그것이 항상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향을 뺏을 때만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나무를 보고 '그 나무가 참 블쌍하게 뿌리를 땅에다 제대로 박지도 못하고 저렇게 비비틀려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 그때에 찰나에 둘이 아니게 되는 거죠. 나무도 나고 나도 나무니까요. 그렇게 되듯 이 향을 탁 뺄 때에 내 몸과 그 향과 둘이 아니게 돼요. 둘이 아닌 것을 꽂고 내 마음과 그 향을 켜죠, 켜는 순간에 그 향은 타 들어갑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향내는 어떻겠습니까? 마음을 크고 넓게 써서 항상 공심으로써 공덕을 쌓아라 하는데, 그 뜻은 공심으로써 공양을 올리면 공덕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더불어 같이 향내음을 맡게 되죠. 이 마음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자기의 아는 바로는 그 향내를 천리 만리라도 맡게 돼 있거든요. 빛보다 더 빠르죠. 향내는 물 속도 들어갈 수 있고 허공으로도 두루할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생명이든지 돕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향 한 개에 말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향을 태우고 초를 태우셨습니다. 그게 자기 몸인데 말입니다. 초를 태우고 자기 몸을 태워서 불을 밝혀서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향을 양식을 삼는다 이런 말이죠. 향을 더불어 같이 내음을 맡게 해서 양식을 삼게 한다. 즉 정신적 양식 말입니다. 우리는 뭘 물질로 먹어야 양식을 삼는다고 그러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양식은 공식하는 걸 말합니다. 물에서 사는 거든, 들에서 사는 거든, 질척한 데서 사는 거든, 허공에서 사는 거든, 사람이든, 어떠한 생명체든지 그 향의 내음을 맡고 자꾸 발전을 해서 자기를 벗어나고 진화되는 그런 역할을 주는 향내음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구가 공기주머니라면 그 공기주머니 바깥, 즉 대기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체가 없고 광대무변해서 우주 천하 삼천대천세계, 일체 만물만생 천차만별이 다 내 몸이 될 수 있고, 다 내 마음이 될 수 있고, 다 내 모습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내 부모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한 도량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자유것 쓰라고 해 놓은 거니까 마음대로 자유것 쓰세요. 또 더러운 거든지 깨끗한 거든지 둘 아니게 생각하시구요. 물론 더러운 건 더러운 거죠. 하지만 더러운 게 있다고 한다면 깨끗한 게 있고 깨끗한 게 있다 하면 더러운 게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양변을 다 잡아먹어라 이거죠. 얼른 쉽게 말해서 양변을 다 놓는다면, 악과 선을 다 놓는다면 그 가운데 자유가 나와요. 어때요? 악과 선을 둘 아니게 보는 그 가운데 마음에서 철저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 악을 버리지도 않고 선을 갖지도 않고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자유자재권을 얻는다는 얘기죠.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이 다 공부하실 때에 전부 자기 몸을 태워서 공부해서 향으로서의 양식을 삼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너무나 벅찼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빼놓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만 오신 날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날이, 항상 여러분들이 움죽거리는 날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살아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은 한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떠나지 않으나 스승과 제자가 있다면 예의를 지켜야 하니까 방편이지만 방편 아닌 방편으로 예의를 올리는 거죠.

오늘 부처님 오신 날도 그러한 날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것은 과거로부터 공부하신 그 자신의 자가 없다는 얘기죠. 잡수신 사이가 없이 잡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자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용납하셨다 이런 뜻이죠. 모두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부처가 자기를 형성시켜서 자기를 이끌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될 수가 없죠. 과거로부터 벌써 되어 있었으니까, 이미.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보여 줄 수는 없거든요. 이미 부처가 돼서 나오셨지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중생들한테는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게 방편아닌 방편입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셨어도 고행을 하실 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뼈만 남게 돼서 쓰러지게 되셨더랍니다. 어딘가 모르게 쓰러져 있을 때 자기 안에 부처가 '너무 먹어도 안되고 너무 아니 먹어도 안되고 육신이 있어야만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가르쳤더랍니다.

이것도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입니다. 방편이 아니면서도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방편을 쓴 거죠. 그러니까 '아,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해서 우유죽을 잡숫게 됐던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말이에요.

그걸 잡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부처님이 이제는 공부하시려고 저렇게 죽을 잡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셨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뜻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죽을 먹는 것도 시자가 심부름을 잘 하기 위해섭니다. 그 죽을 먹어야 부처님을 제대로 섬기겠기에 말입니다. 그럼죠? 죽을 먹어야 모든 생명들이 다 작용을 하고 그럼으로써 부처님을 공양하고 시자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공양을 먹어도 자기가 먹은 사이처님이 깨우치질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와 자가 상봉을 해서 깨닫기는 했는데 둘 아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기 일생을. 그래서 둘 아닌 공부가 돼야 되겠기에 인제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마구니와 시녀들 또는 악마들이 마구 달겨드는 거죠, 차례차례로.

우리가 공부할 때면 그런 마가 자꾸와 붙습니다. 이걸로도 화해서 나오고 저걸로도 화해서 나옵니다. 악마로도 나오고 마구니로도 나오고 시녀로도 나오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모두가 말도 없이 치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것은 주인공에서 화해서 나와서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주인공에서 어머니라고 화해서 나온 것도 자기 속에서 화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법신, 보신, 부처님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나눌 것도 없죠. 화해서 이걸로도 나오고 저걸로도 나오는 것이니 마구니 또한 딴 데서 온 게 아닙니다. 자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바로 자기 속에서 그렇게 나온 거죠. 부처님 당시에도 마구니도 나오고 시녀도 나오고 온갖 것이 다 거기서 나와서 그렇게 부처님 눈앞에 탁 보인 거죠. 그런데 그걸 전부 한 군데다 집어넣으니까 한 군데로 들어가서 싹 없어지는 거죠. 생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모두를 공략하는 대로 꽃으로 화해서 향기를 내뿜어서 그 한군데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즉 말하자면 나온 자리에다 다시 하나로 몰아서 집어넣은 거죠. 바다의 물을 칼로 끊으려면 끊어집니까? 번뇌를 끊어라 하는데 어떻게 끊어집니까, 그게? 제 속에서 나온 거니까 제 속에 집어넣는다면 이것이 다 벌어졌다 오므라졌다 하는 작용에 의해서 용도에 따라서 쓰여지는 문제니까 자기의 지혜에 달려있는 거죠. 자기한테서 화해서 나온 것을 자기한테 되집어 넣으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마구니라도 그것은 당해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생이라는 그 자체가 전체가 다 둘이 아니라는 걸 아시고 사생의 인연을 일대사로 지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기주머니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불교라는 것은 스님네들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배우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물리가 터지면서 삶을 개척하는 것이 교(敎)거든요. 그러니 어느 교든지 막론해 놓고 이 진리 속에 안 들어간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란 진리 자체를 불교라고 이름해 놓은 거지,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짜 불교를 알면 둘이 아닌 줄 알고, 둘이 아닌 줄 알면 그 폭이 넓어지고 지혜로와져서 한바다 가운데에 증명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아주 가난한 노파가 지극정성으로 켠 불은 비바람이 쳐도 꺼지지 않았는데, 부자들이 와서 켠 불은 다 꺼졌다고요. 우리가 마음의 불이라면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쳐도 꺼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불이 어떻게 꺼집니까? 마음의 불이라면 어찌 꺼질 수가 있겠습니까? 켜졌다 꺼졌다도 없이 그 불꽃은 영원한 거죠.

그럼 왜 등을 켜느냐, 우리가 사는데 모습이 없으면 안되듯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되고 은공을 모르면 안되겠기에 이 뜻도 보면 모두 거기에 부합된 거죠. 내가 마음의 정성이 있다면 등을 켤 수 있는 거고 마음의 정성이 없다면 불을 켜지 못하는 거죠. 내 마음이 켜기 싫은데 어떻게 켭니까? 켜고 싶으니깐 켜는 거 아닙니까? 바깥으로 보이게끔 했다뿐이지, 내 마음이 내포된 마음의 등이다 이겁니다. 마음의 불!

우리가 언제까지나 중세계에서만 산다는 법은 없습니다. 중세계에서는 살기가 참 어려워서 사생들이 다 고에 휘말려서 살고 있죠. 그래서 그 사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셔서 같이 더불어 그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중생이고 나는 부처라서 건져주는 게 아니고, 사생의 인연을 다 짓고 보니까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전부 나 아님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서 그렇게 되는 거지, '너희들은 중생이고 나는 부처니까 내가 건져주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자식을 길러보지만 자식을 기를 때에 자식이 어디가 잘못되면 '차라리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면은 '아유, 차라리 내가 대신…,' 이렇게 마음은 들지만 실지로 대신해 줄 수는 없죠. 그런 부모의 마음이나 깨우친 분들의 마음이나 똑같은 겁니다. 겉으로는 너 나가 따로 있어서 부모가 따로 있고, 자식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너가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찰나찰나 화해서 구름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또 딴 자식이 되고, 딴 부모가 되고 항상 이렇게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 깨우친 분들은 세상에 어느 거 하나 내 아님이 있겠습니까?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으니 어찌 그 자비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처님의 눈물은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눈물과 같습니다.

사월 초파일에 이렇게 등불을 켜면서 한시라도 자기 근본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거기다 믿고 놓는다면 은산철벽을 뚫지 못할 리가 없고 바다를 건너지 못할 리도 없습니다.살면서 '아, 이건 정말 안돼, 안돼, 안될 수 밖에 없어' 이렇게 하시면 그건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되고 안되고는 오직 이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시자가 콩이야 팥이야 참견을 합니까? 시자 앞에 닥쳤으면 닥친 대로 밀고 나가는 건 주인이 알아서 하죠. 주인이 보현신으로 화해가지구선 그냥 쫙! 하고 내 마음이 선두에 서면 그냥 같이 화합해 준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앞장서지 않는 이상에는 같이 합해질 수가 없죠. 내 마음이 앞장서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면 모든 것이 물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서정연하게 말을 잘 할 줄은 몰라도 그 뜻만 헤아릴 줄 아신다면 됩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서 이론을 세우고 그러는 걸 목적을 삼는게 아니고 현실에 실천하고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내 능력을 내가 만들어서 삶을 잘 이끌어 나가시면 모든 것을 어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대자유법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스승은 내 마음의 스승일 뿐이지, 나는 누가 가르쳐 줘서 한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의 스승이 나를 이끌어 줬고 이끌어 주니까 배웠고, 배우는 반면에 배우지 않았고, 배운 게 없었고 한 게 없었고, 내가 없었고 남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런 거를 다 내 스스로서 배운 거지, 남으로 인해서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있기에 돌멩이 하나 풀 한 잎이라도 있으니, 그 모두가 스승이기 때문에 내가 배웠지 그것들이 없었다면 어찌 배웠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전부 스승이요, 안에도 스승이요 바깥에도 스승이니 어찌 내가 나라고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 풀 한 잎을 보고 꽃 한 송이를 보고 이 벌레먹은 나무가 쓰러진 걸 봐도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보면 더욱 더하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고 하듯이 여러분들과 일체제불과 일체 만물과 모두가 둘이 아닌 것을 아시게 될 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내 근본 자리 한군데서 나와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니까 내 근본자리에다가 감사한 걸 다 집어넣고, 부처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어떠한 악마가 닥친다 하더라도 다 그 자리에서 자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 생각하시고 거기다 다 집어넣고 거기서 해결하신다면 그릇이 왕창 비었다가 담기고 또 비었다 담기고 이러니까 아무리 큰 것이라도 아니 담기는 게 없죠, 뭐든지.

여러분들의 법의 스승은 각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다는 거를 잊으셔서는 안됩니다. 육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고 또 법의 부모가 내 마음 속에 있으니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해야지' 이러지도 말고 '안 해야지' 이러지도 말고 그냥 스무드하게 진행하십시오. 내 생일이 돌아와도 부모를 생각해보세요. 내 생일이 어떻게 내 생일이겠습니까? 부모의 아픔을 밀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 생일이 돌아오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조그만 거라도 맛있는 걸 정성스럽게 가져가서 "아버지 어머니, 이것 좀 잡숴 보세요."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예요. 부모의 마음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는 길에서 나서 길을 걸으면서 또 길로 갑니다. 부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하고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부처님과 다른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들이십니다.

악한것 선한것 긴것 짧은 것
못난것 잘난것 모두 갖췄기에
부처를 이룰수 있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마음을 발견 못하면 죽은거나 마찬가지
선악 둘로 보지 않고 놓을때 자유 얻어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마음처럼 …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부산불교교육대학
총포교사회 5기 **유마회**

회 장 노강용
총 무 김광문 최경자
재 무 여다나

■장소 : 불교복지보건대학 참선실
■시간 : 매주 금요일 19시 법회

■ TEL : 051)642-4398/011)573-4398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부산불교실업인회

회 장 서춘석
고 문 강병중
상임부회장 최용원
부 회 장 백봉도 최 찰 김종태 박수복 김윤환
감 사 이근철 박수관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93 삼환오피스텔 907호
TEL:051)637-7174/ FAX:051)637-7176

한마음 선원
부산지원 합창단

단 장 박채주
총 무 강갑순

단 원 일 동

■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번지
TEL : 051)403-7077

미 륵 암

주 지 사 숙

법우회 회장 최만호
수석 부회장 박형근
홍보 부회장 정 현
교육 부회장 김일문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767번지 (2/1)
TEL : 051)746-5432

국민회의
새정치 국민회의 부산·경남 연등회

실직자쉼터 연등회생활관

회 장 사상호
관 장 법 광

임직원 일동

■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707-11 우정주차장 2층
TEL : 051)852-0813~4
FAX : 051)852-0815

에이스 컴퓨터

대 표 박동수

◆ 컴퓨터 주변기기
◆ A/S 업그레이드

■TEL : 051)310-0130

화 방 차 회

「차는 마음입니다.」

원 장 송경자

회 원 일 동

■TEL : 051)413-6261

대한불교 천태종 백양산
三 光 寺

주 지 박덕수

총 무 이갈지 교 무 곽수산
재 무 정거호 포 교 이석용
노 전 김원재

신도회장 안영일
신도부회장 이종화 오귀분

사부대중 일동 합장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131
TEL:051)808-7111~5/ FAX:051)803-1332
인터넷 삼광사 http://www.Sarmkwangsa.org

대원 탕제원

대 표 이성민

영지차 · 호박차 · 건강차
탕제류 일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선동2가 98-3
TEL : 051)418-7356

부산불교교육원

입문자교육 수행자교육
우리문화기행 불교도서원

총재 대 성 부총재 영 규
원장 성재도 법우회장 박병곤

대 중 일 동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2동 43-4번지
TEL : 051)466-4080

일호면직상사

옥양옥, 광목, 삼베, 모시,
각종면직도매, 영가옷, 수의도매

대 표 백철우

■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4가 국제시장 5공구
B동 下층 1호 2층
TEL : 051)246-4263

유성한의원

한의사 임 명 식

■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2가 248번지
TEL : 051)412-4528

삼천불 봉안 불사도량
정 토 사

<부설>정토불교대학

주 지 덕 진

신 도 일 동

■ 울산시 남구 옥동 803-5
TEL : 052)274-3800

해 운 정 사
금모선원

조 실 진 제
주 지 명 언

신도회장 서석인
부 회 장 김주현 김오홍 홍무진성

대중일동 · 신도일동

■ 부산시 해운대구 우1동 412 32/4
TEL : 051)746-4812
FAX : 051)741-8882

롯데캐논 성주 O.A

대 표 진관영

◆ 사무기기, 일체
◆ BJ프린터
◆ 복사기, FAX, 첨단기기 일체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동 802-35
TEL : 051)756-0222
FAX : 051)756-0225

만도위니아

대 표 문병술

◆에어콘, 온풍기, 업소용냉장고
◆판매및 A/S, 중고매입
◆신품 및 중고 보상판매

■ TEL : 051)628-1281
FAX : 051)628-11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설: **불교복지보건대학**

지원장 · 학 장 혜 도

신 도 일 동
재학생 일동

■ 선원)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번지
TEL : 051)403-7077/ FAX : 051)403-1077
대학)진구 범천1동 847-18 건축사회관 6층
TEL : 051)647-6556, FAX : 647-6554

실직 노숙자 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부산 보현의 집**

소 장 이기표
상담실장 서송남

직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3동 1421-6
TEL : 051)506-0146
FAX : 051)501-9443

도원정사

주 지 순 자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86 1/3
TEL : 051)752-1037

건축사 사무소
일 탑

소장/건축사 박평섭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교리 343-2
TEL : 051)722-4785,722-8639
FAX : 051)722-4782

부산불교교육대학

이사장 한재구
학 장 이하우
부학장 박주천

총무처장 현익채 교무처장 이욱태
홍보실장 김수문 관리실장 김두찬
총무간사 김옥경 서 무 한은기

■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1동 390-34 화엄회관 2층
TEL : 051)818-8659 FAX : 051)807-7351

서 래 암

주 지 습득 월인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산 12-7
TEL : 051)513-7709,583-0273

사단법인
부산불교신도회

회 장 류진수
상임부회장 임채수

외 이사일동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4-7 혁정빌딩 7층
TEL : 051)464-2020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교의 미래와 번영을 생각하는 모임
재단법인 금정장학회

이 사 일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산57번지
TEL : 051)403-7096

대한불교 조계종 **육 주 사**

주 지 진 우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657-1 11/3
TEL : 051)973-0042~3

대한불교원효종 대본산
금 수 사

종 정 이법홍
주 지 송구산
신도회장 지재호
부인회장 김보원행

대중일동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4동 843
TEL : 051)467-3316,462-0338
FAX : 051)467-3316

대한불교 본원종 **성 불 사**

주 지 혜 원

신 도 일 동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1동 294-7
TEL : 051)292-6818,294-1800

부산여성불자회

고 문 혜 응

자문위원 정봉화 이영숙 박성빈

회 장 왕선자

부회장 이윤목 허명애 문남순
총 무 안영자 심춘자
재 무 이미춘 도정애
감 사 이경월 이소연

■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1동 390-34 화엄회관 2층
(부산불교교육대학옆)
TEL : 051)817-3166 FAX : 051)809-3166

세 명 식 품

보쌈젓갈 및 각종젓갈, 김장김치
절임식품. 제조원(부산진허제 18호)

대 표 설정수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341-4
TEL : 051)804-5989
051)817-5915

통도사 부산포교원

부설 시민선원, 문화관
부산, 김해, 연꽃 어린이집
울산보리수 어린이집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포교원TEL : 051)816-2241
FAX : 051)806-2430

■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현대불교·생명나눔회 공동캠페인

장기기증 100·화장서약 583명

봉은·법왕·법명사 법회

원혜·계성스님 장기기증 홍보 비디오 상영…헌혈도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수덕사 주지)와 본사가 연중 캠페인으로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실천 대법회가 지난 1일과 9일, 15일 강화 포교당 법왕사(주지 계성·조계종 교육부장)와 인천 법명사(주지 선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에서 각각 개최됐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연등대축제 개막식과 함께 열린 봉은사 행사에서는 원혜스님이 화장유언서약 및 장기기증을 신청하는 등 15명이 사후 장기기증을, 472명이 화장 유언을 각각 서약했다. 또 30명의 신도가 이날 헌혈하기도 했다.

생명나눔실천 단일행사로 열린 법왕사 법회에서는 법장스님이 참석해 서약을 독려, 51명이 장기기증을, 76명이 화장유언을 서약하는 등 모두 127명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또 '생명나눔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비디오도 상영됐다.

개산 10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열린 법명사 행사에서는 선일스님을 비롯한 34명의 불자가 장기기증을, 35명의 불자가 화장유언을 남겼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봉은사 캠페인에서 주지 원혜스님이 헌혈하는 모습.



◇주지 계성스님 등 참석자 대부분이 서약한 법왕사 캠페인.

권선의 말

"육신보시는 자비의 등불"

봉은사 주지 원혜스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두루 법문을 하시면서 늘 말씀하신 것은 바로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평화를 중생에게 보시하시고 인류에게 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과보를 바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보시를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런 보시행을 되새기고 이를 따르려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처님 오신날이 가까워 오면서 보시행의 참뜻이 여러분들이 단 연등불빛처럼 더욱 밝게 느껴집니다. 보시라 하는 것은 봉사하고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뚱이만 해도 죽어서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무척이나 아까워합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몸뚱이인데 무엇이 아깝습니까. 이 세상에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리 보시해 보세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까.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육보시야말로 자비의 등불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장기기증은 훌륭한 수행"

법왕사 주지 계성스님



수행을 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을 닦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수행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곳곳이 모두 수행처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도 수행입니다. 장기기증을 수행의 한 방편으로 삼아, 자신의 수행도 돕고, 고통받는 중생을 돕는다면 이 또한 얼마나 훌륭한 수행법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탐내고 인색하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지 않은 탓이고, 만약 복덕을 누리고자 한다면 마땅히 널리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기기증은 거룩한 보살행이자 현세의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불자들이 타종교 신자들보다 화장선호도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본래 화장을 전통 장례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자들이 오히려 화장을 꺼리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년에 여의도만한 면적이 묘지로 변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화장문화 선도에 불자들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법회 이모저모

학인스님 자원봉사 눈길

○…봉은사 캠페인에 중앙승가대학교 학인스님 2명이 자원봉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지성·진성(포교사회학과 2년)스님은 신도들을 불들고 캠페인에 동참해줄 것을 공손히 권유. 생명나눔회 자원봉사자들의 권유를 뿌리치던 신도들도 두 스님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항복(?)하고 순순히 서명하기도.



두 스님은 "생명을 나누고 자비를 실천하는 뜻깊은 캠페인이라 생각돼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며 뿌듯한 표정.

"나눌것 없어 헌혈이라도…"

○…생명나눔 캠페인과 함께 진행된 헌혈운동에 봉은사 신도 부부가 나란히 헌혈. 도곡동에 산다는 임봉춘(50) 안춘심(45) 부부는 평소 한 달에 한 번은 헌혈을 해 온 불자. 자주 헌혈하는 동기를 묻자 "마땅히 나누어줄 것도 없는데 헌혈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 옆에 선 부인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홍보 비디오 보고 눈물

○…강화포교당 법왕사 캠페인에 참석한 불자들은 '생명나눔이란 무엇인가'라는 12분 분량의 비디오를 보면서 연신 눈물을 훔치기도. 병으로 신음하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장기를 기증 받고 건강을 되찾은 어느 가장의 아내가 전하는 고마움 등에 감동을 받았는지 이날 법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불자가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에 서약.

"장기기증 하고 나니 기뻐"

○…인천 법명사 법회에 참석한 이상윤(43) 지삼상(42) 부부는 불교에서 장기기증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매우 기뻐하는 모습. "경소 장기를 기증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었으나 방법을 몰랐다"며 부부가 나란히 장기기증과 아울러 후원신청까지 하기도.

법회 동참자 명단

장기기증(100명)

▲법왕사(51명)

강민행 강진희 고창금 권영안 김동숙 김성국 김성범 김영진 김인순 김주란 김관일 김학노 김함숙 김형순 김혜영 류제인 박두창 박명심 박복녀 박순남 박재율 박혜윤 백부강 서옥분 인명숙 우민환 우제광 유영순 윤경화 이강옥 이상묵 이상옥 이수복 이승호 이용수 이인옥 이종만 이진영 이팔희 임인식 임종찬 장명숙 장은영 전창학 정태진 최병화 최연규 한성자 황성순 계성스님 설봉스님

▲법명사(34명)

권혜순 김복임 김봉현 김옥례 김인안 김정숙 김종하 김하정 노정태 민정순 박거명 박귀호 박정규 박한분 배영일 신일순 오덕수 이경숙 이상윤 이영례 이장훈 이종란 장현석 전종석 정성심 정영섭 조상현 조현숙 지삼상 최규복 표의양 황화연 선일스님 일정스님

▲봉은사(15명)

김범호 김승희 류민경 박영숙 박점숙 심명숙 이경숙 이영안 이위훈 전대식 정화빈 정정성 현미경 원혜스님 운공스님

화장서약(583명)

▲법왕사(76명)

강진희 고숙자 김기희 김동숙 김성범 김양선 김연애 김은옥 김인숙 김인준 김종순 김판임 김학노 김향순 김혜영 남상분 류제인 박덕성 박복녀 박승준 박을순 박재율 박정옥 박희자 서명숙 서옥분 석명용 송순자 신순례 안명숙 안수관 양보경 오양순 우남독 우미환 우제광 유영순 유정섭 유정숙 유현숙 유혜자 윤미경 윤은희만 이강옥 이득환 이상묵 이상옥 이수복 이승호 이윤경 이인옥 이종만 이지현 이진영 이팔희 임숙경 임인식 임정자 임종찬 장명숙 장은영 전귀정 전금주 전창학 정봉선 정은덕 정진분 최병화 최연규 최태규 하태정 한성자 한수연 홍현숙 황옥금 계성스님

▲법명사(35명)

강문수 강성도 고어진 김근옥 김상호 김정국 김진희 김창언 김태훈 류경수 박귀호 박무환 박찬분 서현호 손한용 송승용 신일순 신정배 안성태 양중수 양태용 윤다준 이경조 이경진 이원준 이장훈 장길종 장현섭 조완희 진행석 천주원 최원형 하선종 한정웅 황화연

▲봉은사(472명)

강동원 강득룡 강숙자 강순남 강옥자 강은덕 강춘희 강현애 강혜숙 경원희 고경진 고순희 고춘분 고태영 고한숙 고효순 공명옥 곽덕희 관음행 국연순 권기철 권미선 권순안 권오란 권옥희 권태리 권하리 권혁규 권혁숙 권혜진 권홍원 금정희 길보행 길석순 길정애 김 공 김강련 김갑선 김경남 김경립 김경애 김경원 김경희 김경자 김공완 김근학 김금자 김기완 김대정 김동례 김명수 김명자 김명희 김문숙 김미숙 김미영 김미영 김미정 김법효 김병찬 김복연 김복희 김부협 김상인 김상인 김상일 김석호 김선자 김순심 김순영 김순옥 김순태 김승희 김애우 김양수 김연숙 김영기 김영숙 김영숙 김영순 김영자 김영자 김영춘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용구 김용환 김운기 김유경 김은애 김은양 김은자 김인기 김인중 김장덕 김정단 김정란 김정민 김정민 김정순 김정심 김정애 김정애 김정자 김정자 김정희 김종림 김주신 김지순 김진숙 김태숙 김태순 김태옥 김팔용 김평란 김평란 김해영 김향숙 김혜숙 김현경 김현옥 김혜숙 김홍근 김희정 나성수 남기숙 남명숙 남수은 남영진 노경이 노미옥 노봉열 노영구 노영애 노혜경 류건용 류금희 류민경 류오숙 류태인 무상행 문경순 문관영 문금순 문순희 문양순 문화자 민은경 박경숙 박경희 박광희 박명숙 박명옥 박명자 박미숙 박미혜 박봉자 박석금 박선희 박성희 박숙자 박숙자 박순옥 박순옥 박영근 박영미 박영숙 박영애 박은순 박월숙 박월순 박희진 박인숙 박인순 박일순 박재선 박정순 박종진 박지명 박찬금 박찬숙 박찬영 박찬숙 박찬옥 박천성 박혜자 박현수 박호석 박희성 박희수 박희자 방순례 배영희 백남숙 변경숙 변영수 변정숙 봉효순 상품화 서대원 서명신 서미자 서복순 서상옥 서숙자 서희자 석명숙 성미령 손명옥 손순원 손연자 손영희 손용옥 송경국 송경애 송국란 송남례 송덕순 송명희 송선옥 송선희 송정임 송창숙 신문자 신부자 신석순 신연희 신옥선 신옥희 신진성 신태순 심미섭 심영숙 심정규 심정옥 안순희 안심득 안영희 안정희 안진영 양주필 양태옥 엄경자 엄금남 엄해영 여삼남 연옥희 예정자 오분란 오수영 오순자 오연자 온순덕 용부임 원기춘 유공임 유미경 유수자 유순애 유순희 유안순 유현숙 유혜숙 윤명숙 윤명희 윤미여 윤영희 윤옥진 윤재화 윤정희 윤창선 윤희병 윤희자 윤희숙 이경성 이경숙 이경애 이광순 이금자 이기숙 이기영 이길남 이도화 이두현 이명준 이문수 이미애 이병순 이병익 이복임 이봉재 이선우 이선주 이선희 이성옥 이성옥 이성옥 이성희 이소자 이송자 이수진 이숙희 이순옥 이순임 이순주 이순희 이시화 이신옥 이안자 이여옥 이영빈 이영상 이영안 이영애 이영자 이영희 이옥순 이옥하 이옥희 이원숙 이위훈 이은주 이인순 이인영 이정문 이정숙 이정숙 이정희 이정희 이준화 이지수 이진황 이진환 이춘희 이광용 이필수 이향원 이현기 이현정 이호정 이희숙 일심행 입남선 임봉춘 입점복 입창희 입혜영 입홍수 장길자 장선옥 장순예 장연미 장이환 장정순 장정자 장혜연 전대식 전대식 전명숙 전봉숙 전선영 전성애 전순임 전옥희 전현순 전화빈 정건영 정경숙 정경옥 정계영 정도랜 정동환 정명순 정세영 정소영 정순임 정영란 정영숙 정옥례 정은복 정원창 정은인 정희경 정재순 정정성 정창진 정향철 조달자 조명순 조산환 조순영 조순혜 조애달 조양원 조영숙 조영희 조완식 조용숙 조점순 조종숙 조종예 조해정 조현숙 주명숙 주영자 주숙정 주형자 지원성 지혜준 진 상 진여심 진우현 차석모 차인환 채병철 채정련 채희자 최귀용 최금심 최명희 최미정 최병채 최승중 최승화 최영숙 최영숙 최영경 최은순 최재영 최정옥 최정자 최주은 최준식 최지현 최창순 최학봉 최현숙 최혜자 하근아 하숙이 하순선 한기숙 한문자 한상옥 한진숙 한춘석 함영익 허 현 허인수 허외숙 허인숙 허혜정 현미경 홍복순 홍순의 홍영숙홍종팀 홍진동 황민정 황복순 황영자 황인숙 황주순 황혜운 황혜자 황희자 원혜스님 운공스님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마음처럼 …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기도와 전법 제일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봉은사**
주지 원혜
外대중일동
신도회장 진각 조선환
外신도일동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TEL : 02)511-6070~4
FAX : 02)544-2141

서울 은평구 사원연합회
회장 서성운(삼천사)
부회장 한자용(수국사회주) 부회장 이법성(관음사)
부회장 김혜진(시연사) 부회장 김혜장(송천사)
총 무 김도광(불광한의원) 서혜인(신흥사)
은평경찰서 경승실장 서성운
서부경찰서 경승실장 이법성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서성운
인덕노인복지회관
은평노인종합복지회관
인덕재가노인치매센타
인덕노인학교
인덕어린이집
수색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
노숙자 희망의집
응암독서공부방
■ 서울시 진관외동 488번지
삼천사 : 02)359-7766
인덕원 : 02)385-8205~6
FAX 02)358-2286

대한불교조계종
천안 천불사
사회복지법인
미타세계 만불동산
매월음력 초닷새는 큰스님 초청 법회일
회주 이기연
주지 석부불
신도회장 민병달·성림
신도회 일동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113번지
TEL : 0417)557-3223,557-3506
FAX : 0417)555-6550

청룡사
마야합창단
주지 김법운
합창단·신도일동
■ 경기도 광명시 광명3동 32-11
TEL : 02)612-0609

팔공산 관봉 약사암
주지 일여
신도회장 이광영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TEL : 053)852-0803

대한불교 조계종 **선산 원각사**
주지 대혜
원각사 신도회 봉사단
어린이 봉사단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산리 159
TEL : 0546)481-2363

흑석사
주지 부봉
신도일동
■ 경북 영주시 이산면 석포리 1380
TEL : 0572)637-1900

용화사
주지 강청
대중일동
■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2구 산 1번지
TEL : 0446)877-6515

대한불교조계종
보덕암
주지 태선
대중일동
■ 경기도 의정부시 관흥3동 595번지 14호
TEL : 0351)873-4130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 불자가 앞장섭니다.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법형제회 일동

■ TEL : 053)426-2779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신도회장 김 우 룡

신 도 일 동

■ TEL : 053)426-2779

남 강 석 재

석공예 / 불상명장

대 표 권오달

■ 전북 익산시 신용동 1094-10번지
TEL : 0653)854-5144, 855-9963
H.P : 011-673-9962

한 일 시멘트공업(주)

대표이사 정 환 진

임직원 일동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2-2
TEL : 02)531-7000

오백나한 기도도량
보조국사 정혜 결사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거 조 암**

주 지 혜 해

대 중 일 동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번지
TEL : 0563)335-1369

대한불교 조계종 **대덕산 임휴사**

주 지 정 혜

대 중 일 동

■ 대구광역사 달서구 상인동 1321번지
TEL : 053)632-4844

富 興 企 劃

대 표 홍 승

■ 대구시 중구 봉산동 223-7번지
TEL : 053) 426-9378 FAX : 053-421-3496

재단법인 선학원 **여여선원**

원장 이혜운

대 중 일 동

■ 대구시 수성구 달서구 송현1동 1982-4
TEL : 053) 622-0336, 629-4945

대한불교 조계종 제16교구
부 석 사

주 지 근 일

대 중 일 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2동 148번지
TEL : 0572)633-3464

대한불교 조계종
통 천 사

주 지 이선지

신 도 일 동

■ 대구시 동구 효목1동 3번지
TEL : 053)941-3503

대한불교 조계종
광 덕 사

주 지 운 성

대 중 일 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90-1번지
TEL : 053)763-0068

대한불교 조계종 **원 각 사**

주 지 대 혜

대 중 일 동

■ 경북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59번지
TEL : 0546)481-2363

황 룡 사

주 지 상 용

대 중 일 동

■ 대구시 남구 대명2동 1959번지
TEL : 053)652-7823

대 덕 암

주 지 성 천

대 중 일 동

■ 대구시 수성구 상동 250번지
TEL : 053)763-7164

대한불교 조계종 **대구광역시 신도회**

회 장 최동원

■ 대구시 중구 동산동 714번지
TEL : 053)253-2886, 252-9485

청구도시락

대 표 권오섭

■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757-4
TEL : 053)763-1009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학 장 우 학

"2만 동문신도가
부처님 오심을 봉축합니다"

■ TEL : 053)474-8228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포교당
아미산 보현사

주 지 지 도

대 중 일 동

■ 대구시 중구 남산2동 923번지
TEL : 053)254-6966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선재불교대학

학 장 정 관

대 중 일 동

■ 대구시 수성구 중동 551-23
TEL : 053)764-6807~8

안경테 수출업체
진양산업사

대표 성월 강인성
(경실련 불교시민회 회장)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 대구시 서구 비산7동 1336-2번지
TEL : 053)353-1598
팩스 : 053)351-9521

장서원 다시마한과

동맥경화방지
비만방지효과 **성인병예방**

■ 강릉시 성내동 12-12번지
TEL : 0391)647-8333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포교당)**

부설 : 금천유치원

주 지 현 법

■ 강원도 강릉시 금학동 29번지
TEL : 0391)643-2985

대한불교 조계종 **등명락가사**

주 지 청 우
신도회장 곽기웅
가섭회장 신호승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17번지
TEL : 0391)644-5337

대한불교 조계종 **낙 산 사**

주 지 지 홍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55번지
TEL : 0396)672-2448

동양한의원

원장 최종백

■ 강릉시 금학동 95-1
TEL : 0391)643-7575

농 촌 한 식

■ 강릉시 임당동 176-2
TEL : 0391)647-6696